hyunbulnews.com
현대불교

수행하고 기도하면 참지 못할 것도
참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불교의 힘, 기도의 힘입니다.
공부가 제대로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



제838호 2011년 6월 1일 수요일 (음력 4월 30일 · 불기 2555년 · 주간)

“인재불사 시급함 느껴 실천했다”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 10년 만에 청년회 재창립… 교불련도 청년불자 지원

1995년 174만여 명이었던 25~34세 불교청년인구는 2005년 144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2005년에는 15~24세 불교인구가 129만여 명에 불과해 2015년 인구조사에서는 100만 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 불자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지 제828호, 3월 23일자 보도)**

이런 가운데 10여년 전 청년회 활동을 중단했던 한 사찰에서 청년 인재불사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청년회를 재창립해 눈길을 끈다.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은 5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젊은 불자들에게 한국불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재불사를 중흥하기 위해 노적사 청년회 재창립법회 및 발대식을 봉행했다.

종후 스님은 행사 시작 전 인터뷰에서 “10여년 전 청년회인 청림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다 흐지부지 되면서 중단된 적이 있다. 이후 청년회를 일으키려고 생각했지만 요원했다”며 “현대불교신문의 ‘청년 인재불사’ 관련 기사를 보고 청년회를 일으켜야겠다고 발심해 오늘 재창립법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 ‘이웃종교의 청년양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이에 비해 불교의 앞날을 가만히 바라보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찰도 이제는 포교활동에서 미래불교를 위한 청년불자 양성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창립된 노적사 청년회를 위해 대한불교청년회는 법회 운영노하우 전수와 회칙마련에 대한 조언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노적사 이병권 포교국장은 “향후 회원모집, 회장선출 등 청년회 활동을 위한 조직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적사 신도뿐 아니라 노적사를 방문해주는 청년불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청년회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찰 주지 스님이나 지도법사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님들이 신경 써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청년불자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신심 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수불자연합회도 청년인재불사양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지도교수들에게 소정의 지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불련은 첫 지원 대학으로 강원대를 선정하고, 6월 11일 동아리 사무실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거행한다.

최용춘 회장은 “불자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공무원불자연합회, 의사불자연합회 등의 회원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2000만 불자수라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청년불자에 주목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 문화재 정말 훌륭합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이 5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랑 추기경은 자승 스님과 환담 후 한국불교역사기념관을 방문해 불교 문화재를 관람하고 탁본 체험을 가졌다. 토랑 추기경은 “문화재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느껴진다”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관련인터뷰=2면
글=박기범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통일 한국 위한 불교 역할 중요”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한국불교중흥대토론회서 강조



“현 정부가 실패한 대북정책을 버리고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강화, 남북대화를 추구해야한다. 이런 변화를 위한 한국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사진)이 안정적 통일을 위한 정책 변화와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토론회는 ‘한반도 평화 · 통일문제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토론자로는 대승사 주지 학담 스님,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이승환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前 장관은 발제 내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됐고, 정부의 모순된 대북인식이 통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前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념 대립을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종교고, 불교라고 생각한다. 남북화해의 가치 확산,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는데도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도 불교가 사회성을 넓히고 통일 한국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원장은 “원효의 화쟁사상처럼 다름을 인정하는 불교적 가치가 중요하다. 불교가 화쟁사상과 연기론의 현대적 해석과 확산에 노력해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천안함 사태 이후 5 · 24 조치로 민간의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불교계가 나서서 불교적 방식으로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담 스님도 남북의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불교를 매개로 불교도의 교류와 상호방문을 통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문화재 환수, “웃고, 울고…”

의궤환수 참의원 비준… 이천오층석탑은 파손

일본 자민당의 반대로 지연됐던 조선왕실의궤 환수 참의원 비준이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통과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표결 끝에 5월 27일 비준했다. 자민당은 본회의에서도 의궤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비준이 통과됨에 따라 31일로 예정된 내각회의에서 비준안을 발표한다. 이로써 조선왕실의궤 1205책은 일본 내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쳐 비준안에 따라 6개월 내 반환될 전망이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참의원 비준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계 등 민간에서 환수를 위해 노력 중인 대표적 문화재 ‘이천오층석탑’이 3 · 11 일본 대지진 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위해 일본 방문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천오층석탑은 4층 옥개석과 일부분이 한쪽으로 심하게 미끄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범 기자**

불교사전, 이젠 들고 다니세요

우리나라에 출판된 불교사전은 대여섯 종. 모두 크고 무거워 휴대할 수 없었다.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을 발간했다. 책에는 불교와 관련한 교리 · 사상 · 역사 · 인물 · 문화 등 불자가 꼭 알아야할 중요한 내용들이 1216쪽에 4950여 항목으로 담겨 있다.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고급 사전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에 불과한 것도 특징이다.



(02)732-2403 **조동섭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 고엽제 매립 비판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관련해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26일 발표한 입장서에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고엽제 매립과 살포를 30여 년 이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위는 입장서를 통해 △민관 공동 전수 조사 △고엽제 매립 및 살포에 관한 정보 공개 △직 · 간접 피해보상 △고엽제 무단 매립 관련 협약 · 규정의 개정 △독극성 제초제 사용 제한과 안전한 폐기 및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838호 CONTENTS

현장속으로 5
한·일 불교계 日 대지진 합동 위령제



청춘콘서트 6~7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성년의 날 콘서트



봉은사 강주 초청법회 14
해월 스님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작은책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족사 시리즈 책입니다.

» 교리 · 입문 사성제 · 팔정도 — 이필원 _ 값 6,500원 —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 교리 · 입문 육바라밀 — 성재헌 _ 값 6,500원 — 여섯 가지 실천 덕목
» 수행 · 명상 생활명상 — 김남선 _ 값 6,500원 —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 수행 · 명상 위빠사나 — 정준영 _ 값 6,500원 —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 신행 · 문화 관세음보살 — 김호성 _ 값 6,500원 — 나무관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 신행 · 문화 아미타불 — 여여법사 _ 값 6,500원 —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를 기약하지 마세요
» 신행 · 문화 사십구재 — 구미래 _ 값 6,500원 —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테마별로 계속해서 출간 될 예정입니다.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통도사 방장 불신임

산중회의 출범…차기 주지는 영배 스님 품신키로

차기 주지 추천으로 불거진 통도사의 갈등이 방장 원명 스님의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확대됐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5월 24일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산중총회는 제적승려 414명 중 227명 참석(이중 82명은 위임)해 성원됐다.

통도사 대중스님들은 '영축총림 방장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신임 결의했다. 차기 방장으로는 월파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추대하고, 차기 주지는 영배 스님을 품신키로 했다.

또, 임회 권한을 갖는 산중회의를 구성키로 하고 의장에 명신 스님을, 부의장에 재경·범해 스님을 선출했다. 산중회의는 통도사 대중스님들이 임회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구성한 비상대책기구이다. 산중회의는 승납 10년 이상의 통도사 대중스님 가운데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중스님들은 "24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방장스님이 불신임되고, 임회의 기능도 유보됐다. 주지임기도 29일자로 만기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으나 이마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산중회의를 구성케 됐다"고 밝혔다.

통도사 자정을 위한 대중결사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서 대중스님들은 방장 원명 스님의 자신 사퇴와 괴문서 발송자 산문 출송을 촉구했다. 총무원에는 임회 결의를 존중해 줄 것과 대중 공의 없는 주지추천을 반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결의문 촉구사항 이행을 위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 등은 통도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참회 단식 정진을 시작했다.

이어 27일, 통도사 대중스님들은 경내 육화당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회의' 출범식을 열고, 영축총림의 비상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체 제적승려 414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27명 스님들의 대중공의에도 불구하고 논란과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장 원명 스님 측인 경봉문도회 총무 인산 스님과 반산 스님은 "산중총회 개최 전 방장스님이 '산중총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중종회의 위임참석도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임을 포함해 산중총회의 성원이 된 것과 관련해 산중총회법과 중앙종회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경봉문도회는 산중총회서 대중스님들이 영배 스님을 통도사의 새 주지로 품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방장스님이 원산 스님을 통도사 주지로 추천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방장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방장스님 측 반발과 별도로 새 방장으로 추대된 월파 스님(조계종 원로의원)도 방장자리를 고사했다.

월파 스님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자신이 방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으로 많이 얹잖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내게 방장을 하라고 해도 방장의 자리에 뜻이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도사 사부대중이 문중별로 분열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산중 어른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다. 통도사 사부대중이 화합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도사 산중회의 부의장 범해 스님은 "월파 스님의 말씀은 산중의 갈등 구조를 화합으로 회향하라는 것"이라며 "월파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한 것과 영배 스님을 통도사 주지로 품신한 것 등 산중총회서 결의된 대로 이행해 나감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총림 주지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스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호계원 초심위원장 재원 스님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도사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총무원장스님의 결단 뿐"이라며 통도사 주지 임명에 대한 자승 스님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통도사 정상화를 위해 총림주지 임명권자인 자승 총무원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에 힘써달라

동국대에 수불 스님 50억원, 진흥원 1억원 기부

조계종립 동국대에 불교계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안국선원 수불 스님이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기금으로 50억원을 약정한데 이어, 대한불교진흥원도 대원불교문화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안국선원 수불 스님이 5월 23일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기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약정하고, 이날 2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이 약정한 50억원은 전액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동국대는 김희옥 총장의 리스타트프로젝트(RE_START Project의 일환으로 국제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선센터는 동국대 재학생의 선실수, 불교 포교 및 한국불교의 국내외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같은 날,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진흥원 회의실에서 동국대 김희옥 총장에게 대원불교문화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조동섭·천진영 기자

분당에 천태명상센터 건립

천태종, 불교문화 중심 문화체험 전파 기대

경기 분당에 불교문화 중심의 대규모 전통복합문화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는 5월 22일 경내 대불보전에서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및 다도문화센터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센터는 천태종 도심포교사찰인 분당 대광사에 연면적 1만70㎡(3043평)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세워진다. 센터 지상에는 1개 층의 천태명상센터와 2개 층의 다도문화센터가, 지하에는 대강당,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정신문화인 명상이 지혜로운 원력에 힘입어 센터라는 현대적 공간에서 각색됨에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개회사에서 "센터는 전통문화를 계승·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이를 공유·체험하고자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됐다"며 "지역문화 수준향상 및 국내를 찾은 외국인에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사회 급변 할수록 불교 중요"

토랑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사회가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할수록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사진)은 5월 24일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랑 추기경은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전하려는 소명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과 종교,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참된 대화입니다."

박기범 기자



화엄·법화회 승려노후기금 등 3억원 전달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화엄회(회장 성직)와 법화회(회장 정념)는 5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승려복지·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두 종책모임이 4월 개최한 선서화전을 통해 모연한 수익금 중 일부다. 두 종책모임은 선서화전을 통해 6억 5000만원을 모연해, 이날 전달한 승려복지기금 1억원, 자비나눔기금 2억원을 비롯해, 지구촌공생회에 5000만원(3만달러) 등을 쾌척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사상, 통일의 중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주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화쟁리더십아카데미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신적 통일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통일은 분단 이전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와 국민의 탄생과 창조"라며 "신라 삼국통일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호국정신과 불국토, 불연국토사상(佛緣國土思想) 사상과 같은 불교의 정신적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 외교 △북한 동포에 대한 햇빛정책을 통해 펼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수도권 포교, 머리 맞댄다

조계종이 수도권 포교의 대안 마련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5월 24일 수도권불교활성화 방안 TFT 실무회의를 열고, TFT를 구성했다.

수도권 불교활성화를 위한 TFT에는 총무원 총무부·기획실, 교육원, 포교원, 포교연구실, 불교사회연구소 등 종무기관과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화계사 도선사 등 수도권 주요사찰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들은 수도권 포교전략수립과 지역거점도량으로서의 사찰 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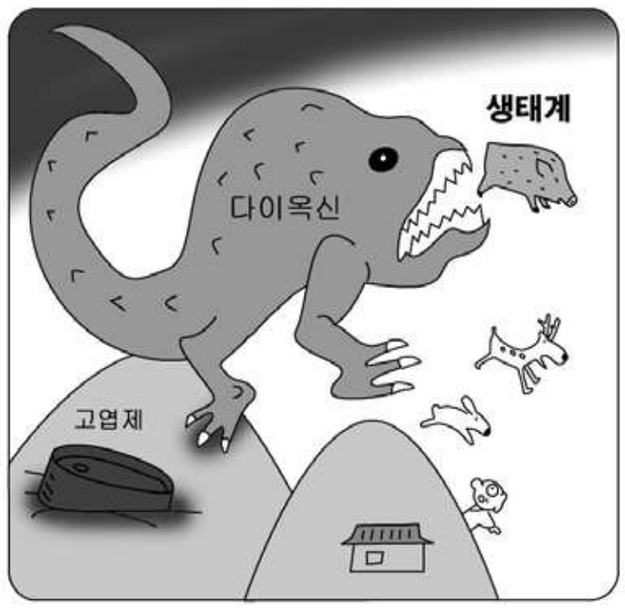
'개운사길' 명칭 복원 약속

'개운사길'의 명칭이 복원될 전망이다.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은 "윤이순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5월 26일 개운사길 명칭변경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데 대해 사과하고 복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 측은 "정부지침을 따르다보니 개운사가 지닌 역사성을 살피지 못했다"며 "성북구 새주소 위원회를 재소집해 '개운사길'의 명칭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경허선사 문하 만옹대선사 문도 법제자 건당식

한국 불교계에 선풍을 일으킨 경허선사(鏡虛禪師)문하 법통을 이어받을 대덕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근세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바로 성우 경허(惺牛 鏡虛)선사께서는
우리불교의 불씨를 되살려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신 큰 스승 입니다.
이에 선 법맥을 이어 받으신 손상좌 만옹대선사(萬翁大禪師) 문도에 건당을 하여 법제자 되실
대덕 큰스님들께서 주저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허선사문하 만옹대선사 문도회 회장 현불 합장

- 신청마감 : 6월 13일 오후 5시
- 자격요건 : 승납 25년 이상 또는 품계 : 대덕이상
- 신청동참금 : 30만원(건당신청서 제출)
- 법제자증명 : 가사(본인지참), 전법게, 법권, 발우
- 문 의 : 02)785-6870 / 041)943-7620
  회장 : 010-6478-1569 /사무총장 010-8900-3050
- 일 시 : 불기 2555년 6월 26일(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충북 청원군 쌍이리 산 7-1번지 담화정사

대한불교 표암(알평)승가회 제 3차 모임

석가세존의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위국 애민하는 마음으로
호국불교이념을견지하고 경주이씨 표암 알평공 시조를 기리기 위하여
경주이씨 문중 승려모임을 주창하는 바 뜻이 있는
경주 이씨 성을 지닌 스님께서는 본 승가회에 가입을 환영합니다.

명예회장 만옹 도일, 영공 도성
회 장 홍산 현블
사무총장 능인

- 모임일시 : 불기 2555년(2011년) 6월 22일 정오 12시
- 모임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56-20 서심정사
- 동참회비 : 3만원
- 문의전화 : 서 울 02)761-0410, 041)943-7620
  대 구 053) 325-5288
  회 장 010-6478-1569
  사무총장 010-3900-3050

* 본 승가모임에 동참하실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 공통 정서는 불교”

불교중흥대토론회, 토론자들 남북불교교류 통일 초석 기대

이종석 전 장관과 이승환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은 5월 25일 열린 불교중흥대토론회에서 시종일관 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흡수통일 기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반면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은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위해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했다. 학담 스님은 통일을 위한 불교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사회주의 진영 붕괴 후 시장 경제 체제 일원화, 북한 체제 위기 심화,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 등 통일을 둘러싼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통일 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남북한 이질화,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주권적 실체로서의 북한’과 ‘도덕적 잣대로 판단한 북한 정권’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대하는 북한은 ‘주권적 실체’다. 이런 냉철한 인식이 현 정부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민간의 인도적 지원 허용과 한미 · 한중 외교의 균형, 대화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승환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흡수통일’ 기조를 비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흡수통일 근본주의로 치닫고 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에 나타난 정책기조는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 수준의 변화를 위한 대북압박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냉전해체와 통일을 위해 북핵 포기와 평화체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변화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 통일을 말할 때는 북한을 주권적 실체로 보는 것 못지않게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여준 원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극심한 남남갈등이 선결과제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통일 한국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담 스님도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지난 몇 년간의 대북기조는 유효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 이전에 엄연한 실체로 존립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특수한 조건을 이해하면서 소통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정치적 · 군사적으로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문제는 정치적 이해 등과 연결되면서 이념적 간극이 크다. 사찰 복원 등 비정치적인 사안으로 남북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 관계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원장도 한국 불교가 우선 남한 사회 내부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관심과 역량을 모으고 연기론과 화쟁사상을 통해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당부와 요청에 대해 학담 스님은 남북 공통 정서인 불교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담 스님은 “분단 극복의 실천은 분단이 본래 분단이 아님을 보는 반야(般若)와 분단이 분단 아님도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방편지(方便智)의 길이다. 불교문화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 불교도가 만나 양쪽의 고찰을 참배하고 교류하면 통일을 위한 기반이 마련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맑고향기롭게 내홍 여전

회원 양분·정체성 혼란·소통 부재·불신 증폭

전임 이사장 사퇴와 자발적인 정상화 모임으로 안정되는 것 같던 맑고향기롭게(이사장 현장)가 여전히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신임 이사장 현장 스님은 5월 18일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3월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이사장 선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반대로 아직까지 이사진 구성과 중앙사무국장 채용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다.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은 홈페이지에서 현장 스님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리고 반박과 재반박의 공방을 펼치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 스님은 이사장 선출 직후 모둠장 및 서울지역 대의원 모임을 통해 이사진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과 회원들이 현장 스님이 구성하려는 이사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들은 사무국장 임명 조차 현장 스님이 등기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현장 스님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내홍의 원인을 회원들은 “종교단체와 NGO 사이의 맑고향기롭게의 정체성 혼란, 소통 부재, 불투명한 재정, 명망위주의 이사진 선출”로 분석하고 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합을 통한 조속한 대의원 총회가 개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장 스님은 논란을 견디지 못 하고 현재 서울을 떠나 있는 상태다.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에서 “합법적인 선출임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출가 이후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이금송 맑고향기롭게 지역모임 대의원은 “이사장으로서 현장 스님이 나서서 6개 지부 본부장 및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부별로 이사 추천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고향기롭게는 前이사장 덕현 스님과 前이사들의 법정 스님의 저작권 상속 및 절판유지를 두고 시작된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곤 前 감사는 “덕현 스님은 이사회에서 출판유언 무효화, 맑고향기롭게를 개인명의 출판사 등록 등을 시도했다. 유언 무효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세가 아니겠냐?”라고 비난했다. 덕현 스님도 “정제되지 않은 욕심과 야망, 시기심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언 기자**

리처드기어, 불교 배우러 한국온다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등 한국 불교체험



세계적인 스타인 리처드 기어가 6월 21일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방한한다.

불자로 널리 알려진 리처드 기어가 6월 21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리처드 기어의 이번 방한은 6월 14일~7월 13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자신의 불교사진전 ‘Pilgrim(순례자)’ 홍보를 위한 것이다.

리차드 기어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불교사진전 전시와 함께 템플스테이와 발우공양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예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리처드 기어의 선수행과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전시회에는 그가 직접 촬영 · 제작한 64점과 사진작가 24명이 기어 재단에 기증 · 제작한 24점의 사진 컬렉션 ‘티벳 포트폴리오’가 선보인다. **노덕현 기자**

종교계,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시민사회와 함께 밀가루 5000톤 지원 추진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북녘의 식량사정을 걱정하는 종교 · 시민사회 모임’은 심각한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5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2명의 종교 · 시민사회인사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불교계에서 몽산 스님(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영담 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남북의 정치 ·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현재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고, 최소 6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각계의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통해 밀가루 5000톤을 준비해 북한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이후 적법한 과정을 거쳐 지원물자가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분배 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한 조치들을 완화 · 해제해야 한다”며 정부의 유연한 입장과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기범 기자**

공 하나로 화합하는 이주민 불자들

마주협,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아시아 불자 배구 대제전’ 추진

이주민들의 화합과 불교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배구대회가 마련된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아시아 불자 배구 대제전’을 추진한다며 5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배구대회는 6월 19일 양천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9개국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시합을 펼친다.

특히 9개국 대사들이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가하고 각 나라별 전통음식과 공연, 의상 등을 선보인다. 배구 외에도 줄다리기 등이 진행되며 각국의 특색 넘치는 응원전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단체는 당초 축구 등 다른 종목도 고려했으나 몸싸움이 적고 부상 염려가 낮은 배구가 대회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회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행사로 추진된다.

마주협 남춘호 팀장은 “배구 대회가 불교계 이주민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대회를 통해 이주민 단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은 “아시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봉사자들이 이주민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기범 기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정식 계첩을 발급합니다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각 종단 차원의 수계 의식 행사를 별도로 봉행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일 주 문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5월 21일 동국대에서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신흥사 행자 모집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5세 이상 50세 이하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닌 독신남자를 대상으로 행자를 모집한다. (033)636-7044



제7회 탄허대종사 휘호대회 시상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제7회 탄허대종사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 시상식을 5월 25일 개최했다.



조계사, 대세지전후불탱화 점안식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5월 20일 소설법전에서 대세지전후불탱화 점안식을 개최했다. (02)732-2187



동련, 제5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은 6월 4~5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해처럼 빛나는 행복의 나라'를 주제로 제5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불광연구원 2011 봉축 학술연찬회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생태담론과 생태운동'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108산사순례회, 배삼룡 코미디쇼 개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혜자 스님은 5월 27일 문경 시민문화회관에서 '故 배삼룡 추억의 코미디쇼'를 개최했다.



대구봉축위 회향
대구봉축위원회 위원장 성문 스님은 5월 20일 반월당 보현사 내 대구불교대학에서 결산평가 회의를 갖고 올해 봉축행사를 회향했다.



제 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6월 11일 부산 홍법사에서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아고라 바자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불교여성광장(AGORA) 건립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오대산 보관이 당연

영공 스님, 문화재청장의 의궤 국가 보관 주장에 반박

"환수되는 의궤는 반드시 오대산에 보관돼야 하며, 국가기관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불교계와 환수위원회 노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불교와 정책 대표 영공 스님(사진)은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5월 23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스님과 불교와 정책은 조선왕실의궤의 오대산 사고 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왕실의궤를 국가기관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2006년 1차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논란 끝에 결국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됐다.

이에 영공 스님은 2006년 결정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선왕실의궤는 수탈 전부터 400여 년간 보관돼 온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도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네스코도 유형문화재가 본래 위치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스님은 환수 문화재를 모두 국가에서 집중 관리할 경우 문화유산과 지역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중앙집권적인 발상만 할 경우 전국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공 스님은 원칙과 효율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성적 판단만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이런 활동을 어렵게 합니다. 의궤가 오대산으로 돌아온다면 지방의 문화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공 스님은 의궤가 오대산으로 돌아와 월정사가 다시 수호총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스님은 우선 조선왕실의궤의 오대산 보관 타당성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강원도지사 등에게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의궤가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야 하는 이유가 상세히 열거돼 있다. 문화유산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지역에서 유지돼야 교육적 가치와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의궤 환수를 위한 월정사와 조계종신도회, 강원도의 노력, 당초 보관된 곳에서 연구를 실시해야 입체적 연구, 중앙과 지역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스님이 의궤의 오대산 보관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 일로 정부와 불교계가 다시 갈등을 겪는 다면 국가적 손실일 뿐입니다. 종단도 의궤가 오대산에 최종 보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 또한 전통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불사의 하나입니다."

박기범 기자

쉬지않고 달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4~7월 울트라 마라톤 뛰는 진오 스님



불과 한 달 전이었다. 108㎞ 마라톤 완주 결승점을 통과한 꿈을꾸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은 땀이 식기도 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뇌를 잘라낸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을 위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했던 스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뭉친 근육이 풀리기도 전 진오 스님은 또 한 번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해야 했다. 4월 18일 캄보디아 이주민 문이가 오토바이로 사고로 허리를 수술했다는 소식이었다.

"또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미 다친 사람을 위한 것 보다 예방차원으로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사고 소식을 전하는 스님의 목소리는 가슴이 검게 타들어간 듯 말라 있었다. 하지만 진오 스님은 포기 하지 않았다. 진오 스님은 다시 달렸다.

5월 28일 울산 태화강 울트라마라톤 100㎞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헬멧을 보내주기로 했다. 말로만 하는 안전 교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주민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헬멧을 쓰라고 말해도 절대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진오 스님은 1㎞에 200원, 100㎞에 2만원을 후원하는 자비 나눔 운동을 계획하고, 6월 1일~8월 31일까지 헬멧 500개 지원금 모금성취 목표를 세웠다. 헬멧 생산 업체는 스님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시중가 4만 9000원짜리 헬멧을 대폭 할인해 2만원에 헬멧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진오 스님의 달리기는 멈추지 않는다. 6월 4일 낙동강 200㎞ 울트라 마라톤, 7월 17일 김해 장유마라톤에서 42.195㎞를 달린다. 후원계좌 농협 301-0078-2689-01 예금주 꿈을이루는사람들 www.maha108.net

이상언 기자

원광식 성종사 대표, 명문장수상



국내 최대의 범종 제작회사인 성종사가 5월 19일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돼 원광식(69.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명문 장수기업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랜 기업역사와 경영 역량을 축적하고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불교 관련 업체로는 성종사가 첫 수상이다.

원광식 대표는 17세때부터 범종 제작을 전수받아 1973년부터 성종사를 이끌어 왔다. 평생을 범종 제작에만 몰두해 온 원 대표는 중요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명장, 신지식인으로 지정돼 있다. 양양 낙산사 동종 복원을 비롯해 서울 보신각종, 5.18민주의 종, 임진각 평화의 종, 화천 세계평화의 종 등을 제작했다.

원광식 대표는 "태국, 대만, 베트남 등에 지사를 설립해 전세계에 한국 범종을 퍼뜨리는데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부탄 국왕, 일반인과 세기의 결혼



세계 최연소 국왕인 지그메 케사르(31)부탄 국왕이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발표해 화제다.

지그메 케사르 국왕은 현지시간으로 5월 20일 의회 연설에 참석해 "오는 10월 일반인 여성과 혼례를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 CNN과 인도 NDTV 등 세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소식에 따르면 지그메 케사르 국왕의 예비신부인 제선 페마(20)는 인도와 영국 레전트 대학에서 유학했다.

이번 결혼식은 지그메 케사르 국왕의 뜻에 따라 간소한 전통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지그메 케사르 국왕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으며 2008년 28세 나이로 부탄의 제5대 국왕 자리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제4대 국왕인 지그메 싱예 왕추크로 '국민 총 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란 개념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여유가 자비 만든다

티베트 영적지도자 촉니린포체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깊은 패턴(잠재된 의식, 공포, 습관) 때문에 그러는 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패턴에 대한 여유와 유머는 이해와 자비를 만듭니다."

티베트 영적지도자 촉니 린포체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냈다.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는 내외국인으로 가득 찼다. 그의 법문은 은유, 예시를 통해 유쾌하고 명쾌했다.

티벳문화원과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특별 법문에서 촉니 린포체는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소개했다. 그는 내면의 본질적인 행복·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지적 발달이 함께 이뤄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린포체는 "감정, 가슴과 웰빙, 근원적인 사랑을 돌보지 않은 채 조직의 틀 안에서 인지적인 것 만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현대불교 www.hyunbulnews.com 이상언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기원과 세계불교 초대법왕 서경보 일붕존자
원적 15주기 추모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창종주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탄신97주기 및 원적 15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재 및 만등대법회를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기원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붕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 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5년 6월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6월 10일
(음 5. 9)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 조천체육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만세동산 옆)

◆ **연락 및 문의처**
1. 총무원 : 전화 02)998-8161~2
전송 02)998-8384
2. 제주종무원(경운사) : 064)762-7816
3. 각교구 종무원
홈페이지 : http://ilbung.org

◆ **대 법 주 : 법담 정각**
증명법주 : 지공, 명종, 청송, 무찰, 도기, 법운, 원각, 수암, 금봉, 지산, 인왕, 봉암, 일공, 동산, 법광, 혜지, 혜철, 정암, 동원, 양명, 석봉, 혜봉, 월인

◆ **대회장 : 의륜**
부대회장 : 경원, 송산, 용주, 일명, 혜광, 혜천

◆ **봉행위원장 : 화엄**
봉행부위원장 : 용암, 용운, 석성, 지우
봉 행 위 원 : 덕봉, 정일, 재성, 도정, 만성, 혜일, 자명, 경담, 자견, 지연, 대각, 도허, 경담, 법경, 일운, 대성

◆ **기획위원장 : 삼주**
기획부위원장 : 상원

◆ **추진위원장 : 영수**

◆ **집행위원장 : 경운**
집행부위원장 : 제법
집 행 국 장 : 혜암, 문상철

◆ **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장 : 법영 / 총무위원 : 해동
진행분과위원장 : 광은 / 헌공위원 : 대성
의전분과위원장 : 보월 / 의전위원 : 정철
재무분과위원장 : 지운 / 재무위원 : 동해
경호분과위원장 : 석경 / 경호위원 : 법일
섭외분과위원장 : 지현 / 여성부장 : 현순화
봉사분과위원장 : 광명심 / 봉사위원 : 지현
홍보분과위원장 : 서병렬 / 홍보위원 : 정견

◆ 동원위원장 : 보해, 동청, 지성, 고봉, 현담, 승원, 해동, 혜성
동 원 위 원 : 해정

주최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전국일붕문도중앙회 /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주교구

日지진 아픔극복, 韓불교계도 한마음으로

일본 가나가와 현 가마쿠라 광명사서 한일 합동 위령제 봉행, 성금 1000만엔 등 전달

"한국불자들의 큰 자비심은 일본 국민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활력을 줍니다. 한 · 일 불교교류를 넘어 동아시아 우호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계가 일본 현지에서 동북대지진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5월 23일 오후 2시 일본 가마쿠라 정토종 광명사에서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진 및 쓰나미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등 한국불교계 대표 40여 명과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 부회장 후지다 류죠(藤田隆乘) 스님 및 일본 불교계 인사 30명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일한불교 사무총장 노자와 료코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위령제는 일본 의식과 한국 의식이 순서대로 각각 진행됐다.

한국 의식으로는 반야심경 봉독, 추모묵념, 회장 및 부회장단 추도사, 한일불교 수석부회장 홍파 스님의 발원문 낭독, 한일불교부회장 인공 스님의 추도사, 천도의식 및 살풀이, 한일불교 부회장 회정 정사의 위로말씀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성금 1000만 엔(약 1억 3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위령제에서 한일불교교류협의회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의 추모사 대독을 통해 "대지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자비실천의 불교도의 도리를 넘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일본 국민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 인공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일본의 높은 시민 · 질서 의식은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 국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대지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도 큰 아픔이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대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일본 국민들을 격려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먼길을 와 정성어린 위령법요를 봉행해줘 감사하다. 한국불자들의 큰 자비심은 일본 국민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활력을 준다"며 "동아시아 우호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깊어지기를 기원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천도의식은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법주로 천태종 범음법패보존회 스님들이 진행했다.

한편, 이번 한국불교대표단으로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 등 한국불교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계종에서는 대표단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사회부장 혜경 스님이 참석했다.



한일 불교계 대표들이 위령제에서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있다. 좌로부터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부회장 후지다 류죠 스님

이에 앞서 한국불교교류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22일 일본 진언종 본산인 가마쿠라 평간사를 방문해 관수(본사 주지)인 후지다 류죠 스님과 함께 흔마의식을 올리고 성금을 전달했다.

후지다 류죠 스님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을 대신해 한국불자들의 따듯한 마음씨에 감사를 표한다"며 "지진 피해회복과 함께 불법홍포와 한일 불교문화교류의 또 다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표단은 당초 후쿠시마 지역에서 피해복구 및 위령제, 성금 전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정부의 불허로 가마쿠라 지역을 방문했다. 가마쿠라 지역은 약 800년 전, 가마쿠라 막부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곳으로 진언종 총본산이 위치해 있는 등 불교색채가 강한 곳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의 아픔을 간직한 가마쿠라 지역은 도쿄에서 1시간 가량 거리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는 약 200km 떨어져 있다. 대표단의 방문 직전인 22일 오전에는 진도 5.3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일본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죠(가마쿠라 평간사 관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제 대덕스님들께서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일본에 와 주셔서 오늘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정성어린 위령법요를 봉행해 주신 것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큰 구원금을 보내주신 것 거듭 감사의 예를 드립니다. 지원기관을 통해 피해자 구원에 유효하게 활용되게 할 것입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국내 관측사상 최대가 되는 마그니츄-드 9.0을 기록하고 10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아직껏 경험한 바가 없는 큰 해일로 인해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부를 중심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사망자가 1만5000명을 넘고 2개월이 경과한 현재에도 행방불명자는 8000명이 되고 피난민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에 기인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도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미증유의 재해에 일본국민은 하나가 되어 부흥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중일 3국 불교의 황금의 고리로 이어지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모든 분들의 크나큰 자비심은 일본국민에게 더욱더 용기와 활력을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를 같이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중국의 온가보수상이 내방하고 동북의 피해지를 위문해 주신것은 동아시아의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참으로 의의 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국민 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보내주신 따듯한 원조에 힘입고 피해지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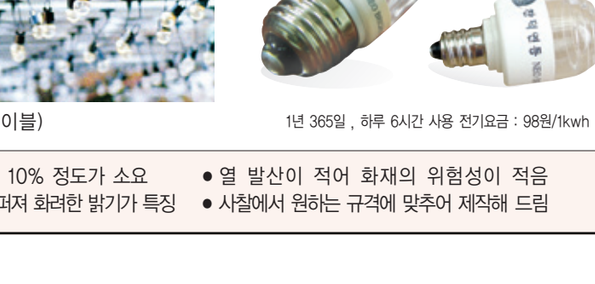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스펙보다, 내적 자아성찰이 우선시 돼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성년의 날 맞아 2030세대 위한 청춘콘서트 ‘우리 함께 꿈꾸자’ 개최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이사장 법륜)이 성년의 날을 맞아 5월 2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2030세대를 위한 청춘콘서트 ‘우리 함께 꿈꾸자’를 개최했다. 청춘콘서트에는 2030세대가 추천한 우리시대 가장 존경받는 6인의 멘토인 법륜 스님, 안철수(KAIST 석좌교수), 박경철(시골의사, 칼럼니스트), 김제동(방송인),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여진(배우) 등이 출연해 5000여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행사는 전체 3개의 세션으로 △안철수 · 박경철 ‘도전, 우리세대의 창조적 청년리더십’ △조국 · 김여진 ‘정의, 우리세대의 청년아젠다와 정의로움’ △법륜 스님 · 김제동 ‘행복, 우리세대의 정체성과 자립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 새내기를 비롯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인의 멘토가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5월 22일 열린 청춘콘서트에는 법륜 스님, 안철수, 박경철, 조국, 김여진, 김제동이 참석해 5000여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청년, 도전하다


안철수


박경철

박: 요즘 ‘멘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신적 멘토라는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안: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 청년 분들이 멘토에게 가장 기대하는 부분 1위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 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면 시간이 흘러 비슷한 고민거리에 봉착했을때, 그 문제에 대해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단순히 멘토에게만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돼버립니다. 멘토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멘토도 조언자에 불구합니다. 누군가 아무리 좋은 답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 판단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오늘 교수님과 제가 나누는 주제가 ‘도전’입니다. 요즘 20대들에게는 ‘도전’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하나의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안: 도전이라는 것은 20~30대 세대들이 지녀야할 당연한 과제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과거에 집착하면 노인이고, 미래를 바라보면 청년입니다. 도전은 청년들의 특권입니다. 이 시대에 도전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는 이유는, 갈수록 도전하기가 힘든 세대가 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점점 ‘도전’이라는 것을 하기 힘들까 생각해보면, 그 답을 한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3등을 할 정도로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두 번 다시 재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남들이 잘 한 것을 보고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는 것들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패스트 팔로우어(fast follower)라고 합니다. 한국은 투자를 하면 절대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한 번 실패하면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실패한 자는 절대로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당 2만 불을 소득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6년 째 소득 수준이 2만 불에 멈춰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해야할 부분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아무도 안하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 과거 집착하면 노인, 미래 바라보면 청년
>
> 실패해도 그 시간은 인생의 값진 시간

하지만 한국은 실패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를 전염병자처럼 만들어 재기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천재 한 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천재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면 바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다른 천재들은 자신이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한국 발전 가능성에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박: 지금 기성세대들이 지난 시절 성공을 이뤄 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성공양식을 그대로 지금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의 양식을 가지고 현재의 사회를 살면 무조건 실패하고 맙니다.

안: 심각한 것은 사회구성원 전부가 지금 이것이 문제라고 느끼고, 잘못됐다고 깨달았지만 관성에 의해 그 문제를 멈추고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구조 현상들은 항상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거기다 부모님 말씀까지 잘 듣습니다. 1~2학년 때는 학교에 입학에서 문제없이 지내다가, 3학년이 돼서 뒤늦게 정신차리고 보니 자신의 전공이 정석에도 안 맞고, 평생 이걸로 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이었던 이 학생은 산업디자인과로 옮기고 싶었는데, 전과를 하자니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 만약 이 길을 선택했다가 또 다시 이 길도 나랑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 회로가 차단될 것 같다는 겁니다.

강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알려면, 강둑에 앉아서 보고만 있는 다고 알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강물에 뛰어들어 직접 강물의 물살을 느껴봐야 합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시간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라고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대 졸업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하는 일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른다. 그 일이 성공을 할 수도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 보면 다 연결돼 있다.” 과거의 경험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다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박: 도전을 논할 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지향하는 목적이 달라지는데, 확고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에 앞서서 내적 자아 성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내적 자아성찰 보다는 스펙이 더 인정받는 사회에서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안: 세상에 제 이름이 알려지고, 신문에 저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때 이름을 떨쳤던 그 분들이 어느 순간 추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추락한 유명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프로 생각해 본다면 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비례로 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주위의 평가는 롤러코스터처럼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게 객관적 사실인데, 주위 평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자신의 실력인줄 착각하고 맙니다. 남들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보다 커 보일 때,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박: 김종인 前 경제수석께서 ‘모든 선택은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에 봉착하게 되면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던져준 질문에 수동적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저는 7년 동안 의료업과 컴퓨터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새벽 3~6시까지는 컴퓨터 관련된 일에 매진했고, 나머지는 의사 본업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신간

감사하고 사랑하며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삶의 빛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학 스님은 감사와 사랑을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참좋은 행복 바이러스인 감사와 사랑이 우리가 늘 꿈꾸는 행복,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스님의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상이라는 것이 보통의 우리에게 그리 멀지도 낯설지도 않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행복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이 책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참좋은행복 바이러스 | 컬러 304쪽 | 정가 13,000원 | 구입문의_ 도서출판 좋은인연 또는 불교대학서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행자모집 합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교대학서점 053-474-8229
홈페이지 한국불교대학 www.TVbuddha.kr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cafe.daum.net/indelamang

는 상황이 왔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2배씩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지도학생을 맡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도학생을 맡으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학생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저에게 배우러 왔는데, 그 시간에 제가 딴 짓을 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선택은 결국 희생을 수반합니다. 1주일 동안 그 고민을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보면 무엇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모든 선택은 이걸 놓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모두 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위 평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과를 선택했지만, 힘들어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힘들어 합니다. 진정 주위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단기적인 행복을 드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만 놓고 미리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안했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라는 것에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몫은 3분의 2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사회의 여건, 운, 주위의 도움이 합쳐져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공의 결과를 독식하려 들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그 많던 복잡한 판단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본질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서 세운 이 원칙을 갖고 남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박: 예전에 인재는 그야말로 말 잘 듣는 사람이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인재상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 과거는 창의력 있는 인재보다는, 말 잘 듣고 시키는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 인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을 키우는 창업주인 폴 브라운은 어떤 인재를 뽑느냐고 물었더니, "사람을 뽑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학벌, 이력 등에는 관심 없다. 나는 딱 한 가지만 본다.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뽑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 정의를 생각하다


조국


김여진

김: 얼마 전 제가 '미친×'으로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홍대 청소노조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저는 1월부터 홍대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엔 그 일이 갑작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까지 결정하게 된 데에는 많은 과정을 지나쳐왔습니다. 4~5년쯤 JTS에서 거리모금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가 지금 걷고 싶은 길이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시작했을 때 조계사에 갔었고, 그렇게 한 발 한발 내딛다가 홍대까지 갔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홍대 사태를 보고 '왜 저분들이 최저 임금을 받는 것을 우린 당연하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관련된 일들을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했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져 바자회며 김장, 파티 등을 열어 그분들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과감하게 손은 붙잡고 나니, 믿음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던 겁니다.

정치에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말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조: 우리는 모두 타인의 덕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받는 임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노동의 덕을 보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진씨의 홍대 사태는 연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 연대의 손길이 모여서 홍대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김여진씨를 할퀴려 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 사실 제가 좀 둔한 데가 있습니다. 상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받고 싶습니다. 함부로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지 '날라리'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때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조: '날라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날라리 외부세력'을 조직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라리'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여진씨가 '날라리'여서 좋았습니다. 왜냐면 '날라리인 나도 이렇게 한다', '날라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사, 열사, 투사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고 날라리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날라리라는 작명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김: 처음 홍대를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소위 '벙개'를 통해 홍대 앞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벙개를 친지 10시간만에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몰랐는데, 그날 모이고 보니 홍대 앞에서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이고 춥기도 해서, 일단 술집을 잡고 들어가 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홍대에서 술을 마시며, 우리끼리 내린 결론은 "우리 수준이 이렇지 뭐"가 아니라, "우리 수준은 이거야"였습니다. 그냥 우리 수준이 이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야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선수대신 내가 경기를 치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저희는 옆에서 응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린, 날라리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이 약하면 연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날라리 외부세력'이라고 칭하고, 먹을 것 싸들고 가서 갖다드리고 재롱떨어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조: 김여진씨가 얼마 전 만든 플래카드에 이렇게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등록금 반값만 내자.'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버리기 전에, 아예 반만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실현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 한 겁니다. 제가 낸 세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차도 타고 다니고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분들이 말한 건 지켜드리 게 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조: 사실 현행법상으로도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그 수익의 80%를 학교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 현행법만 실현 돼도 우리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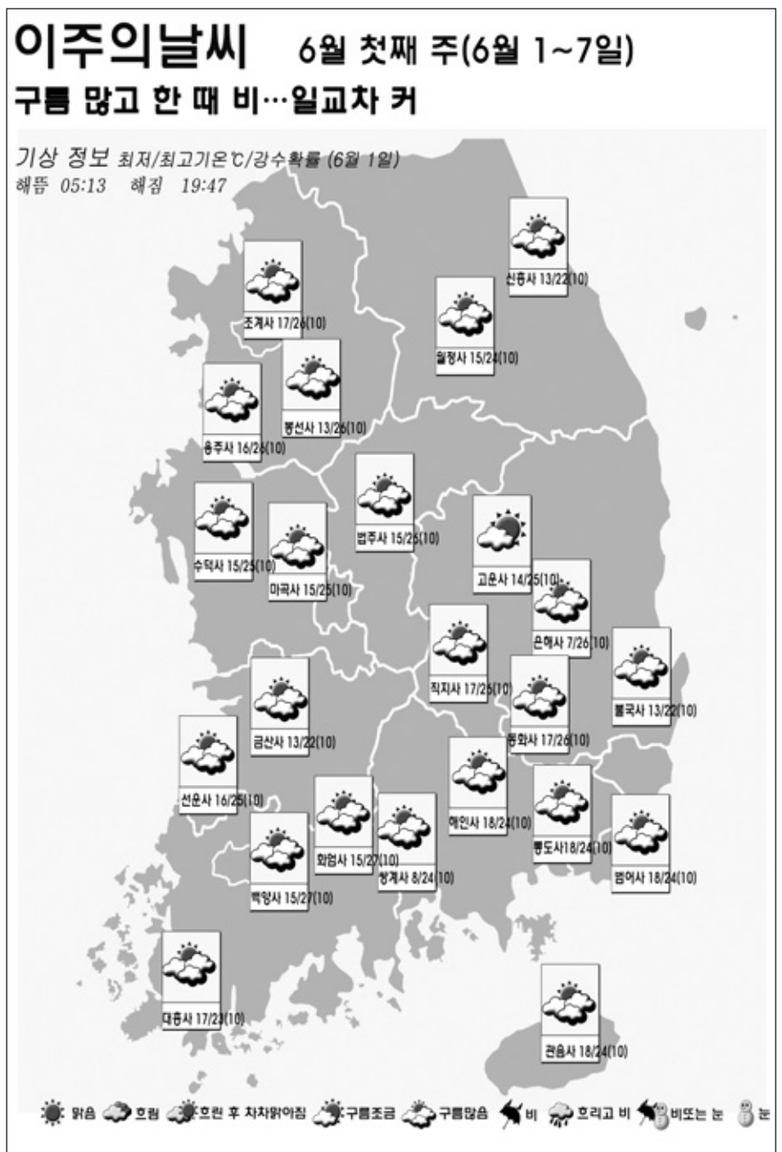
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다 함께 용기를 내서 실현 시켜야 합니다. 요즘 조국 교수님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진보집권플랜에 대해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오실 것도 아니시라면서 그렇게 까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조: 바로 2012년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껏 배워왔고, 가르쳤던 법의 모습이 이 세상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이 동시에 바뀌는 때입니다. 4대강을 비롯해서, 북한과 한국을 둘러싼 다섯 개의 나라 권력이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에 따라 한반도의 사회 국제현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10~15년 뒤에 여러분들 자식이 '아빠 엄마는 2012년에 뭐하고 있었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여진씨의 '날라리 외부세력'처럼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질러본 일입니다.

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중 하나가 바로 투표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왜 하지 않냐고 물으면, '찍을 사람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찍어봐야 안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투표는 꼭 해야만 합니다.

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투표를 할라치면 지역구 출신들이 하나 같이 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우선 정치란 게 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각자가 낸 세금으로 국가의 자원이 만들어 지고, 그 자원의 분배권한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세금이 모여 4대강에 쓰일 건지, 어디에 쓰일 건지를 국회라는 공간에서 모두 결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라는 게 뭘까요. 투표는 올바른 정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선과 차선, 차악과 최악이 있다면 최선인 사람인 없어도 최악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은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정치인을 시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는 해야합니다. 그럼 진짜 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최선이 되면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20대 비례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20대 목소리를 40~50대의 기성세대들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20대의 소리를 내면 됩니다.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이고 차선일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 연예인들이 시청률을 신경 쓰듯이, 정치인들은 표가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표율이 높은 쪽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방에 경로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조건 100% 투표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의견에 절대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말을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신의 말을 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주요 5개지역 날씨

	목(2)	금(3)	토(4)	일(5)	월(6)	화(7)
서울	구름많음 17/26	구름조금 16/27	구름많음 16/27	비후갬 16/25	구름조금 17/27	구름많음 18/28
대전	구름많음 15/26	구름조금 14/27	구름많음 15/27	비후갬 16/25	구름조금 17/28	구름많음 18/28
광주	구름많음 15/27	구름많음 16/28	구름많음 17/28	비후갬 17/25	구름조금 18/28	구름많음 18/29
부산	구름많음 18/25	구름많음 17/26	구름많음 17/26	비후갬 16/23	구름조금 17/24	구름조금 17/24
대구	구름많음 17/26	구름많음 16/28	구름많음 17/28	비후갬 17/25	구름조금 18/28	구름많음 18/29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뿌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2011년 옥천범음대학 하계특강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보유자이신 김구해스님께서 직접 생전예수재를 교수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 교수 : 김구해 (보유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 강 일	6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수 업 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종 강 일	7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 3시

▣ 법 고 무 – 교수 : 이기봉 (전수교육조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 강 일	6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수 업 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종 강 일	7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명 발 – 교수 : 한동희 (전수교육보조자)

	날짜 및 요일	시 간
개 강 일	6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수 업 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종 강 일	7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92-3234
※(주의) 각 과목별 개강일, 수업일, 종강일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합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불교가 부산항 위상 높였다

국제항만협회 총회 참가자, 범어사서 다도 등 불교문화체험에 호평

세계 항만들의 올림픽인 제27차 국제항만협회(IAPH) 총회에서 한국 불교문화 프로그램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5월 24일 IAPH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IAPH 회원과 동반자 등 500여 명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

총회 참가자들은 이번 총회의 공식 만찬 장소로 선정된 범어사의 건축양식과 불교문화재를 감상하고 한국 차문화를 체험했다.

범어사 다도회는 박물관 앞마당에 마련한 찻자리에서는 햇녹차와 말차, 연잎차, 흑주차, 오미자차 등 다양한 차와 함께 적채떡과 호박떡, 쑥떡 등을 차려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원더풀"이라며 한국 차와 음식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외국인들은 찻사발에 담긴 말차



IAPH 총회에 참석한 외국인이 범어사 다도회가 마련한 차를 받고 있다.

가루를 다솔로 거품을 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차를 대접하는 정성어린 손길에 감동을 받고, 처음 맛보는 향기로운 차의 맛과 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주지 정여 스님은 "범어사는 많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자 부산시민들의 안식처이다. 한국의 불교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찰이 종교시설로 한정돼 인식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행사는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 소통하고, 사찰 고유의 문화 자원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통 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범어사에서의 공식만찬과 한국 불교문화체험 외에도 김치 만들기, 오페라 '춘향전'과 한복 패션쇼, 한복 입기 체험, 전통 예절 등 우리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알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 국제 항만분야에서 부산항과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드높이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항만협회(IAPH)는 1955년 미국에서 발족한 세계 최대 항만 관리 관계자 국제기구로 현재 90개국 346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부산 총회에는 60여 개국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연극으로 '자타불이' 실천하는 대승보살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햇빛연극단'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용호햇빛연극단이 대박을 터트렸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용호햇빛연극단(단장 박동민)'은 제29회 부산연극제 부대행사인 제4회 부산시민연극제에서 4개의 상을 휩쓸었다.

'용호햇빛연극단'의 명칭은 소외된 이웃에게 문화로 접근해 밝고 따스한 빛을 전하자는 뜻이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05년 7월 처음 창단했다. 부산 지역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역민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됐다.

무대에 올리는 대부분의 작품은 관람료가 없다. 대신 제작비와 무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로 창작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며 문화적 충족감을 채워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겨준 창작극 '진짜 춘향전'은 성춘향의 어머니인 기생 월매와 본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연극이다. 기획, 연출, 무대 제작 등 모든 과정을 외부 전문인의 도움 없이 용호햇빛연극단이 자체적으로 창작하고 만들었다. 뿐만 아니다. 의상 및 기타 소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공연장에서 무대 준비와 이동, 뒷정리까지 연극단원들이 해낸다.

배우들은 연극을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한단다.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적극적인 보시의 결과 이번 연극제에서 단체 부문에서는 금상(부산광역시장상)을 시상했다. 개인부문에는 우수연기자상에 전선자(이도령役)·안숙화(성춘향役), 장려상에 손문희(방자役) 단원이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 내 작은 복지관에서 태동한 '용호햇빛연극단'은 현재 부산지역 여러 복지관과 지역 축제 등 더 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연산정신병원이나 울산치매예방센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의 큰 무대에서 노인학대예방극 '새는 둥지에서 날개 짓을 배운다' 등을 무대에 올릴 때면 보람이 더욱 크다.

박동민 단장은 "연극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 무대에 오를 수도, 객석에서 즐길 수도 있는 대중문화의 한 장르일 뿐이다. 단원들에게 항상 적절한 연기 지도와 배우의 노력만 있으면 기성 배우 및 작품 못지않게 훌륭한 연극을 탄생시킬 수 있음을 일러 준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우리 극단만의 고정 레퍼토리를 만들어 상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의 명소인 이기대에 깃든 설화를 소재로 한 연극도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만들어 지역 예술 발전이 곧 세계적 예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다부진 포부도 밝혔다.

이춘성 관장은 "단원 모두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순수 시민들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들에게 환한 마음을 전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며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타인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는 '자타불이'의 이치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이라고 말했다. '용호 햇빛 연극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극의 기초와 연기 실습, 작품 연습 등이 진행 중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010-2215-0373

박지원 기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자승이에요!"

홍법사, 제1회 동자승가족체육대회 성료

홍법사 역대 동자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5월 22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1회 동자승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자승 단기출가를 수료한 1~6기 동자승 어린이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체육대회 하루 전, 동자승 어린이들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은사인 심산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등 사찰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박지원 기자

고려불화의 美는 원색

동아대 博, 명사 특강

동아대 박물관은 이전개관 2주년을 맞아 5월 13, 27일 부민캠퍼스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일상 속 불교미술의 세계'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서 정우택 교수는 석가여래계불화와 아미타여래계, 비로자나계불화 등 고려불화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고려불화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朱), 녹청(綠靑), 군청(群靑)의 삼색을 기본으로 안료의 원색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 혼합해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면구성 요소의 자기주장과 억제의 교묘한 조화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은 결국 조화의 미이며 그것은 곧 고려인들의 정서였을 것으로 짐작 된다"고 말했다.

최응천 관장은 "통일신라가 금속공예의 근간을 이뤘던 시기라면, 고려시대는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형태 등으로 변화 발전된 시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재가자도 안거로 수행생활을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안국선원장)는 5월 23일 조계종 부산연합회 교육관에서 '재가 안거 수행결사'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재가 안거 수행결사'는 안거 90일간 일상생활 가운데 스스로 '수행약정서원'을 세우고, 정해진 수행예제를 실천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정승가를 위한대중결사(의장 만초, 이하 대중결사)와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중심이 돼 이번 하안거를 맞아 처음 시도됐다.

동참자는 스스로 정한 시간에 삼귀의, 수행서원문 염송, 7보선행 등 '기본 수행'과 108배나 108관음염송, 108미소자각, 참선, 사경, 경전 7독 등을 '선택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행점검표에 매일 ○, △, ×로 실천 상황을 기록하고, 보름 포살법회에 참석해 그간 수행 경험을 도반들과 공유하고 주지 스님으로부터 점검도 받는다.

만초 스님은 "전국 사찰 공통의 안거증을 발급해 대외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가 안거 수행결사'는 부산 금천선원(총무 정운), 능인선원(주지 성각), 대광명사(주지 목종), 미타선원(주지 하림), 수도암(주지 일철), 해광사(주지 혜성), 홍법사(주지 심산) 및 울산 해남사(주지 만초),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 등 전국 14개 사찰에서 운영 중이다.

박지원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수용자들의 든든한 맏형

제29회 교정대상 봉사상 수상한 성광문 前 전북포교사단장

"봉사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인데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광문 前 전북포교사단장(사진)이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은 5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김영해 KBS 한국방송 부사장과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이 참가했다.

봉사상을 수상한 성광문 前 단장은 군산교도소 불교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의탁재소자등 불우수형자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영치금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왔다. 또한 여자 수용사동 환경 개선을 위해 선풍기와 세탁물 탈수기 등을 지원하는 등 여자수용자들의 수형생활 불편 해소에도 앞장섰다.

"수용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인 대가를 치루고 있으며, 한 번의 실수가 삶의 족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출소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광문 前 단장은 수용자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강연과 종교 활동 지원, 전시용 액자 설치 등 심성순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군산교도소 교정교화활동 이외에도 옛 군산역 앞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외환위기 이후 소일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이 모여 있다.

2008년에는 군산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새터민 4쌍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직접 주례를 맡기도 했다.

성 前 단장은 또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군산지역에서 청년회장과 신도연합회장 소임을 맡아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며 군산불교회관이 개관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고, 전북포교사단장을 맡아 활동하며 지역의 신행과 포교활동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5년부터 군산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광문 前 단장은 2009년에도 교정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 상임대표, 국제로타리 태양로타리클럽 회장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평소에 '어제 즐겁고 좋은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만 저에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지장보살님께 기도발원 하고 있는데, 이상은 그 가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상금 500만원은 군산시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것입니다." 조동제 전북 지사장

광주 불교, 노 前 대통령 2주기 추모

증심사 등산로 '노무현 등산로'로 선포… 음악회, 사진전 등 열어



문빈정사에서 열린 故 노 前 대통령 추모행사에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펼쳐졌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상임대표 법선)는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시작해 증심사를 거쳐 장불재, 입석대까지를 '노무현 등산로'라고 명명 하고 선포식 및 산행을 5월 19일 봉행했다.

'노무현 등산로'는 지난 2007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등산을 등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등산코스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노 前 대통령은 장불재에서 '멀리보면 대의가 보인다' 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이날 선포식에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법선 스님을 비롯해, 강운태 광주시장, 한명숙 前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백만민란 대표 등이 참여했다. 기념식 후 참석자들은 '노무현 등산로'를 오르면서 고인을 추모했다.

21일에는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음악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법능 스님, 가수 김원중, 광주시립국극단장 윤진철 등 광주 문화예술 인사들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노무현 前 대통령을 회상하는 많은 곡들은 선사해, 추모 열기를 더했다.

이 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할 만한 사진 60여 점을 엄선한 사진전도 마련됐다.

행사를 준비한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두 분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무등산 산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등산 증심사 청소년 역사 기행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에서 운영하는 대원장학회는 '2011 청소년 동북아 역사기행'을 실시한다. 역사기행은 중국 백두산, 단동, 대련, 환인 지역에 있는 고구려유적과 백두산을 탐방하는 코스로 6월 17~ 21일까지 진행된다.

대원장학회는 매년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행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장학회 측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이들 16명을 선정했으며 아이들이 우리민족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를 마련한 지장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바로 보는 마음은 중요하다. 이번 기행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웃고 즐기다보니 어느새 한마음

익산 불교신도회, 화합과 친목위한 명랑운동회 개최



명랑운동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익산불교신도회(회장 박중근)가 '익산불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열고 익산 불자들의 화합을 다졌다.

한마음 명랑운동회에는 익산 관음사 덕림 스님, 백운사 우성 스님, 금당사 탄오 스님 등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익산지역의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마한교육문화원 실내체육관에서 5월 22일 열렸다.

이 행사는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화합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돼 올해 2회째를 맞고 있다. 대회는 익산지역별로 미륵, 관음, 보현, 문수의 4개팀으로 나누어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2인3각 이어달리기, 공머리 이고 달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펼쳐졌다. 불자들은 명랑 운동회를 즐기면서 지역불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 회장은 "불자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껏 웃고 즐기며 한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즐거운 게임을 통해 불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마음 명랑운동회에서는 단합된 불자들의 모습을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자는 의미로 익산불교신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익산사암연합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해동검도 선무관의 검도 시범과 함께 참석한 불자들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움과 원망 내려놓으라"

군산교도소 재활관, 장애인 재소자 수계법회

군산교도소 직업재활관은 재활관 강당에서 장애인불자 재소자들의 수계법회를 5월 20일 봉행했다.

군산교도소 재활관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불자 16명은 전계아사리로 나선 군산 관음사 재곤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재가불자 5계를 수지했다. 이들은 5계를 수지하면서 지난 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재곤 스님은 계를 설하기에 앞서 재활관 불자들에게 계를 수지하는 공덕을 설했다. 스님은 "오늘 수지하게 된 삼귀의계와 5계를 목숨처럼 지키고 생활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재곤 스님은 또 "계를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죄와의 인연도 모두 소멸되고 선근 인연이 다가오게 될 것이니 지난날의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참된 불자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에는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성광문 前 전북포교사단장, 관음사 불자들이 동참해 새롭게 불자로 거듭난 재소자들을 축하했다. 군산 교도소 재활관에는 현재 약 70명의 장애를 가진 재소자가 수용돼 있으며 제과, 제빵, 컴퓨터 수리 등의 직업 기술을 배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불교단체 다양한 음악회 추진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콘서트 개최 예정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빛고을시민회관에서 '2011 아픈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명나눔콘서트를 6월 20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해 아픈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밝고 맑은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발병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중퇴해 만성신부전, 루프스성 신염,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신음하는 12살 남기우 어린이외 2명의 환우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이 함께 펼쳐진다.

행사에는 굿페마루의 판굿, 반야유치원생들의 율동, 조선대학교 무용팀의 무용, 발원기도, 가수 강신주권기씨의 노래, 환우치료비 전달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생명나눔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보여주는 행사를 넘어서 음악회에 참여하면, 그 기금이 아이들의 치료비로 전달되는 기부음악회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맑고향기로운 노래이야기' 음악회를 7월 1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심진 스님, 정율 스님, 도신 스님, 다솔 스님, 범능 스님 등 노래하는 스님들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 합창단이 출연해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뉘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 · 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黃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黃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 · 구 · 나 · 업 · 계 · 이 · 해 · 하 · 고 · 배 · 울 · 수 · 있 · 는!!

핵 · 심 · 사 · 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2〉
선각 국사 도선 ㊦
(先覺國師 道詵, 827~898)

민중의 삶 지향한 선종 정신 계승

돌이켜보면, 신라 하대 불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불교가 융성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융성한 불교가 각 지역 세력과 결합해 지방 세력을 형성하고서 중앙의 지배에 반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불교가 통치이념을 제공하던 때에 그 불교의 각 세력이 지방의 권문세가와 밀착해 중앙의 통치에 반한 것이 신라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불교가 불교 본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명리에 물들어서 탐욕을 갈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경험한 태조의 예비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비책에 도선 국사의 사탑비보설이 등장하고, 그 사탑비보설이 도선 국사를 단순히 음양설의 도참가라고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태조가 지적하고 있는 땅의 덕[地德]은 단순히 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곧 민심이 이반하고서야 온전할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태조의 생각인 것이며, 사탑비보를 말한 도선 국사의 생각 역시 그 민심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 신라시대에도 역시 원당(願堂), 곧 왕실이나 귀족들의 기원에 의해 지어지는 대규모의 사원은 민초들의 고혈을 강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별한 배려가 없고서야 대규모의 토목사업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노동력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민중에 대한 수탈을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원당의 창건이 특별한 제어장치 없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민심이 이반할 것은 불문가지일 터이다.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원천은 민중의 노동력에 있고, 그 민중의 삶이 위태로워진다면 국가는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풍수지리설 자체가 일종의 인문지리학이라는 주장이 대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도선 국사 풍수지리설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논의도 활발한 것 같다.

필자는 도선 국사의 사탑비보설의 형식적인 원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탑비보설의 형태 자체보다는 사탑비보설을 받아들이고 적용한 정신적 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선 국사의 정신적 원형은 역시 그 스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도선 국사는 신라 하대의 승려로 속성은 김(金)씨이고



고려 태조 왕건의 초상화

법호는 신종(辛宗)·도승(道乘)이며, 시호는 요공(了空)·선각(先覺)이다. 신라 흥덕왕 2년(827)에 전남 영암의 구림에서 태어났으며, 문성왕 4년(842)에 월유산 화엄사에 출가했고, 문성왕 9년(847) 20세에 이르러 동리산 태안사의 혜철 국사(慧哲國師)의 문하에 귀의했다.

혜철 선사는 중국의 서당지장 선사에게 배우고 귀국해 동리산문을 개창한 조사이다. 사실 이 혜철 선사를 전후해 신라에는 남종선을 배운 선사들이 귀국하여 아홉의 산문을 개창했는데, 이 같은 신라 하대 선종의 융성은 단순한 새로운 사조(思潮)의 유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귀국 초에는 대부분 환영받지 못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민심의 귀의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들의 관심과 지향이 민중의 삶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도선 국사는 그러한 선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⑧

장지연 선생과의 나이·사상 초월했던 우정

경봉 스님이 26세이던 1917년, 통도사 마산 포교당 주지소임을 잠시 살던 때가 있다. 이곳에 부임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스님은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1864~1921) 선생을 만나게 된다. 장지연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때 항일의병 궐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짓고, 이상재 등과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인물이었다. 특히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설을 써서 일제의 만행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 사실을 알렸다.

위암 선생은 경봉 스님과 만나기 전에 이미 스님이 계를 철저히 지키고 설법도 잘 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경봉 스님이 마산에 오기 전에 6개월간 토굴 속에서 혹독하게 정진했다는 것, 석장을 쥐고 요령을 흔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법문을 한다는 것, 졸음을 쫓기 위해 기둥에 머리를 박고 얼음을 입에 물고 정진했다는 등 스님에 대한 소문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위암 선생이 경봉 스님을 만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스님이 시문에도 대단히 밝다는 점이었다. 선생은 첫 눈에 경봉 스님의 기품 있는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알아봤다. 180cm의 훤출한 키에 단아한 입술, 거기에 한없이 맑은 눈은 26년의 나이 차이를 떠나 경봉 스님을 저절로 존경할 수밖에 없게 했다.

"경봉 선사는 통도사의 큰스님이다. 그의 성품은 단아하고 학식은 해박해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며 유가의 선비들과 잘 어울리니 대개 혜원과 영철 같은 분이다. 마산포교당에 머물면서 설법하고 계행을 지니니 모든 선남선녀 신도들이 신앙하고 귀의해 계를 받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나 또한 스님의 오묘한 견해와 정진 그리고 원만하면서도 맑고 담박함을 좋아해서 법석에 임하여 법문을 들은 지 여러 해가 됐다."

훗날 장지연 선생이 밝힌 것처럼 경봉 스님과의 만남은 그의 지친 삶에 청량제 역할을 했다. 특히 스님과 서신으로 시를 주고받던 일은 선생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합포성 서편 학령엔 가을이 물들고
포교당 높은 곳 선정이 깊네.
숲 사이로 돛단배는 연기 속에 아물아물
하늘가 산봉우리는 물위에 비치네.
깜박이는 등불, 어리는 향기에
스님은 선정삼매.
범종소리 그치자 꿈에서 깨어났네.
둥글고 둥근 동방의 밝은 달
우담화 피듯 오대주 두루 비추소서.
(合浦城西鶴嶺秋 教堂高處敞禪樓
樹稍遠舶煙中出 天際群峰水上浮
燈邃香殘僧獨定 梵清鍾歇夢初收
也知滿滿東方月 遍照曇花五大洲)

장지연 선생의 글에 경봉 스님은 아래와 같이 화답했다.

우담화 꽃 핀지 그 몇 해인가
창생을 제도하며 세상을 경계하네.
사자후 토하는 바위 앞에 푸른 뫼 우뚝하고
용트림 하는 바다 위에 흰 구름 떴네.
보배 칼날 찬란하니 두려움 없고
지혜 달 영롱하니 흥이 겹구나.
하늘같이 높은 파도 뉘라서 헤쳐 나오나
야삼경 금까마귀 강가에 내려오네.
(優曇花發幾春秋 晩度蒼生警世樓
獅吼巖前青嶂立 龍吟海上白雲浮
寶鋒璨爛心無怖 慧月玲瓏興未收
誰在滔天浪裡返 金烏夜半下長洲)

나이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 넘어 두 인물의 우정은 계속됐다. 경봉 스님이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보은탑을 건립할 때 위암 선생이 적극 나서 이를 도왔고, 〈조선불교총보〉(1919)에 '마산신조불석탑(馬山新造佛石塔)'이란 글을 기고해 경봉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도 했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9



불교 세계관과 산악 활동 조화
(수험도와 엔노 오즈노 ㊦)

수험도의 창시자는 엔노 오즈노(7세기 후반~8세기경)로에 관한 전설은 일본 최고의 불교설화집인 〈일본영이기〉에 등장한다.

그는 허공을 나는 신선이 되기를 희망해 40세까지 암굴에서 살았다. 이윽고 공작경(孔雀經)의 주법(呪法)을 수행, 주술을 구사해 귀신을 부리게 됐다. 귀신들은 카츠라기산의 히토코토느시(一言主)라고 하는 신에게 옮겨 붙어 엔노 오즈노가 왕을 모함해 없애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왕으로부터 파견된 사자는 엔노 오즈노의 강력한 수행력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어 그의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를 놓아주도록 간청한 그는 바로 유배를 당했다. 낮에는 칙명에 의해 유배된 섬에서 수행을 하고, 밤에는 후지산에서 수행을 했다. 3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나고, 701년 조정 가까이에 옮겨와서 사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마침내 신선이 되어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어느 날 일본 승려 도쇼(道照)가 칙명으로 당나라에서 수행 중에 500마리의 호랑이를 불러 〈법화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때 청강하는 호랑이 무리 중에 한 인간이 있어 일본어로 질문을 했다. 누구냐고 묻자 그는 내가 엔노 오즈노라고 했다. 이후 히토코토느시 신은 그의 주술로부터 풀려나지 못했다.

십계 수행 통해 성불 지향
한 때 군사적인 힘도 강화

수험도의 수행은 십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지옥계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수행이다. 입산해 겪는 뜨거운 땀과 비바람, 추위 등을 통과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아귀계로 만족을 아는 수행이다. 수행 중 공복을 참고, 갈증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부족한 식사에도 만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축생계로 노동의 고통을 인내하는 수행이다. 짐을 나르는 동물처럼 입산수행 중 짐을 지고 급경사를 오르내리며, 험한 길을 가더라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는 수라계이다. 산중 수행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용맹심으로 극복하고 정진해 가는 힘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인간계이다. 마음에 묻은 번뇌를 제거하고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참회를 통해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는 수행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천도계로 기쁨의 수행이다. 산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가슴이 트이는 수행의 기쁨을 만끽한다. 더불어 수행의 공덕으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기쁨이 솟는다. 일곱 번째는 성문계(聲門界)로 가르침을 기쁘게 듣는 수행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불법을 이해하는 수행이다. 산중의 전승이나 행사에 대해 듣고 통달하도록 노력한다. 여덟 번째는 연각계(緣覺界)로 침묵의 수행이다. 침묵에 잠겨 대자연에 자신의 몸을 놓으면 신불(神佛)과 일체감을 느낀다. 인간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일념이 되어 눈에서는 모든 환상이 제거된다. 아홉 번째는 보살계로 봉사의 수행이다. 동행인을 돕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6바라밀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열 번째 불계(佛界)로서 감사기도의 수행이다. 산중에서 신불의 세계를 체험하고 불성을 회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처럼 수험도는 불교의 세계관과 산악 활동이 잘 조화된 수행 작법을 발달시켰다. 최종적으로는 밀교의 관정을 받음으로써 즉신성불을 이룬다.

수험도는 중한 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군사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천태종에 소속 되도록 강요했다. 근세 이후에는 지역사회에도 뿌리를 내려 주술적 종교로 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천태종이나 진언종은 왕실이나 귀족과의 관계가 강한 편이지만, 현세이익을 발판으로 한 일반 민중과의 관계에서 수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험도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일본의 자연환경 속에서 민중 스스로 불법에 대한 해석과 자신들의 삶과 동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명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상실한 자연에 대한 귀소본능을 불교적인 심성으로 부활시키고자 한다. 수험도에서는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종교성을 엿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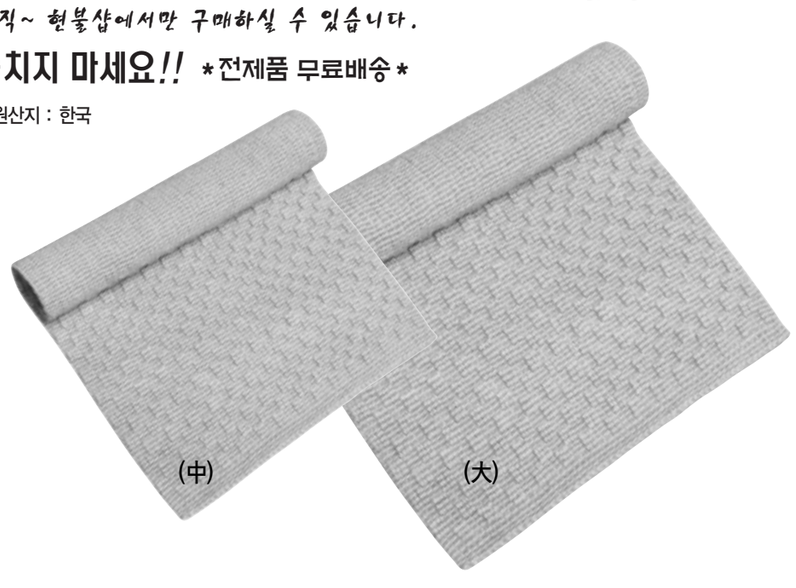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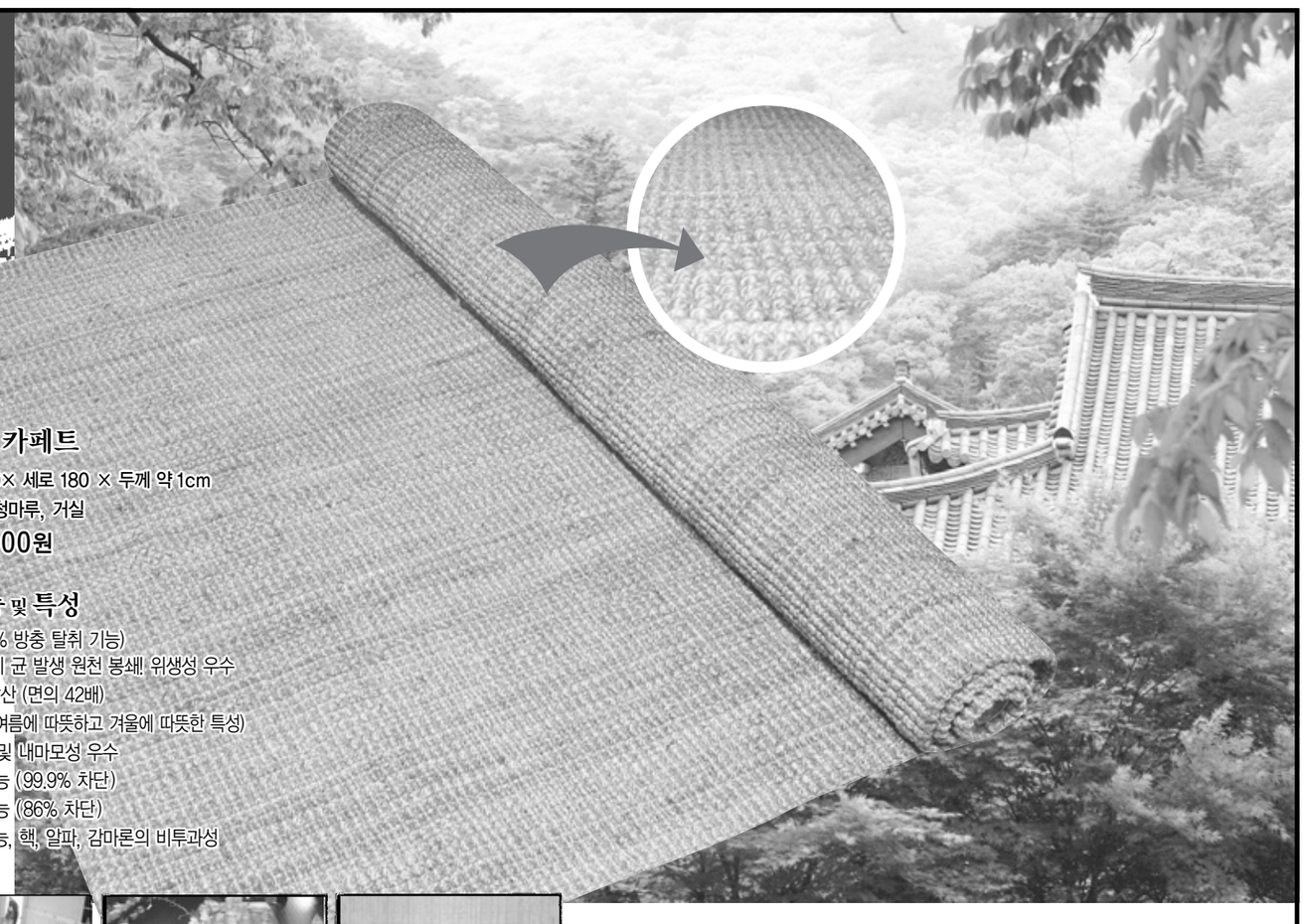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불교문화와 역사 배워요


5월 22일 봉은사 한국문화체험 시티 투어 입재식*모습

국제포교사회, 제8회 한국문화체험 City Tour
태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80여명 참가

"오늘 경험이 직장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창한 5월 주말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만난 응오 티흐엉 씨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국제포교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설명을 듣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된지 6개월 차인 티흐엉 씨에게는 국제포교사회가 주최한 '한국문화체험 City Tour' 행사가 한국을 이해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베트남과 전혀 다른 것, 비슷한 것 등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은 흥미진진한 소재였다. 티흐엉 씨는 "한국 기업에 근무하면서도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와 역사, 독립정신 등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는 5월 22일 태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 근로자 및 유학생 80여 명을 초청해 서울시내 주요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한국문화체험 City Tour'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포교사회 포교사 10여 명과 몽골 바트보양 스님 등 이주민 법당 스님들도 참가했다.

연 1회 진행하는 행사는 그동안 참가 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8회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봉은사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 및 음식 체험, 한강 유람선 탑승,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국립민속박물관 관람 순으로 구성해 한국 역사를 집약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포교사회 배광식 회장은 행사 일정에 대해 "한국의 전통과 생활문화 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아픈 과거의 역사와 독립정신을 통해 진정한 한국을 배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유학생들과 20대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지난해 결혼 이주민들이 많았던 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인 응웬 티흐엉 씨(국민대 대학원)는 "작년에 참석하지 못해 올해 있을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다. 유학 온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봉은사에 처음 온다는 그녀는 "절에 오니 자연 속에 있는 것같이 마음이 편안하다"며 활짝 웃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로타나 씨는 포교사의 설명을 캄보디아어로 통역해 함께 온 동료와 친구들에게 다시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일주문의 의미, 불교의 역사 등을 메모하는 모습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그는 "일하느라고 바빠 가까이에 절이 있는지 몰랐다.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와 역사를 배워 기쁘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포교국장 무성 스님은 "외국에 와서 일과 공부를 함께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행사를 계기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 도반으로서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게 돼 참 기쁘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털어버리고 한국 문화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조현덕 국장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알리고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평등과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성철 스님 가르침, 이젠 지키자"

백련불교문화재단, 제2차 학술대회 성료



성철 스님의 삶은 가장 굴곡졌던 20세기 한국역사와 한국불교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불교역사 속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5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 성철'을 주제로 제2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진각대 김경집 교수가 주제발표 '근대한국불교의 선풍(禪風)과 퇴옹 성철의 수행'을, 신라대 조명제 교수가 '해인총림 설치와 운영의 불교사적 의미'를, 동방대학원대학교 차차석 교수가 '대립과 갈등의 근대사와 중도 법문의 의미'를 발표했다.

진각대 김경집 교수는 현대 불교의 문제를 "일제 강점기에 변질된 기복신앙의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참선을 강조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집 교수는 "스님은 법당 안에서 비(非)불교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신앙적 대상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지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진영 기자

금강대, 제16회 콜로키움

'불교의 깨달음과 가르침' 주제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5월 25일 금강대 본관에서 '불교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제로 제16회 인문한국(HK)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강대 불문연 하유진 HK연구교수가 '도생의 돈오설과 그 주변'을, 금강대 불문연 박보람 HK연구교수가 '불교(佛敎)란 무엇인가?'를 주제 발표했다.

박보람 연구교수는 화엄교학 중 지엄(智儼), 의상(義湘), 법장(法藏)의 교체설(敎體說)을 중심으로 불교를 새롭게 조명했다. 경전 해석 틀의 중요 요소로 '불교'를 설명했다.

천진영 기자

교학체계 법성종 기준으로 정비해야

보조사상硏, '화엄의 성불론과 교판론' 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5월 21일 연세대에서 '화엄의 성불론과 교판론'을 주제로 제 95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가 '규봉종밀의 법성종 현양과 그 철학적 의의'를, 금강대 불교·복지학부 권탄준 교수가 '화엄의 성불론 재고'를 주제 발표 했다.

신규탁 교수는 법성종 현양을 규봉종밀 스님의 학문 체계화 방법인 요간적(料揀的) 방법과 회통적(會通的) 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또 신 교수는 법성종 현양의 철학적 의의를 형이상학적, 지식론적, 윤리학적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법성종은 규봉종밀 스님의 3종 교법 분리인 법상종(法相宗), 파상종(破相宗), 법성종의 하나이다.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는 "규봉종밀 스님이 현양한 법성종(法性宗)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 교학체계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진영 기자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7 – 전도몽상 내려놓기①

마음이 왜곡되면 진리를 보지 못한다

어린 시절 필자는 모친을 따라 밤중에 절에 간적이 있다. 절이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소 험했다. 겨우 겨우 길을 찾아가던 중 우리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무엇인가 나타났다. 모친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모친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염불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 그것은 우리를 쫓아오지는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절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다가 지난밤에 귀신같은 것이 나타난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거기서 필자는 쌓여진 기와를 덮어 놓은 천 무더기를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해가 져서 어두웠기 때문에 쌓여진 기와를 덮어 두었던 천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귀신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대상을 잘못 아는 것을 마음이 왜곡(vipālasa) 또는 전도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전도몽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흔들리는 물위에 사물이 비치는 것과 같아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이다.

이런 왜곡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난다. 마음이 왜곡되면 진실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거짓을 진실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엉키게 된다. 이런 엉킴 또는 왜곡이 심해지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설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해도 이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왜곡이 일어나는 원인과 왜곡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 왜곡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위의 예에서 기와를 쌓아둔 것을 귀신으로 잘못 아는 것처럼 마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것을 어리석음(moha, 痴)이라고 한다.

대상의 본질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익이 되는 법들은 이익이 된다고 보고, 이익이 되지 않는 법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붓다께서 세상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신 사성제와 연기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지혜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 진리를 감추고 대상을 왜곡시켜 지혜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면 마음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한다. 왜곡된 것이 원하는 대상이면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는 탐욕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면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난다.

탐욕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므로 대상의 좋은 면만 보게 된다. 성냄은 대상을 거부하는 마음이므로 대상의 나쁜 면만 보게 된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여기서 탐욕은 행복과 평온한 느낌이 함께 하고 성냄은 불만족한 느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탐욕과 성냄은 서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통 탐욕이 만족되지 않을 때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상을 왜곡시켜 보면 탐욕과 성냄 일어나
탐욕·성냄은 어리석음 일으켜 악순환 반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일어난 탐욕과 성냄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착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이런 탐욕과 성냄은 마음을 다시 어리석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더욱 왜곡되어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왜곡, 즉 전도몽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계발해야 한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스님!

10년 후에도 우리 절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찰 경제의 안정은 도량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 바탕입니다.
지금, 전국의 스님들께서 법륜대와 사찰경제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 법륜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찰 ◆

법정사	부산	보경사	경기	약사사	경기	고선사	정읍
기룡사	경북	반야정사	진주	법성사	부산	원당사	경기
조주선관	강원	대승암	경남	수곡사	부산	미륵사	광주
용운사	경북	광명사	경남	반야암	하동	부심사	경남
극락사	경기	청용사	경기	도원사	경남	정각사	부산
성암사	경기	무심사	경남	홍덕암	경기	보은정사	부산
대원사	경기	응공사	대구	견불사	서울	용화사	경북
무애사	부산	동경사	울산	지장사	부산	약수사	부산
대관음사	대구	용관사	경남	문수사	부산	보광암	경주
불암사	부산	길상사	충남	용화사	충북	금강사	부산
성불사	서울	백봉사	경북	불로정사	경북	성주암	부산
금선사	서울	천지암	경남	해송사	부산	무아사	청주
미암사	충남	용화사	부산	율림원	경기	문수암	부산
배과사	강남	백연사	부산	건봉사	부산	보광선원	부산
봉화사	경북	현각사	경남	법륜사	경기	관음사	충북
무상사	경기	연송암	충북	고선사	정읍	지선사	울산
대원사	경남	극락사	경북	심원사	경기	약수사	부산
용문사	경남	보광사	서울	한승사	광주	태현사	광주
흥안사	경기	여래사	서울	화심사	전남	미륵사	광주
안심정사	충남	덕천사	남원	약수사	경북	광산불원	서울
청암사	전남	삼학사	경북	관음사	울산	대법사	부산
		구룡암	서울	금성사	부산	황용사	김해
		약사암	충남	도솔사	서울	복천사	부산
		지장암	서울	독성암	서울	태광암	부산
		정암사	부산	천궁사	서울	묘법사	마산
		상원사	서울	관음사	마산	대선사	경남
				연화사	서울	보문사	경남
				소원정사	부산	비로사	경북
				어울락	경남	소우선원	경북
				명성암	경남	약수암	경남
						약명사	부산
						진영포교당	경남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빚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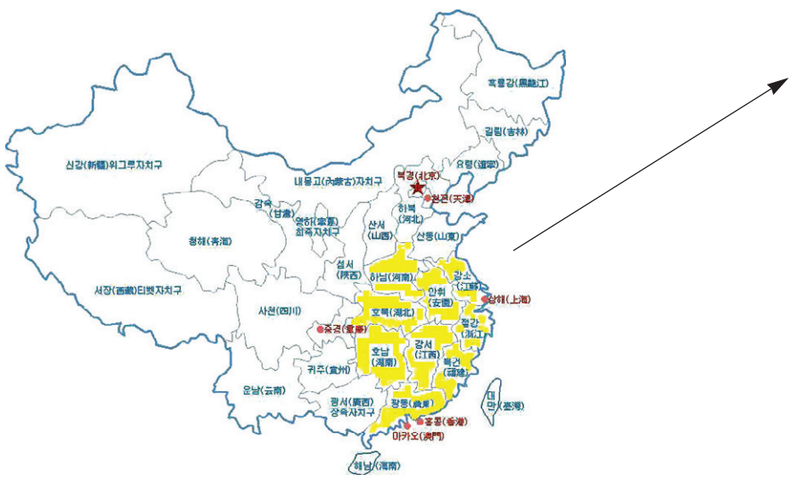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전화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겠습니다.
055)941-1083. H.P 010-4595-0017 덕유산 청다향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영혼에 선의 향기가 묻어나는 향적의 시간이었다”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이 25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육조혜능에 이은 중국 선종 5가의 기운이 살아있는 13곳의 사찰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는 여행기 이전에 구도기였다. 정찬주 소설가는 작가 이전에 수행자의 마음으로 순례를 하고 글을 썼다. 그는 원고마감에 늦는 법이 없었고,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며 완벽을 추구했다. 지나친 수식이나 꾸밈보다는 독자들과 법거량을 나누듯 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인 글들은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 중간 중간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의 법문, 안국선원 수행자들의 수행담이 어우러져 재미를 더한 선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연재물은 6월 중 출판돼 불자들에게 수행 안내서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리=이상언 기자





1. 마경대(磨鏡臺)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는데 좌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된다는 것인가?”

남악회양이 하루 종일 좌선만 하는 마조도일(709~788)을 깨닫게 하기 위해 거울을 만들겠다며 기왓장(벽돌)을 갈아 보인 곳이다. 중국 오악 중 하나인 남악 형산의 마경대 반석에는 조사선의 발원지라는 뜻으로 조원(祖源)이라는 글씨가 음각 돼 있다. 마조의 문하는 통일신라로 들어와 구산선문 가운데 실상선문, 동리선문, 가지선문, 봉림선문, 성주선문, 사자선문, 사굴선문, 희양선문 등 여덟 문이 개창된다.

2.복엄사(福嚴寺)

후난(湖南)성 헝산(衡山) 복엄사는 남악회양(677~744)이 방장으로 주석한 곳으로 마경대에서 바라볼 수 있다. 복엄사는 육조혜능의 법을 남악회양으로 이어진 도량이다. 회양의 제자 마조에서 태동한 마조선(馬祖禪)이 백장에서 황벽으로 흘러 임제가 임제종을 이루고, 백장에서 위산으로 흘러가 앙산이 위앙종을 이루게 된다.

3.남대사(南臺寺)

복엄사에서 약 1㎞에 위치한 남대사에는 석두 희천(700~790)이 머물렀다. 복엄사에 주석하고 있던 회양과 남대사에 주석하고 있던 석두는 젊은 시자를 통해서 서로의 법을 드러내곤 했다. 남대사는 석두가 당나라 천보 초년(742)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주석하면서 법을 핀 행화도량이다. 중국 선종 5가 중에서 석두의 문하에서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3개 종파가 나왔다. 남대사 경내 동쪽에 큰 바위가 돌출돼 있는데 희천이 그 바위 머리에 작은 초암을 지어 오랫동안 주석한 까닭에 희천을 ‘석두’라고 부르게 된다. 실제로 남대사 동쪽 100여m 쯤에 석두의 초암을 기리고 자 누각이 하나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붉은 법의를 입힌 석두희천 석상이 있다.

4.밀인사(密印寺)

‘진리의 비가 형악으로부터 와서 앙산에서 그 종풍이 열렸다(法雨來衡嶽 宗風啓仰山)’

밀인사는 위산영우(771~853)의 주석처로 위앙종을 개산한 곳이다. 도술에 심취해 있던 당 무종이 일으킨 회창법난(542~845)으로 선종이 위기를 맞을 때에도 위산에서는 크게 융성해 선불교의 중심이 됐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밀인사를 존숭했다. 당 헌종과 선종, 송 신종과 휘종, 청 순치 · 옹정 · 건륭 · 도광 등의 황제가 칙서를 내렸고 근대에는 모택동 주석이 밀인사를 찾아와 밀인사 주지와 3일 밤낮을 토론해 ‘구국구민(救國救民)은 대본대원(大本大源: 농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5.석상사(石霜寺)

중국 후난성(湖南省) 류양(瀏陽)에 위치한 석상사는 청원 행사의 4세손인 석상경저(807~888)가 선을 전하고, 석상초원(987~1040)이 법을 설한 도량이다. 석상사는 석상경저를 개산조사로, 석상초원을 중흥조사로 모시고 있다. 석상경저는 석상사에서 30년 주석하면서 석상칠거(石霜七去)를 가르쳤다. 사람들은 석상경저의 선을 고목선이라고 불렀는데 한 때는 대중이 1000여 명 중 800여 명의 대중이 고목처럼 앉아 눕지 않고 장좌불와했다. 초원의 제자 황룡 혜남(1002~1069)과 양기 방회(992~1049)가 황룡파(黃龍派)와 양기파(楊岐派)를 개창했다.

6.서은사(栖隱寺)

앙산혜적(807~883)의 행화도량인 서은사는 장쑤성 의춘(宜春)에서 30㎞ 거리에 있다. 선종 오가(五家) 중 임제종, 조동종, 위앙종이 의춘의 황벽산, 동산, 앙산에서 열매를 맺어 의춘을 선종의 성지라고 한다. ‘앙산사’라고도 부르는데 산문 안에는 앙산스님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있다. 소석가(小釋迦)로 불리던 앙산은 842년 개산해 기라성 같은 고승을 배출했다. 앙산의 일원상 가풍(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일원상을 그리는 것)은 앙산의 제자들에 의해 신라까지 전해졌다. 경내 안쪽에는 앙산선사 사리탑이 있다.

7.백장사(百丈寺)

동고현(洞高顯)에 위치한 백장사에는 백장회해(749~814)가 주석했다. 지금은 땅바닥에 흘린 쌀 한 톨까지 줍는 백장의 검박한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 백장은 〈선원청규〉를 제정해 선사와 율사 도량이 구분돼 발전했고,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농선(農禪)의 보청정신이 확립돼 황실이나 귀족의 후원, 탁발에 의지하지 않고 대중이 스스로 논밭을 개간해 자립의 기반을 다졌다. ‘널리 청한다’는 보청(普請)은 울력처럼 누구나 예외없이 노동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당시 백장선의 요체가 됐다.

최근 복원한 백장사에서는 옛 절집 백장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8.황벽사(黃檗寺)

의풍시 황경현 황벽사눈 황벽희운(?~850 또는 855)이 입적할 때까지 교화를 편 행화도량이다. 황벽촌 뒷산에 조성된 묘탑들로 봐서 명 · 청대 때만 해도 임제종 본가인 황벽사의 규모는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황벽의 재가 제자 배휴의 막후지원으로 사격(寺格)이 융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절이라기 보다는 허름하여 창고 건물에 가깝게 보인다.

황벽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아 있는 유적은 호포천이다. 호포천은 지금도 황벽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샘으로 황벽선사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현장이다. 황벽선사가 주지스님으로 와서 황벽사 대중들과 마을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불법으로 굴복시키고 석산(石山)의 강한 기운을 눌렀다는 전설이다.

9.동산사(洞山寺)

조동종(曹洞宗)의 발상지 동산사는 개창조인 동산양개(807~869)가 가르침을 편 곳으로 현재 보리선사(菩提禪寺)로 불린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은 길지에 자리잡고 있다. 물에 비


남악회양이 주석한 복엄사


위산영우의 주석처인 밀인사

석두희천이 머물렀던 남대사

마조도일이 열반한 보봉사

대한불교조계종 종조인 도의국사가 서당지장에게 법을 받은 우민사

친 그림자를 보고 자성(自性)을 봤다는 개울물 위에는 누각형태의 다리 봉거교(逢渠橋)가 세워져 있다. 개울가로 난 산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솥단지 형상의 분지가 나타나고 오른편에 보리선사(菩提禪寺)가 보인다. 동산이 개창할 때는 광복사(廣福寺)였다가 북송 때 보리선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순례 일행에게는 조동조정 동산사가 더 자연스럽다. 산문 입구에 동산 선사가 심었다는 나한송(羅漢松) 한 그루가 눈길을 끈다.

10. 양기사(楊岐寺)

임제종 양기파의 개산조인 양기방회는 중국 선종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선종사를 석원한 특출한 선걸이다. 양기로부터 한국의 조계종이 이어져 왔다. 육조혜능 대사 이후 위앙, 임제, 조동, 운문, 법안종 등 5개 선종 종파는 송대에 이르러 임제종과 조동종만 남게 된다. 임제종은 다시 석상초원 선사 문하에서 양기파와 황룡파로 나뉘며 이를 오가칠종(五家七宗) 이라 부른다. 황룡파는 황룡 혜남 선사로부터 허암회창 선사까지 200년 동안 이어지다가 소멸한다. 결국 양기파만 임제종의 법통을 이어 송·원·명·청대까지 가장 융성한 종파가 된다.

11. 보봉사(寶蜂寺)

마조도일이 열반한 보봉사.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 는 마조는 35살 즈음 복건성 건양 불적령(佛跡嶺)에서 개당한다. 이후 강서상 남쪽 감주의 공공산에서 교화를 편 후 남창의 개원사에 주석한 후 보봉사로 오게 된다. 보봉사에는 마조의 사리탑이 있다.

12. 진여사(眞如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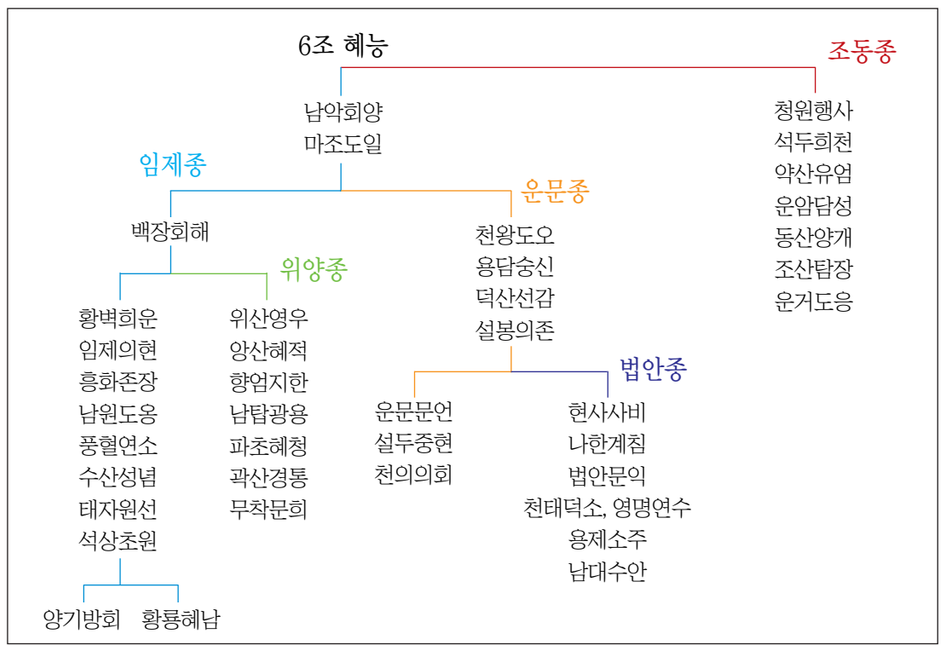
마조의 원적도량인 보봉사에서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묵조선 도량인 진여사가 있다. 진여사는 도용(道容)이 당 헌종 원하 3년(808)에 창건했다. 이후 동산양개의 제자 운거도응이 운거사를 찾아와 902년 입적할 때까지 30년 주지를 살면서 제2 개산조가 됐다. 첫 이름이 운거사였다가 북송 때 진여선원으로 불리다가 문화혁명 이후 진여선사로 개명됐다.

조주관(趙州關)이 진여사의 산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거도응이 조주를 이곳까지 배웅했다고 한다.

13. 우민사(佑民寺)

우민사는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인 도의 국사가 마조의 고족제자인 서당 지장 선사에게 법을 받은 절이다.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에는 도의 국사가 구법 입당해 제방을 참방하다가 이곳에서 서당지장을 만나 여래심인을 인가받아 육조의 종지를 한국에 최초로 전했다고 돼 있다. 마조 스님은 이곳에서 16~17년간 주석한다. 마조가 원적에 든 이후 서당지장이 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찾아온 도의 국사가 서당지장에게 심인을 인가 받는다. 도의 국사가 귀국해 설악산 진전사에 은둔한다.


묵조선 도량 진여사 풍경



■ '정찬주의 행복한 禪여행' 연재를 마치며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내 산방 뜰을 보니 해당화가 미소를 짓고 있다. 함박꽃은 주먹밥 같은 꽃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내 마음에도 물기가 돌고 꽃이 피어난다. 말 그대로 물이 흐르고 꽃피는 수류화개(水流花開)다.

작년 9월에 중국의 호남성과 강소성의 선종사찰을 1차로 돌면서 내내 맡았던 만리향(萬里香)이라 불리는 은목서 꽃향기가 잊히지 않는다. 올해 3월 2차 순례 때 보았던 대륙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밭의 잔영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는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 향적(香積)이 된 것 같다. 문득 선종사찰 순례가 나의 영혼에 선의 향기를 묻히는 향적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몸에서 향기가 나는 부처가 향적여래(香積如來)다. 지금의 나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 궁금하다.

선종사찰 1, 2차 순례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선원의 재가불자들과 동행했다. 순례는 짙은 비구름 자락을 뚫고 마조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남악 형산의 마경대에서 출발하여, 복엄사에서 회양 선사와 혜사 선사를 참배하고, 남대사에서 석두 선사의 '초암가' 를 듣는 순서로 시작했다.

위앙종의 발상지인 밀인사에 가서는 자애로운 면모의 위산영우 선사의 가풍을 보았고, 앙산 혜적 선사의 행화도량인 서은사(앙산사)에서는 위앙종이 어떤 모습으로 융성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종의 황룡파와 양기파를 배출한 석상 초원 선사의 전법도량인 석상사에서는 선당에 들어 짧으나마 옛 사당의 향로같이 참선을 했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농선쌍수(農禪雙修)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백장사에서는 백장회해 선사의 법문이 서린 야호굴을 답사했고, 〈전심법요〉의 법향이 신록처럼 푸르른 황벽사에서는 황벽촌 사람들이 마을잔치를 하듯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순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어 그들의 불심에 감동하여 콧잔등이 시큰했다.

뿐만 아니라 동산양개 선사가 조동종을 개창한 보리사(동산사), 임제종의 법통을 이어 천하에 법을 떨치게 했던 양기방회 선사의 주석처 보통사(양기사), 마조 대사가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의 공안을 남기고 열반한 보봉사, 조동종을 천하에 퍼지게 한 운거도응 선사가 주석한 묵조선 도량 진여사(운거사), 2차 선종사찰 순례를 회향한 마조 대사의 행화도량이자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도의 국사가 법을 받은 우민사 등을 참배했다.

순례 일행과 달리 나만의 참배가 있었다면 우리 선조인 구법승들을 찾아 마음으로 향을 사르는 일이었다. 복엄사에서 회양 선사의 제자인 신라승 본여(本如)와 현성(玄晟)을, 혜사 선사의 제자인 백제승 현광(玄光)을 그렸다. 밀인사 조당에서는 앙산 선사의 제자인 신라승 순지(順支)의 위패를 찾았고, 백장사에서는 신라승 안(安) 선사와 초(超) 선사를, 보리사의 동산양개 선사 묘탑에서는 신라승 금장(金藏)을 진여사에서는 운거 도응의 제자인 신라승 이엄(利嚴)의 영혼을 만났던 것이다.

돌이켜 보니 몇 만 킬로미터가 넘는 대장정의 순례였다. 당송시대의 선승들 같으면 걸망을 메고 수십 년 혹은 한 평생 동안 걸어야 할 거리였지만 나와 순례 일행은 비행기와 자동차를 이용해 1, 2차 순례를 아쉬운 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마쳤다. 이 또한 21세기 과학시대가 준 행운이 아닌가 싶다. 수불 스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조사 선사들이 정진했던 절을 찾아 참배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선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그 당시 공부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분보다 더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옛 조사와 선사들의 기운을 느끼고 선어록에서만 만났던 그분들의 가풍을 공안의 현장에서 실감한 것도 순례의 발걸음을 뜻 깊게 했다. 선사(禪寺)에 주석했던 옛 선지식을 참방하러 다닌 셈이었으므로 신심이 더욱 솟구쳤던 것이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안국선원에서 공부하는 재가불자들과 순례를 하는 동안 발견한 사실인데, 부처님 시대와 마조대사와 방거사, 황벽선사와 배휴 등 중국의 당송시대에 보여주었던 스승과 제자 관계의 역사성을 안국선원에서 복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스님과 신도라는 교단의 강고한 질서 안에서 믿음이 유지되는 틀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행복하게 간화선을 체험하며 전등(傳燈)의 관계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도도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조사 선사들이 남긴 공안의 현장에서 수불 스님이 펼치는 야단법석의 법문을 들으며, 고요한 눈빛과 선정의 미소를 머금은 안국선원 재가불자들을 도반 삼아 강호제현의 후손(後孫)인 듯 조사 선사들의 기운이 서린 선종사찰들을 순례했던 지나간 순간들이 소중한 인연의 꽃으로 내 기억의 창고 속에서 오랫동안 피고질 것 같다.




최근 복원한 백장사에는 백장회해의 검박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인연의 '환'에 속지 말고 바로 보는 공부해야

봉은사 강주 스님 초청 일요법회 첫 번째 법문… 해인사 강주 해월 스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가 5월 22일~ 6월 26일 전국 유명 승가대학 강주스님들을 초청해 일요법회를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첫 날인 5월 22일에는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월 스님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법문을 했다. 이날 해월 스님은 인연 노름에 빠지지 말고, '상(相)'이 아닌 '성(性)'을 보는 공부를 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법회에서는 6월 5일 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진 스님이 법문을 한다. 세 번째 법회는 6월 12일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이, 네 번째 법회는 6월 19일 실상사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이, 다섯 번째 법회는 6월 26일에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이 불자와 일반인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한다.


해월 스님은 인연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정견'을 보는 공부를 당부했다.

살아있는 도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무엇이 살아있는 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생깁니다. 아픔은 알고 보면 맹인, 맹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은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기쁨, 슬픔, 고통, 아픔, 즐거움 모두 인연 노름입니다.

현상계 모두가 '환(幻)'

제가 대구 동화사 옆 비루암 암주로 있을 때입니다. 한 신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주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는 충청도 세종시에 살았는데, 개발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75억원을 보상받았습니다. 75억 중 아들에게 20억원을 주고 2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돈만 많으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5억원을 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오니 이런 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을 지었길래 5억원이 나한테 들어오나? 5억원이 들어오면 본사에 신고해야 하나? 해외로 가버릴까? 차를 바꿀까?"

부처님께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그 시주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쯤 급하게 절에 오느라 지갑을 두고 왔다며 차비로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내일 올 때 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마침 돈이 없어서 총무가 8만원을 빌려줬지요.

그 날 밤 저는 5억원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주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제게 줄 5억원이 있었을까요? 시주할 돈도 없는데 5억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꿈꾸고 무엇인가를 바라며 삽니다. 사바에서는 내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며 이 현상계가 전부다 '환(幻)'입니다. 미모를 잡겠다고 노력해도 미모가 100년을 가지 못 합니다. 중생들은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바르고, 입고, 생각하면서 사바라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성(性)'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제가 토굴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당시 저는 결벽증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스치기만 해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자다가도 12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토굴에서도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놓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새들이 유리창 아래에 잔뜩 죽어 있었습니다. 창이 너무 깨끗해서 새들이 그대로 날아가다가 부딪힌 것입니다. 너무 미안해서 새들을 잘 묻어줬습니다. 제 결벽증도 그 날로 사라졌습니다.

토굴 근처에 해당화가 하나 있었는데, 고지대라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시들 했습니다. 새 무덤을 그 밑에 마련했는데, 어느 날 보니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습니다. 가만히 꽃을 들여다보니 해당화 안에서 새들이 지저귀며 놀고 있었습니다. 윤회가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새들이 죽어가던 해당화를 아름답게 피어낸 것입니다.

목련 밑에 묻었다면 목련이 됐을 것이고, 라일락 밑에 묻었다면 라일락향이 되어 날아갔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고양이가 새들을 먹었다면 새들은 고양이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연들이 흩어져서 다른 인연으로 붙는 것입니다. 인연은 모든 것이 모여야 생기는 것입니다.

윤회 속에는 끝없는 무명망식(無明妄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끝없이 윤회를 거듭합니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기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오셨건, 차를 분해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인연을 타고 오신 겁니다. 지금 법당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법당을 해체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연이라는 '상'만 보이지 '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도 '상'을 넘어 '성'을 보기 위한 것이고, 이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성'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는 청와대도 들리지 않고, 저처럼 가난한 스님을 찾아온다고 가정합시다. 오바마가 저를 10분만 만나고 가도 저는 무명에서 갑자기 큰스님이 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저를 만나고 갔으니 국가기관이 제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사람들이 저를 보러 막 몰려들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붓다라는 깨달음의 성자 앞에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오바마를 만난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루 1시간만 앉아서 안이비설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명상 하십시오. 출가하고 30년 동안 생활해보니 명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명상을 하며 앉아 있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앉아 있지 못하고 동서남북으로 휘날립니다.

인도의 바라문 앙굴마라는 스승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남편에게 제자인 앙굴마라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이에 화가 난 스승은 앙굴마라에게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죽여 목걸이를 만들어야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앙굴마라는 그 때부터 살인을 일삼게 됐습니다. 앙굴마라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스승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앙굴마라가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을 채울 무렵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앙굴마라가 부처님을 쫓아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 부처님께서 "앙굴마라야. 나는 여기 멈춰있는데, 왜 너는 너의 마음을 멈추지 못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이 무너지는 '삼매'에 빠지자

생각을 멈추는 것이 '지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머리 속에서 수많은 인연이 허덕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정화는 불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나를 아는 것이 불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설법을 듣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북송 때의 문인 황정견은 '수류화개'라는 시에서 '공산무인(公山無人)'이라 했습니다. 산은 비고 사람은 없다는 뜻인데, 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너지는 자리, 주관과 객관이 무너지는 자리, 모든 인연이 무너지는 자리가 삼매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몸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묻기 전에 이치를 보는 것이 도입니다. 이게 바로 명상을 닦는 것,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삼매를 닦을 때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볼 때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이 삼매에 빠져보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되면 이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다 아시죠? 원래 그 말씀에는 삼구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구절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두 번째 구절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입니다. 세 번째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구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구는 '상'의 세계, 관념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구는 관념이 모두 붕괴된 상태, 나라는 생각이 무너진 상태인 부정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실상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스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은 기억하면서 실상세계의 도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인연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연의 세상을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보아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견(正見)'입니다.

인간은 인연으로 살고 인연으로 흩어집니다. 인연은 허망하고 덧없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인연의 '환'에 속지 말고 인연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인연 노름만 할 것이냐? 아닙니다. 인연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인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인 '우리 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을 보는 공부입니다. 나와 네가 없는 공부, 생과 사가 없는, 윤회가 없는, 고통이 없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기범 기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5〉

無心하면 고통을 여읜다

학승이 물었다.
"사방의 산이 핍박해 올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길이 없는 것이 조주(趙州)이다."

問 四山相逼時如何
師云 無路是趙州

사방의 산이 밀려온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지구의 종말을 맞게 되거나, 피할 수 없는 병마가 닥쳐오거나,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거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만나는 것이다. 이럴 때 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궁금하여 묻는 것이다.

물론 병을 고치거나 살아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를 당해 무슨 수가 있겠는가. 길이 없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하지 못한다. 그 때가 지금이다. 두려움도 슬픔도 필요 없다. 고요히 죽음을 받아들여라. 진시황도 죽었고 4대 성인도 죽었다.

진실은 죽음[死]도 없고 생[生]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최후의 순간에 어리석게 발버둥치는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온갖 가치(價値)의 끈을 놓아버려라. 최후의 순간이 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한다. 나는 부처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 저 앞에 있다. 당당하고 평온하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

학승이 물었다.
"옛 궁전에 임금님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은 기침을 해 보였다.
학승이 말했다.
"그러시면 신(臣)이 폐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도둑의 정체가 벌써 드러나 버렸군."

問 古殿無王時如何
師咳嗽一聲
云與麽即臣啓陛下
師云 賊身已露

옛 궁전은 사람마다 옛 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의 세계를 말한다. 만물이 나온 '근원처'를 옛 궁전이라고 비유했다. 임금이 없다는 것은 그곳은 '무심(無心)'의 세계이다. 수행자가 근원에 도달하면 무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무심을 얻으면 남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슬퍼하지 않는 대무심 속에 들어간다. 이때의 경계를 뭐라고 해야 할까?

조주 스님은 짐짓 "어험!" 하고 헛기침부터 해 보였다. "임금님이 없기는 왜 없어. 무심이라고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니야"라는 뜻이다. 진정 무심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런 조주 스님의 헛기침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용한 공간에 다만 '헛기침'만 울릴 뿐, 거기에 이러니저러니 분별망상이 일어날 턱이 없다. 이런 기침에 반응해 주인이니 신하니 하면서 분별을 일으킨다면 그는 무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다만 남의 경계나 엿보려는 한낱 도둑일 뿐이다. 선사는 다만 헛기침 하나로도 즉시 상대를 간파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기침에조차 반응하는 자라면 아직 멀었어"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그렇다면 참[眞]을 참구하는 납자들이여, 조주 스님이 헛기침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무심을 이해하는 사람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 줄의 염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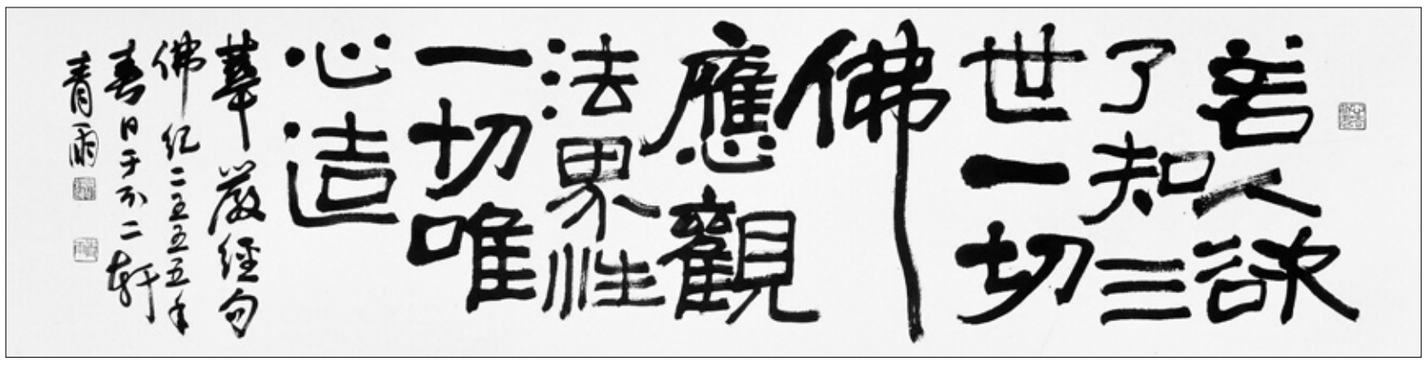
問 和尚年多少
師云 一串數珠數不盡

이 질문은 〈조주록〉의 대화가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한 단서가 된다. 본래 염주는 108개이다. 이 108개의 염주 숫자로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조주 스님의 나이가 최소한 108세 보다는 더 되었다는 말이다. 본 〈조주록〉하편은 도가 완전히 무르익은 100세 이상의 완숙한 나이의 대화록인 것이다.

그런데 선사들은 '내 나이가 110세니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왜 항상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진실은 '나' 도 없고 '나이' 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정 지어 말하지 않는다. 비유를 들어 알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것이 선불교의 독특한 교시법인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⑬ 일체유심조



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응관법계성 삼세일체불
불기이오오년 청우

應: 응할 응
觀: 볼 관
唯: 오직 유

모두가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다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모두가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니라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선어록 해제 45 한국선과 선어록 16 조원통록촬요(祖源通錄撮要)

중국·신라·고려 조사들의 기록

해동의 새로운 전등계보 확립
나옹혜근의 말법의식 담아내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은 〈선원제전집도서〉와 〈법집별행록절요〉 등을 통해 교학을 다졌으며 〈서장〉과 〈선요〉 등으로 선법을 터득했다. 이 밖에도 11세기 말엽 송대에 공진이 찬술한 〈조원통록(祖源通錄)〉 24권을 4권으로 촬요해 6세 때 백운산 만수사에서 〈조원통록촬요(祖源通錄撮要)〉를 간행하면서 그 발문을 붙였다. 이 〈조원통록촬요〉는 석가모니부터 중국 · 신라 · 고려의 조사들에 대한 기록으로 전등사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해당하는 나옹혜근에 대해서는 말법시대에 불교의 정법안장을 부흥시킬 인물로 석가모니의 후신으로까지 칭송하고, 그 법계를 중요시해 또 다른 측면에서 법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엄 당시에 전승되고 있던 선법의 부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신라 말기에 선법이 처음 전래된 때부터 국내를 통해 전승되어 온 법맥과 원나라 시기에 중국을 통해 새롭게 전래된 법맥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는 소위 구산문 가운데 사굴산문의 법맥과 가지산문의 법맥이 뚜렷했고, 후자의 경우는 고려말기 태고보우 · 백운경한 · 나옹혜근을 통한 선법의 전래이다.

이들은 단순히 유학파와 국내파라는 도식적인 구분이 불분명한 점은 지니고 있지만 적어도 법맥의 전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계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태고의 계통 이외에 나옹의 법맥을 중심으로 해동의 새로운 전등계보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자료로 〈조원통록촬요〉가 있다. 이 점의 서지학적인 추론에 대해서는 일찍이 고익진 선생이 주목해 간략하게 발표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 촬요의 발문을 붙인 인물이 지엄이라는 점에 주목해 그의 해동법맥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가 있다.

보리달마를 비롯한 중국선종의 역사는 소위 달마로부터 혜능에 이르기까지의 초기선종시대 이후에 남 · 북종의 정통문제를 거치면서 중당 이후부터는 남종의 일색으로 법맥의 계보가 분명해진다. 그에 대한 전등사서의 계보는 지거의 〈보림전〉(801), 정 · 균의 〈조당집〉(952), 도원의 〈경덕전등록〉(1004)을 위시해 17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가운데 11세기에 중국에서 편찬되었고 조선시대 초기에 해동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조원통록〉에 대해 〈조원통록촬요〉의 내용은 해동의 선법맥에 관해 주목되는 점이 보인다. 곧 신라의 승려 34명과 고려초기 영명연수 휘하에서 수학한 고려의 승려 및 고려 말기의 나옹혜근에 대한 기록 등 50여 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옹혜근을 말법의식과 더불어 석가여래의 후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엄이 살던 당시의 불법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 극복방법으로 전등계보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 내용은 종안(宗眼)과 정전(正傳)의 품을 통해 인도와 중국의 33대 조사들의 전기를 소개하고, 호현(互顯)의 품에서는 우두종 및 북종을 비롯한 중국의 다양한 종파의 선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서 산성(散聖)의 품에서는 유마와 포대화상을 비롯한 재가인 등을 소개하고, 유통(流通)의 품에서는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끝맺고 있다.

〈촬요〉는 바로 그와 같은 전법의 중요성이라는 일환에서 등장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지엄의 각성 또한 해동의 법맥을 확립하려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촬요〉에 지엄이 붙인 발문의 내용은 그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큰스님들은 늘상 게송을 통해 조사선의 가풍과 사상 및 그들의 전법에 대한 의식을 다짐하곤 했었다. 오도송과 전법게송 및 열반송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서 미타불을 염하여 자성의 깨침을 겨냥했고 정토를 희구하여 중생과 더불어 안락찰토에 나아갈 것을 기원하였다. 그러는 과정에도 항상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기 위해 서천의 역대조사들과 동토의 제조사 및 해동의 큰스님들을 위한 예배와 수참을 게을리하지 않고 경론과 어록 및 경책에 관한 전적을 개판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곧 석가여래행적송, 통록촬요, 원인론, 한산시, 재계문, 효순문, 살계문, 발원문 등에 대한 불법의 전적에 대한 화주와 법연을 펼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아울러 석가모니로부터 계승되는 역대조사의 가르침은 방편과 진실 및 돈오와 점수 그리고 제자들의 접화를 위한 간략한 게송의 제시는 간략하면서도 널리 불법을 전파하는 훌륭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의 홍포는 오백나한의 지혜와 방편을 의지한 것이었지 나스스로 아무렇게나 드러내고 설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니 옛 조사들이 제시해준 바른 도리와 성인들의 무위법은 감히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귀중한 가르침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 발문은 지엄이 〈촬요〉에 대해 그 의도와 가치에 대해 얼마나 정녕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엄은 억불과 법맥의 단절에 대해 단순하게 관심을 지니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벽계정심 선사를 통해 전등조사들의 의기를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도서나 〈법집별행록절요〉를 통한 경안(經眼)을 정립하는 즈음부터 〈선요〉와 〈대혜어록〉을 가까이 하면서 무자화두를 통한 오도의 과정이나 초학자를 제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보조지눌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교학의 안목과 선법의 통찰을 제시했다. 이 또한 기존의 전통선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계승에 대한 강한 의욕이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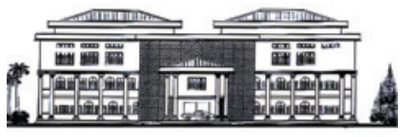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불교가 내 안에



"저는 법정 스님을 뵙기 전까지는 절을 잘 몰랐어요. 절에 가 본 적이 없고 스님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법정 스님은 제가 가장 처음 만난 스님이에요. 금생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민을 가면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마중 나오잖아요. 나중에 일을 할 때 대개 마중 나온 사람과 비슷한 일을 고른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 누굴 만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행운아에요. 럭키해요. 럭키!"

두텁고 딱딱한 겉껍질을 죽을힘을 다해 밀어 올리며 파르라이 새순들이 돋는 사월 중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불교여성학 1호 박사 일화선一化船 이창숙 박사(72) 일성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민주항쟁 문을 여는 4 · 19이어서, 1974년 한국일보 노조 지부장을 맡아 부당하게 해고된 해직기자 이창숙 박사와 만남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다.

70년 대 초 이창숙 박사는 숙명여고 선배로 글을 잘 써서 인기가 많고, 남달리 손재주도 좋았던 소설가 정연희 작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 가끔 놀러가곤 했다. 어느 날 정 작가가 앉은뱅이 재봉틀 앞에 앉아 회색옷감을 잘라서 한복 같은 옷을 만들고 있었다. 법복이었다. 어디서 입는 옷이냐고 물었다. "절에 가서 입으려고 만든다고 해요. 어느 절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봉은사엘 간대요." 여름에 가서 한 석 달쯤 있을 거라고 했다. 놀러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 그래도 그뿐이었는데.

생애 가장 처음 만난 스님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 법정

이창숙 박사가 한국일보기자였을 때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조간신문이었다. 조간은 오전 12시까지 기사를 넘기면 오후 7시에 지방으로 가는 초판이 나왔다. 기자들은 초판을 보고 퇴근한다. 초판을 기다리던 1973년 초여름. 날씨가 눈부시게 좋아 말간 하늘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정연희 작가가 봉은사에 놀러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같이 근무하는 선배한테 정연희 작가를 만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정연희씨 인기가 좋았거든요. 예쁘지 글 잘 쓰지." 입이 벙글어지며 좋아하는 선배 화답에 오후 7시까지만 돌아오면 되니까, 회사 앞에서 택시를 타고 뚝섬으로 달려가 배를 갈아타고 봉은사를 찾았다. 빼곡히 들어선 배 밭을 지나자, 절 앞에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지도 못하고 풀을 베고 있던 정연희 작가를 만났다. "자기가 절에 있으면서 놀러오겠다고 이야기한 사람 가운데 진짜 놀러 온 사람은 저 밖에 없었대요."

반가워하며 손을 잡아 이끈 곳이 다래헌이다. "앉아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저 쪽에 계속 보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법정 스님이셨어요." 40대 초반 법정 스님 첫인상은 한여름에 풀 먹여 다려놓은 삼베처럼 칼칼했다. 앉아있으려니 안에서 클래식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이창숙 박사는 '스님도 클래식음악을 들으시는구나' 싶어 놀랐다. 그때 봉은사 둘레가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다래헌 툇마루에 앉아있으면 지금 삼성역 네거리에서 남쪽으로 가는 언덕길이 훤히 눈에 들어왔다. "보니까 황토 언덕이어서 '어우, 저기는 황토언덕이네요.' 그랬더니 스님이 '조금 있으면 언덕 저쪽에서 황야의 포장마차가 넘어옵니다. 자알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럴듯하다며 깔깔깔 웃었어요." 말씀을 전해 듣는 나그네 귓가에 존 웨인이 주연한 영화 〈역마차〉 주제가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스님하면 모두 근엄하고 말씀도 쉽게 하지 않을 것 같고 목소리 쫘악 내려 깔고 '아 그렇습니까? 보살님' 하고 점잖게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던 이창숙 박사에게 이제껏 가졌던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씻겨 내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중 얘긴데 함께 다래헌에 다니던 도반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를 거다'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줄 모를 것

그 뒤로도 불교를 잘 알지 못했던 이창숙 박사, 다섯 살 된 큰 아이와 세 살 난 작은 아이를 가리키면서 정연희 작가에게 얘기를 건넸다. "쟤네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슬프다"고. 정 작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뭣 때문에 슬픈 생각을 하느냐고 타일렀다. 그 말끝에 이창숙 박사는 "그 스님은 또 가서 뵈어도 되요?" 물었다. "그럼. 가서 뵙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되지. 기억하실테니까 찾아봬"라고 했다. "스님과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스님께 불교라는 낱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느낌이에요. 그랬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불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창숙 박사에게 법정 스님은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었던 셈이다.

더욱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이창숙 박사가 법정 스님을 처음 뵀던 때가 1973년 여름으로 신문기자 생활 10년째였다. 그즈음 한국일보 젊은 기자들은 기자 신분보장이 되어야 언론자유를 외칠 수 있지. 신분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자유를 부르짖다가는 핍박을 받아 결국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각성이 일었다. 그래서 74년 12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74년 12월 10일인데, 이끈 이들은 저보다 6~7년 아래 젊은 기자들이었어요." 젊은 기자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입에 거품을 물고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던 경력기자들이 막상 노조 이끌어 달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쳤다면서 지부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 목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다보니, 식사대사가 생사대사인 만큼 피붙이 생계를 신경 써야 하는 가장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옹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적임자를 찾던 젊은 기자들은, 여자이면서 결혼하고 부군의 직장이 확실해서 직장을 잃더라도 생계를 이을 수 있다 싶은 이창숙 박사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다. "젊은 기자들이 뭔가 뜻 깊은 일을 하려는데 말지 않겠다고 하면 평생 이 사람들한테 마음 빚을 지고 살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빚지고 살 바에는 차라리 목을 내놓자. 딱 그 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지부장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12월 10일, 한국일보노조를 만들어 이창숙 박사가 지부장을 맡고 서른 남짓한 사람이 발기인 대회를 열어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친 날. 회사 측은 이창숙 박사만 해고했다. "주동자들을 다 자르면 일이 커지지만, 여자하나 자르면 간단하잖아요. 수를 쓴 거지." 12월 11일 0시 40분 인사부장이 광화문우체국으로 급히 달려가 12월 9일자로 이창숙을 이미 해고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부장은 지부결성한 날 이미 한국일보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10일 만들어진 노조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려는 꼼수였다.

해고 사유는,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1975년을 앞두고 여성을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주관하는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의' 회장이자 유정회 국회의원이었던 이숙종이 촉진회의가 만든 개정안을 회원들과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고쳐 국회에 제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뒤늦게 이를 안 회원들이 회장에게 항의하는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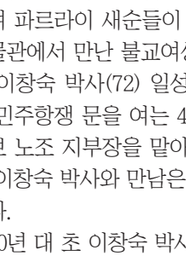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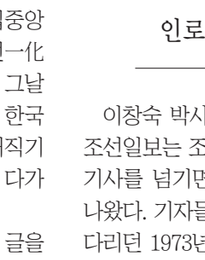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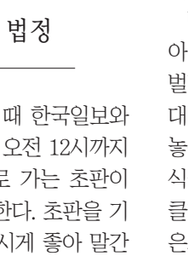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I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종

동을 벌였는데 이를 당시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였던 이창숙 박사가 특종보도를 했다. 그러나 특종상 은커녕 도리어 '주간여성'으로 좌천한 이창숙 박사는 신문사 오랜 관행대로 며칠간 항의성 결근을 했다. 그런데 며칠 뒤 한국일보 노조가 태어나자 결근을 핑계 삼아 이미 해고했다고 억지를 썼다.

한국일보 노조가 결성되고 꼭 닷새 뒤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이어지고, 한국일보 노조 재판이 시작될 무렵인 이듬해 3월 18일 회사에서 농성투쟁을 하던 동아방송 프로듀서를 비롯한 130여 명이 구사대를 자칭한 괴한들에게 쫓겨나는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부당해고, 법정 다툼만 7년
버팀목은 식구와 법정 스님 뿐

한국에서 맨 먼저 태어난 언론사 노조는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한국일보 노조는 '재판소 노조'로, 동아일보 노조는 '거리 노조'로 짧은 삶을 마쳤다.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목을 내어놓았다. 그 뿐이었는데… 회사는 그 목을 붙들고 늘어졌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여러 혐의를 조작했다. 특종은 회사 명예를 떨어뜨린 일로 뒤집었고, 직속상사는 무단결근, 무능, 좋지 않은 동료관계를 지닌 기자라고 몰아붙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취재원을 찾아가 삿대질한 저질 기자라면서 마구 끌어내렸다. 당시 동양방송 라디오 제작부장이었던 부군 정인섭 선생에게도 끝없는 압력이 들어왔다. 동양방송 회장, 사장 그리고 직속상사가 수시로 불렀다. "도대체 자넨, 마누라한테 어디까지 양보하려고 그러나?" 수없는 핀잔을 들었던 정인섭 선생. 속으로 '사장님, 회사와는 평생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누라하고 살아야지요.' 하고 부르짖으며 견뎠다. "맨 주먹뿐인 우리들은 법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재판소서부터 중앙노동위원회다, 어디어디, 호소할 만한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방은 온통 벽뿐이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그 가운데 힘이 되어준 이들이 있었다. 동료기자 반대증언, 또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실무 간부 증언, 그리고 무료변론을 맡아준 변호인이 있었다. 이창숙 박사는 세상 정의가 다 사라지지 않았음에 고마워했다.

"제가 스님을 처음 뵌 때가 73년 여름인데 74년 12월에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알고 난 뒤에 한 1년쯤 지나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때 스님은 운동권인사셨다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함석헌 선생이나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 선생과 많은 활동을 하셨지요. 특히 스님께선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스님 영향으로 노조를 한 건 아니에요. 제 삶 현장에서 제 가치관에 따라 벌인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해직되고 나니까 그때 분위기로 제가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죠. 스님도 민주화운동을 하시던 참이라, 누구보다도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감싸주셨어요. 그렇게 스님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너무나 딱 맞았어요. 정말. 그냥 여성신도와 스님 관계를 넘어서는 동지의식이 있잖아요."

지루하고 긴 법정싸움은 7년을 끌었다. 법정공방이 길어지자 노조원들 관심은 점차 식어만 갔다. 점점 외롭고 버거운 싸움이 되어갔다. 외톨이가 된 이창숙 박사는 결국 이 정권 아래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81년 7월 법원에 행정소송절차중단 신청서를 냈다. 그렇게 7년을 넘게 끌던 싸움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서른네 살 먹은 여자가 7년을 싸우고 나니 마흔 줄에 접어들었더라고요. 74년에 시작한 싸움이 81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을 다 쏟아 부었지만 결국 멈췄어요. 우리 바람은 법으로 보장받는 노조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7년 세월. 그동안 제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니 버팀목은 결국 식구들하고 법정 스님이었어요. 스님은 100% 제 편이었어요. 정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스님 판단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재판소 노조였던 한국일보 노조는 1981년, 걸리지도 않았던 간판을 내려지고. 그로부터 6년 뒤인 1987년, 6·29를 맞고서야 간판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언론사 최초 노조 결성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기록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이창숙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 몇 사람이 모였다. 사건이 있은 지 서른 해를 훌쩍 넘긴 2005년. 비록 실패한 기록이지만 어차피 역사란 시행착오를 벌이면서 진화하는 게 아닌가. 관계자들은 그냥 묻어둬서는 안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자료를 찾았다. 그런데 자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다들 자료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바람이었다. 스님은 나를 스쳐 지났던 바람이었다. 바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 않은가. 어떤 인연 탓에 그 바람이 내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바람이었다. 나는 그 바람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바람이 사진으로 찍히겠는가. 내가 찍은 것은 법정 스님 이였지만 어쩌면 바로 나를 찍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바람을 맞으며 내안의 변화를 법정 스님을 통해 나타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창숙 박사 역시 그랬을 것이다. 바람은 그와 함께 했고 오늘 그의 얼굴에 바람과의 인연이 나타나고 있다. 바람을 손에 쥘 수 없듯 그는 '그 바람'이 자신을 떠났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했다. 그래야 다른 바람, 다른 인연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박사와 사진장이는 그래도 감사한다. 그 바람이 몸을 감싸준 것에 대해.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소의 자취를 발견하다

어느 과학자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방 안에 소파, 조명, 책상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마련해 두었다. 사람은 앞에 시설물이 모두 보였다. 그런데 같은 방이지만 개에게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과 소파는 보여도 책상과 조명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파리의 입장이 되면 조명과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각각의 주체에 따라 의미가 있는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 환(環)세계의 개념이라고 한다.

사람은 방에 놓인 모든 사물이 다 보였다고 하니 개나 파리의 경지에서 보면 뛰어난 영물임에 틀림없다. '본다'라고 할 경우 단순히 보이는 대상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육안으로 헤아려 보기에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 보이는 것은 눈의 작용이다. 범어로 눈(眼)에 해당되는 말은 다양하다. Cakshu는 '눈'이고 netra는 '안내자'의 의미가 있다. 정작 '본다'에 적절한 말은 dṛis 이다. 그저 눈 앞에 전개되는 사물을 시야에 들어오니까 본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마음으로 익히고, 이해해서 본다' 던가 '순수직관을 통해 생각하고 발견하여 본다'는 말이다. 여기서 '철학'이란 의미의 darmana가 나왔다.

중생세계를 Saha loka라 한다. saha는 '참는다' 혹은 '힘이 센'의 뜻이고 loka는 '세상'의 뜻이다. 그러니까 중생세계는 '참아야 하는 세계'란 말이다. 서로 간에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오르고 싶은 마음이 그칠 줄 모르고 불타는 세계다. 행짜가 만연한 세계이기도 하다. 베거리쯤이야 예사로운 일이고 주변에서 지나치게 애발라 인심을 잃는 정도야 다반사이다. 그런가 하면 Vedya loka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다. vedya는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말이다. 성취된 세계에서 무엇을 더 갖고자 마음 쓸 일이 있겠는가. 이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이기도 하다. 누구나 수행이란 정밀한 여과기를 탈 없이 통과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숭고하고 지고한 세계다.

소의 자취를 발견하다(見跡)는 말은 십우도(十牛圖)에 나오는 말이다. 십우도는 심우도(尋牛圖)라고도 불린다. 십우도는 곽암(廓庵) 스님이 유달리 선수행을 소 찾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 특이하다. 즉 다른 것들에는 검은 소가 조련돼 순백의 소로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곽암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서 소를 보고 잡아끌어서 마침내 소와 내가 하나가 되어 결국 공적(空寂)이 되고, 다시 애당초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차례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당(唐)대의 선의 특징을 이뤘던 평상심의 불도를 자각의 과정으로 대치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작용을 잘 다룬 곽암의 〈십우도〉가 가장 널리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왜 소가 선 수행과 관계가 있을까. 소가 인도나 중국에서 태고적부터 삶의 중요한 한 영역을 담당했고 농경사회에서 필수적인 동물인 까닭이다. 세존의 성이 고다마(Gotama)인데 Go는 '소'이고 tama는 '~을 가장 숭상하다', '~을 가장 좋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소 토템을 씨족성으로 한 것이다. 소를 성물로 인정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함곡관에서 노자(老子)가 소를 타고 나오는 이미지는 소의 종교적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자기식의 언어구사는 큰 화를 부른다
자기 식견으로 예단말고 전체를 터득해야

당(唐)대의 선원에서는 소를 사육했다. 선종이 율가(律家)에서 더부살이 하던 것을 떨치고 자급자족하는 수행집단으로 변혁될 때, 선농일치적 수행관에 입각해 선원에서 소를 사육했던 것이다.

견적(見跡)이란 수행에 있어서, 무엇인가 알듯말듯한 경지를 보인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얄팍하게 아는 지식으로 전체인양 보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자기의 조그만 식견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려고도 한다. 스스로 전체를 터득하기 보다는 미리 예단하고 결론지어 주관적 해석을 내려버리기 쉽다. 자기식의 언어구사는 곧 진실을 왜곡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은 불완전한 지식을 빗댄 말이다. 견적에서 가르침은 어설픈 깨침으로 세상을 망치는 사기꾼을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모르면서 안다는 것도 무서운 사기이지만, 불완전한 지식으로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인을 경계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위선의 허물을 벗고 거짓의 탈을 벗어던지고 진솔하게 인생을 논해보자. 이것이 '나'라고 떳떳이 얘기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2011년 이후,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
서울, 인천, 경기 지역내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관세음보살명호CD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행사 기간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잇따른 자연 재해와 사람으로 인한 재앙 등으로 전 인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재난을 피할 수 있고 많은 곤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방법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원력을 빌려서 이런 자연 재해와 인재를 피하고 행복한 인생을 얻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인류와 중생을 위해서 염불합시다.
관세음보살님의 빛이 전 세계를 비출 수 있도록 - 사람마다 모두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진푸티 선사께서 일본 대지진 이후 직접 선정속에서 부르신 염송CD를 뜻 있는 몇 몇 불자님께서 법공양 하셨습니다.

■ 이 관세음보살 명호 CD는 티베트 청장고원에서 수행하신 대 성취자 – 진푸티 선사께서 깊은 선정속에서 부르시는 관세음보살 명호입니다. 이 CD를 자주 듣거나 반복해서 염송하시면 관세음보살님의 강한 가피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菩提禪修 서울 약사선원 BODHI MEDITATION
cafe.naver.com/bori2

■ 사무실: 02)586-6185, 6186 ■ 연락처: 010-5376-8578, 010-8928-0537, 010-3507-1507

佛經의 眞髓, 깨닫는 法을 일러준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의 바른 해설!!

반야심경의 올바른 해설

● 金台龍 해설



金台龍 해설, 知文社 刊, 값 10,000원

지금까지 불교계의 애매모호한
해설의 오류를 밝혀,
정확히 뜻을 헤아려 새길 수 있게 한,
혁명적인 해설본 출간!!

지문사 02)715-2305, FAX 718-9387
총판 · 한국출판협동조합 전화 02)716-5621, 팩스 716-5028



위생 · 안전 · 친환경

사천왕 공간살균기

식약청 허가제품



지금은 세균과의 전쟁? NO! 이제부터 스님 불자님 황사 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천왕 공간살균기는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 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 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아염소산 전용 공간 살균기 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전성이 입증된 차아염소산을 3~5마이 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 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 보균자(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 징

친환경
-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 중성에 가깝고, 무색.무취로서 장기보존이 가능합니다.

안전성
- ○ 식품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사 용 처

1. 법당 공간 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 살균하세요.
2. 법당에서 사용하는 **좌복 및 방석** 등 수시로 세탁할 수 없는 것을 간단히 사천왕 공간살균기에 접촉시킴으로써 소독 및 살균하여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3. 모임이 많은 법회, 불교대학, 어린이 법회, 불교계 운영 요양원 등 각종 대중 모임이 많은 곳에 적합합니다.
4. 사용사례 : 공공기관 민원실, 금융기관, 군부대 내무반, 교육시설(학교, 학원, 유치원) 의료기관(병의원 / 요양원), 스포츠센터, 골프장, 대형식당, 유흥업소 노래방, 주점, 위락시설 PC방, 극장, 유통대형마트, 백화점



❖ 사천왕 공간살균기 제원

- · 사용시간 : 1시간, 4시간, 8시간
- · **사천왕공간살균기 : 150만원**
- · **차아염소산 살균수 : 10L 5만원 . 20L 8만원**
  (4배희석으로 사용하며,1일 8시간 기준. 월 25일 사용시 20L 소모)
- · 소비전기 : 90W · 중량 : 7.3kg
- · 크기 : 250cm×410cm×110cm

❖ 사천왕 공간살균기 납품처

서울대학교어린이집 · 고신대학교 · 횡성축염 · 관악구청 · kb금융 · 홈플러스 · 성광제약 · 텍스온네트 등

차아염소산 이란? 차아염소산이 우리 몸의 혈액 중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활성산소가 체내에 침입한 세균 등의 이물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호중구에서 미에로퍼옥시다제(MPO)라고 하는 효소가 대량 존재하여, 활성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수를 염소이온과 반응시켜 차아염소산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호중구가 이러한 인체면역시스템을 통해 생성하는 차아염소산은 수억년에 걸쳐 행하여 온 가장 안전하고 속한 살균방법 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안전한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티바이러스는 인간의 살균시스템에서 유래한 꿈의 살균수 인 것 입니다.

구입문의 : 현 불 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이미지 200% UP! 法果 법과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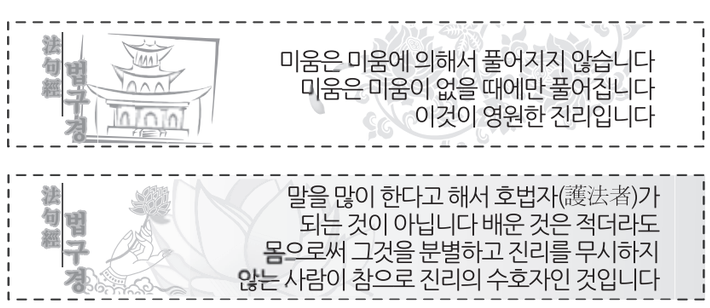
법과 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02)2004-8216**
FAX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 동안의 파계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남기고…

❽ 경주 분황사(芬皇寺)


한쌍의 까치가 날아와 앉은 분황사 당간지주 너머로 옛 황룡사 터가 보인다.

"저 많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소녀부터 제도해 주십시오. 대사님, 부탁이옵니다. 대사님…." 공주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던 스님은 황룡사를 떠나 정처 없이 걷는다. 그러던 스님이 문득 걸음을 멈춰 선 것은 걸망 안에 들어있는 미완성의 〈발심수행장〉이 생각나서였다. 스님은 발길을 돌려 분황사로 향한다.

분황사로 가는 내내 '원효'의 두 글자가 맴돌았다. 신라의 땅이다. 짙은 구름 아래 서 있는 고도(古都)는 사라진 기억들과 사라지고 남은 흔적들 속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만이 남아 있는 황룡사는 안타까운 대지 위에 들꽃을 기르고, 안타까운 순간을 함께 했던 또 하나의 절 분황사는 그 아쉽고 허망했던 지난날을 바라보고 있다.

황룡사 바로 옆에 있는 분황사는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됐으며, 우리 불교 곳곳에 향수처럼 스며있는 이름, 원효(元曉:617~686) 스님이 머물렀던 절이다. 스님을 연모했던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의 마음을 뿌리치고 황룡사를 떠났던 그날, 분황사에 들어 그날로부터 스님은 못다 쓴 〈발심수행장〉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무릇 모든 부처님들께서 적멸궁(寂滅宮)을 장엄하신 것은 많은 겁해 동안 탐욕을 버리고 고행하심이며, 중생들이 화택문(火宅門)에 윤회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않은 때문이다.' 〈후략〉 잊을 수 없는 '원효'의 문장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황사에 머물던 원효 스님은 파계를 하고 만다. 스님만을 찾는 요석공주와의 인연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인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파계를 했으나 스님의 이름은 그 때부터 우리들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한다. 파계한 스님은 승복을 입을 수 없었으나 불제자가 되겠다는 서원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다. 하여 또 다시 요석공주의 간청을 뿌리치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난다. 승복을 벗고 거사의 이름으로 백성들 곁으로 들어간 스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불법을 심기 시작한다. '원효'의 이름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무겁게 떠있던 구름 속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너진 석탑 하나와 들꽃처럼 살아있는 법당 하나가 도량에 내리는 비를 모두 맞고 있다.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 곁에 머문 것은 단 3일이었다. 3일 동안의 파계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남겼다. 스님이 열반에 들고 스님과 요석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설총은 스님의 유골을 분황사에 모신다.

비가 그치고 돌담 너머 당간지주 위로 까치 두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아쉬운 지난날이 있어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면 분황사에 가볼 일이다. 무너진 석탑 앞에 서면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온 그 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당간지주 위로 날아와 앉은 한 쌍의 까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의 안타까운 인연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저녁 범종소리가 꿈처럼 들려오고 분황사엔 다시 저녁비가 내렸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분황사 석탑


분황사 보광전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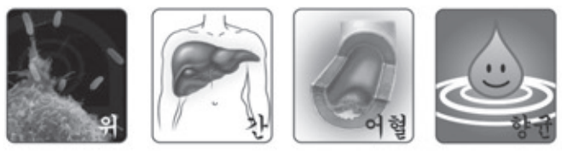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격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낀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셨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불화박물관 건립을 위해

'영월연세포럼' 지자체 최대 규모, 불교회화 등 12개 주제 다뤄

국내 유일의 박물관 특구인 영월에서 박물관 국제포럼인 '영월연세포럼'이 5월 23~26일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로 20개국의 130여 석학들을 한 자리에 초대해 박물관과 한국학 등을 심도 있게 다뤄 박물관계와 문화계 등에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물관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문화와 교육공간으로 지역 문화 속에서 동력될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학술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포럼은 세계 박물관학계, 디자인학계 및 해외 한국학계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 경력과 실무 능력을 보인 사람들이 초청돼 △세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지원 방향 △전쟁과 평화 그리고 뮤지엄 △한국학의 문화적 전환: 최근 동향에 대한 고찰과 반성 △중국의 한국학과 한국학 교육 △한국 전통 미술의 새로운 시각 △세계 환경사 연구의 성과 검토와 국내 환경사 연구 증진 △박물관도시와 디자인 △현대 유럽인의 삶과 중세 문화 보존, 활용, 교육 △유럽의 한국학 △세계 한국학 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향 △영월디자인 △세계 에코뮤지엄 현황과 영월박물관도시의 과제 등 12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5분과에서 열린 '한국 전통 미술의 새로운 시각'에서는 최근 한국 미술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 전기 불화에 대해 다뤘다.

최근 조선 전기 불화에 대한 여러 작품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화에 관한 연구자들을 모아 조선 전기 불화의 도상과 판본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조선 전기의 불화에 대해 고려 전기 불화와 조선 후기 불화를 비교할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불화도 함께 비교함으로서 조선 전기의 불화의 계승성과 특징을 파악했다.

위싱턴대 큐레이터인 창칭은 '보스턴 파인 아트 박물관 소재 로카나회의의 고려 불화의 사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보스턴 파인 아트 박물관의 컬렉션에는 19세기 말 윌리엄 스터기스 비겔로우(William Sturgis Bigelow)가 일본에서 구입한 작품이 있다. 작품은 오랫동안 중국 작품으로 추정돼 오다, 최근에 들어 고려 말(912~1392)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작품은 비로사나불의 신궁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중심 신령이 비로사나의 양 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둘러싸 손으로 독특한 무드라 동작을 취하고 연화좌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 창칭은 "보스턴에 있는 고려 탱화는 원나라(1271~1368) 말경 미술가들은 전통적인 화법을 전수했던가 원나라의 새로운 불상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창칭은 이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불교예술 전이에 대해 분석해 발표했다.

런던대 박영숙 교수는 '10~11세기 고려(918~1392)와 요(907~1125) 관계-불교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영숙 교수는 "고려는 송과 요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에는 유화책을 쓰고, 상대의 침략의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능숙한 대외 정책을 운용했다"며 "역내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사업 및 외교 활동은 지속됐으며 아랍, 송, 요 및 일본의 무역상들이 고령의 항과 수도 개경을 왕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들이 가지고 온 희귀하고 신기한 물품들은 고려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했고, 고려의 문화적 취향을 한껏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대 박은경 교수는 '조선 15~16세기 불화의 현황과 특색'에 대해 발표했다. 박은경 교수는 "조선시대 불화는 수천점에 이르며, 대부분 17세기 이후에 해당한다. 15~16세기 불화는 현재 120여 건(140여 점)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찰에 남아있는 15~16세기 불화는 강진 무위사, 안동 봉정사, 창원 관룡사 벽화 등과 같은 극소수 사례만 남아있고, 그 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사립 미술관, 대학 박물관에 걸개그림 불화가 일부 소장돼 있다"고 밝혔다.

홍익대 강소연 교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수월의 도상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현재 영월군에는 20여 개의 박물관이 설립됐으며, 영월 하동면 예밀리에는 전시실, 불화 체험실, 영상실을 갖춘 '만봉불화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이 불화박물관 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은정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⑥ 인물사진의 거장 카쉬 사진전

진실을 찾아내는 비결은 '공부'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우리의 사진 찍는 방법이다. 유행에 따라 김치 대신 치즈를 외치기도 하고 한때는 위스키를 외치기도 했었다.

단체사진은 세월이 무상할 만큼 참으로 닮은꼴이다. 심지어 경주 불국사 계단 앞에서 줄을 맞춰 찍은 나의 수학여행 사진은 부모님의 수학여행사진과 장소와 구도까지 똑같다.

모두가 이곳에 왔다는 '증거'를 남기는 순간이니 '김치'를 외쳐도 자꾸만 엄숙해 진다.

그곳에 선 이는 웃어야 된다는 강박, 그곳에 다녀갔다는 증거물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합쳐져 입가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못하는 모나리자 미소를 짓게 된다.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표정의 인물사진,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 인물사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사진작가 유섭 카쉬(Yousuf Karsh, 1908~2002)의 사진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사진에 대한 관심이 저변으로 확대된 요즘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전'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카쉬 사진전은 2년 전 이미 10만 관람객이 다녀간 유명한 전시다. 올해는 디지털 프린팅이 아닌 카쉬가 직접 만든 원본 사진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그의 전시가 열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는 평일 오전부터 북적이는 사람들로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카쉬는 사진 찍기를 거부하며 은둔하는 유명 인사들조차 '그'라면 촬영을 허락 했다는 캐나다 출신의 사진작가 이다. 그의 모델이었던 수줍음이 많은 소설가 헤밍웨이도 거만한 정치인 처칠도 미모의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도 진짜 '나 다운 모습'이라며 자신의 사진을 좋아했다고 한다.

카쉬가 찍은 사진 속 인물은 경직 되거나 과장돼 있지 않다.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억지 미소를 짓는 이도 없다. 담담한 표정이 오히려 모델들을 생기 있게 보이게 한다.

그와 작업한 명사로는 오드리 햅번, 영국수상 윈스턴 처칠, 파블로 피카소, 알버드 아인슈타인 재클린 케네디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20세기 스타들이다.

카쉬는 "모든 인간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내가 사진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사진 촬영에 앞서 모델의 취미, 나이, 직업, 인생의 역경, 가정사까지 철저하게 조사한다. 사진 한 장에 모델의 진면목을 담아내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가장 진실되다고 느꼈던 그의 사진은 모델에 대한 완벽한 '공부'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그는 공부를 통해 모델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에 다가가는 것이다.

카쉬는 헤밍웨이를 촬영에 앞서 그의 집주변의 바에 들렸다. 그가 자주 오는지, 무슨 술을 즐겨 마시는지 조사하고 직접 마셔봤다. 카쉬와 작업한 모델 중 가장 수줍음을 많이 탔다는 헤밍웨이는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카쉬에게 "마실 것 좀 드릴까요?" 하고 권했고 이때 카쉬는 망설임 없이 헤밍웨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술 "다이키리 한 잔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답했다. 헤밍웨이는 깜짝 놀라 "그렇게 독한 술을 낮부터 드시겠어요?"라고 말하자 카쉬는 실수를 눈치 채고 "내가 어제 저녁에 당신에 대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카쉬에게 감동받은 헤밍웨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 유난히 수줍음 많던 헤밍웨이의 스웨터를 입은 수수한 모습의 대표사진은 그렇게 탄생됐다.

카쉬의 사진에는 인간 내면의 진실이 담겨있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그의 장점인 '진실'된 모습을 포착해내는 힘은 모델에 대한 철저한 '공부'에서 온다. 진실은 거짓을 벗기려고 애쓰기보다 열정을 갖고 '탐구'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카쉬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이치도 이와 같다. 마음공부도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기위한 공부이다. 하안거에 들어가는 스님들처럼 치열하게 마음공부를 한다면 절로 진실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 18~2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4	기도	법륜	정토
5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마음하는 아우야	박성직	녹야원
8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9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비스내과 라훌라	아이비북스
10	이향봉 스님의 일체유심조	이향봉	우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제2회 돌샘불화 작품전 개최

6월 4일까지, 보현보살탱 시연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석정 스님의 공개시연과 제2회 돌샘불화 작품전이 6월 4일까지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석정 스님이 보현보살탱을 직접 시연 공개하며, 하경진의 석모니탱, 송천 스님의 어람관음묘사도, 조해종의 산신탱, 오기웅의 나한도, 이승규의 달마탱, 박도훈의 보살상이 함께 출품된다.

또한 석정불교미술전수회의 회원 19명의 40여 점을 비롯해, 후불탱화, 미타탱화, 석씨원류도, 약사여래탱화, 수월관음도, 42수 관음탱화, 신중탱화, 용왕탱화, 조왕탱화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조해종씨는 "불화는 불교미술의 근원을 이루는 예술작품인 동시에 선인들의 사상과 세계관이 담긴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로, 이번 전시는 일반인들에게 불교미술의 친숙함과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됐다"고 말했다.



근래에 조성되는 작품들은 현대적 기법과 재료 활용이 일반화돼 전통 불화의 전승맥락을 잃어가는 실정이다. 이번 전시는 현대적 기법의 불화 조성방식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한국불화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051)630-5200

이은정 기자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7

– 사막의 두 상인 –



구성-김흥인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㉝

선승의 장례와 장송(葬送)

왕생정토 위해 향 사르고 합장



열반은 번뇌가 소멸돼 평온해진 상태를 말한다. 사진은 무소유를 강조한 법정 스님의 다비식 모습.

선승의 죽음을 높여서 '입적' 혹은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입적(入寂)이나 열반(涅槃)은 '적멸(寂滅)'을 뜻하는 말로서, 번뇌가 소멸돼 마음이 고요·평온해진 상태를 말한다. 즉 탐욕, 증오, 어리석음 등 미혹함이 사라진 상태이다. '원적(圓寂, 완전한 적멸의 세계)'도 같은 말이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 안이비설 등 감각적 기능을 갖고 있는 한, 욕망과 증오, 시기, 질투 등 중생적인 생각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죽는 날까지 항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가 사라지면 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대에는 입적·열반을 죽음과 동의어로 쓰게 됐다.

선원총림에는 당송시대부터 병승(病僧)을 돌보는 소임과 당우가 있다. 그 당우를 연수당(延壽堂)·열반당(涅槃堂)·무상원(無常院, 無常堂)·중병각(重病閣) 등으로 칭하고, 그 간호 책임자를 연수당주(主)·열반당주(主)라고 한다.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간병(看病)'이라고 하는데, 간병 소임을 맡은 스님은 병승(病僧)이 있으면 먼저 수좌·감원·유나 등 상위 소임자들에게 보고한 다음 요양·치료기관인 연수당(延壽堂, 수명을 연장하는 곳)이나 열반당(涅槃堂, 열반하는 곳)에 입원시킨다. 병승이 일반 환자실인 연수당에 들어온지 3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거나 병이 악화되면, 중환자실인 중병각(重病閣)으로 옮겨진다. 이곳은 말 그대로 중병에 든 스님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스님, 곧 입적하게 될 스님이 들어오는 곳이다.

선승이 열반에 든 경우 장송과 다비 등 절차와 격식에도 고승과 일반 승려와는 차이가 있다. 전임 주지(방장)나 현임 주지 또는 고승의 경우는 방장실이나 자신의 거실 등에서 주로 행해진다. 장송법식도 더 많고 장중한데 특히 다른 것은 관청과 인근 타사(他寺), 유력한 신도들에게 부고장을 보내고 상주(喪主)가 있고, 총림 전체가 장례의식에 집중한다. 일반 승려는 모든 것이 연수당이나 중병각에서 이루어지고 법식도 간략하다. 그러나 망승(亡僧)에 대한 문제는 한 선승의 마지막 길이므로 소홀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 규정이 많은 편이다.

장례절차도 두 청규(선원청규, 칙수백장청규) 간에 차이가 있는데, 후대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가 더 자세하다. 이것은 후대로 갈수록 더 부가됐음을 뜻한다. 특히 주지(방장)의 장례는 〈선원청규〉에는 간략한 반면 〈칙수백장청규〉는 열배도 넘는다. 주지가 권위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승이 병이 들어 연수당으로 들어가면 가까운 승려나 도반들은 병승의 침상 앞에 향촉을 밝히고 불상을 모신 다음 경전을 염송(念誦)한다. 그리고 청정법신비로자나불 등 10호를 외우면서 쾌유를 빈다. "엎드려 원컨대 일심(一心)이 청정하고 사대가 편안하며 수명과 혜명을 연장해 육체도 법신처럼 견고하소서"라고 기원한다.

병이 점점 깊어지면 대중들은 다시 그를 위해 아미타불 100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청정대해중보살을 각각 10번 부른다. 그리고는 "엎드려 원컨대 지금 병에 든 비구 ○○는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아니했다면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사이다. 만일 대명(大命, 죽음)을 벗어나기 어렵다면 속히 안양국(정토)에 태어나게 하사이다"라고 쾌유를 비는 축원문을 읽고 염불한다. 장로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 6권 '망승(亡僧)' 장에는 그 대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스님의 병세가 점점 더 깊어지면 연수당주(간병)는 수좌·감원·유나·서기·지객과 상의해 병승으로 부터 유언 등을 받아쓰고, 도첩과 수계첩 그리고 의발 등 도구를 거둬 유나실에 보관한다. 수좌는 의발 등 도구가 보관돼 있는 함(函)에 봉인(封印)하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병세가 위독하면 다시 신고하고, 천화(遷化, 입적)하면 신고한 다음 장송(葬送) 행함을 청한다. (국가로부터 받은) 자의(紫衣, 자색 가사. 즉 僧官服), 도첩(度牒), 사호첩(師號牒) 등은 3일 안에 반납해야 한다."

병승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별도로 죽을 끓이든가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심하면 소대변도 받아내는 등 그야말로 보살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청규에는 간병 소임을 가리켜 "8복전(八福田) 가운데 제일로 삼는다. 하물며 출가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누가 돌보리오. 다만 동지들의 자비와 안양에 의지할 뿐이니 진실로 중요한 소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소홀하게 하리오"라며 간병 소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병세가 위독해지면 직병자(直病者, 당직행자, 당번)는 연수 당주에게 고하고, 연수당주는 수좌와 감원, 유나 등에게 알린 다음 함께 병승 앞에 와서 유언을 받아 적는다. 유언을 구사(口詞)라고 하는데 정해진 양식은 다음과 같다.

병든 스님 간병 쉬운 일 아냐

간병 소임은 8복전 중 제일

"병을 지닌 승(僧) ○○는 본관은 ○○주(州)이고, 성(姓)은 ○○인데, ○○해(年)에 ○○곳에서 도첩을 받고 승려가 됐습니다. ○○년에 ○○사(寺)에 괘탑(掛塔, 입방)했으나, 지금 와서 포병(抱病, 병에 걸림)하니 지수화풍 부정(不定)할까 염려됩니다. 몸에 소유하고 있는 행리(行李, 의발과 도구 등 소지품)를 기록해 주시고 사후 문제는 모두 총림의 청규에 의해 장송(葬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병승(抱病僧) ○○는 유언하나이다."

요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행리(行李, 의발과 도구 등 소유물)를 장부에 기록해 달라는 것이고 사후문제는 모두 총림의 청규에 의해 장송(葬送)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유언의 내용으로 보아 사후 개인적인 물건이나 혹은 사유물 처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유언을 받은 다음에는 그 스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모두 함궤 속에 넣고는 봉인(封印)한다. 다만 상하복(上下服, 즉 直裰)과 괘락(掛絡, 5조 가사)·속옷·염주·행전·신발·수건 등은 시신을 염할 때 필요하므로 남겨 둔다.

일반 승려의 장례는 며칠 장(葬)으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나 도첩은 3일 안에 반납해야 한다. 또 〈선원청규〉에는 "이 밤에 법사(法事)와 송계(誦戒, 염불, 독경)해 회향한다.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공양 후 바로 진송(津送, 葬送)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송은 사후 다음날, 길어도 3일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승이 운명하면 연수 당주는 유나와 수좌에게 알리고 행자에게 목욕물을 준비하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감(龕, 棺)과 욕선(浴船, 시신을 물위에 놓고 목욕시키는 배)을 가져오게 한 다음 망자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데 조두(澡豆, 녹두로 만든 비누)를 사용한다. 목욕이 끝나면 삭발을 시키고 속옷과 상하의 그리고 오조가사를 입혀서 가부좌 자세로 통(桶) 안에 앉힌다(눕히는 것이 아님). 그런 다음 다시 감(龕, 棺)에 넣어서 연수당 내에 안치하고 위패를 써서 관 앞의 탁자 위에 놓는다.

위독해지면 청규 따른 장례 유언

다비 때 참가 대중 아미타불 십념

위패를 쓰는 방식에 대해 〈선원청규〉에는 "歿故(몰고) ○○上座之靈"이라 쓴다고 하고, 후대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新圓寂 ○○上座 覺靈"이라 쓴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의 위패 쓰는 양식은 〈칙수백장청규〉의 양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몰(歿)은 평민의 죽음을 뜻하고, 고(故)는 고인, 신원적(新圓寂)이란 새로 입적했다는 뜻이고, 상좌(上座)는 존칭이고 각영(覺靈)은 영가와 같은 말인데 그냥 영가가 아니라, 깨달은 영가인 것이다. 전임 주지면 "전(前) ○○사 주지 ○○선사지영(禪師之靈)"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직함에 따라 쓴다.

위패를 지키는 행자를 '직영(直靈)행자'라고 하는데, 직영행자는 총림의 공양법에 따라 출상 때까지 아침에는 죽, 점심 때는 밥을 영단에 올린다. 유나와 수좌 등은 하루 3번 차(茶)를 올리고 향을 사룬다.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경명일(景命日, 천자 즉위일)에는 출상(出喪)하지 아니한다. 초하루와 보름엔 총림에 정기적인 상당법어 등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욕시킬 때 사용한 천은 목욕시킨 사람에게 주고 수건은 삭발시킨 사람에게 준다.

출상(出喪), 다비(茶毘, 화장)하는 날이 되면, 유나스님은 아침 공양이 끝나자 마자 백퇴(白槌, 백추라고도 발음함. 망치의 일종)를 한 번 치고 나서 대중에게 알린다.

"대중스님들께서는 죽후(粥後, 선원에는 아침은 죽. 만일 점심공양 후에 다비를 할 경우는 '齊後'라고 함)에 종을 치면 각기 가사를 수하고 망승을 보내는 법사(法事)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요사의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나와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곧이어 종과 북이 울리면 연수당 앞에서 망승(亡僧)을 보내는 장송의식이 거행된다. 대중들이 모두 모이고 주지화상 이하는 모두 차례대로 향을 사루고 합장한다. 이어 유나가 장중한 음성으로 염송(念誦, 독경, 염불)을 마치면 이어 북을 친다. 대중들은 북 소리와 함께 감(龕) 즉 관(棺)을 들어서 다비장으로 이운(移運)한다. 나머지 대중들은 번(幡)과 향로 등을 들고 뒤를 따른다.

운구(運柩)가 다비장에 도착하면 관을 장작더미 위에 얹어 놓고 다시 염불 등 법식을 행한다. 주지 이하 중요 소임자들은 마지막으로 망승(亡僧)의 왕생정토를 위해 향을 사루고 합장한다. 이어 주지가 횃불을 잡고서 관(棺)이 올려져 있는 장작더미에 밑에다가 점화(點火)를 한다. 점화 후 주지화상은 무상법문을 한다. 대중들은 모두 함께 아미타불을 십념(十念)하면서 다비식을 마친다. 다음 날 아침에 연수 당주와 유나는 다비장으로 가서 유골을 수습하여 물에 뿌리든가 아니면 보동탑(普同塔)에 안치한다. 보동탑은 대중 모두의 유골을 안치하는 탑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대념처경 특강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과 대념처경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통적으로 바라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행복을 삶을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수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1년 6월 18일 - 6월 24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통역: 일창스님]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대념처경 특강 및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대념처경 특강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의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6월 18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6월 24일 오전 12시
■ 참 가 비(대념처경 특강 및 수행비) : 3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⑦

모든 직책 벗고 야인으로 돌아가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화랑대회'라는 호국적 이미지보다 '한국불교1600년대회'라 하여 민족성을 강조했다. 공연예술가들을 초청해 문화공연을 열었고, 젊은 불자들의 진취성을 고무시켰다. 1981년 여름 법주사 부근 초등학교를 빌려 개최한 대불련 수련대회에는 평년보다 몇 배 많은 700여 학생들이 운집해 성황리에 마쳤다. 불교계에서 여익구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은 물론이다.

그 이듬해 스님들을 중심으로 대불련지도법사단이 발족했다. 여익구의 주도였다. 지도법사단은 1977년 겨울 월정사 화엄산림에서 만났던 스님들, 10·27법난으로 자각했던 스님들이 여익구의 민주화 및 불교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도법사단의 정신적 물적 지원은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이 탄생했고, 승려 중심의 운동단체인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등이 결집하기에 이른다.

민주화운동에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써 불교계 역량의 운집은 물론 그 위력이 배가됐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 그 인연관계를 뒤돌아보면 1970년대 중반 탄허 스님과 여익구가 뿌린 민주화의 씨앗이 있었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치열했던 상황과 달리 회고하는 여익구의 눈가에는 웃음마저 머물고 있다. 최루탄이라는 말 한마디가 알려주듯, 엄혹한 시간이며 암울함이 끝없이 펼쳐지던 시간을 짐짓 호탕한 목소리로 달래고 있다. 1983년 신흥사 사태로 여익구는 비상종단운영회의에 참여했지만, 끝내 개혁종단으로 이끌지 못했다. 이듬해 여익구는 모든 직책을 벗어던지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화계사 백상원 건물

"보수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총무원 뺏었어. 중앙권력을 뺏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쫓겨났어. 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했던 동지들이 또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실망을 해서 동지들 떠났는데 동지들도 쫓겨났으니까 난 더군다나 입지가 없는 거예요."

여익구는 1984년부터 글 쓰는 일에 몰두하면서 여러 곳에 민중불교운동 관련 내용을 기고했다. 〈민중불교 입문〉(1985)도 썼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은 어느 순간에 결성된 것이 아니라 탄생의 충분한 배경을 갖는다. 종단운영회의에 참여하면서 종책연구소를 만들었다. 또 여익구는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을 창립했다. 이는 당시 재야에서는 민민협이나 민통련 등이 결성되던 시기와 함께 한다.

1985년 여익구의 활동은 현저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1970년대에 잉태했던 스님들의 지지기반과 활동 지원이다. 1980년 굴욕이었던 10·27법난에 이어, 1983년 신흥사 사태로 여익구는 스님들을 다그쳤고, 스님들은 선봉에 선 여익구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불련 지도법사단 스님들과 화엄산림에서 인연 맺었던 스님들이 중진으로 활동하면서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1985년 쫓기는 몸으로 여익구는 민중불교운동연합 결성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6개월이 소요됐다.

드디어 창립일이 가까워졌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1985년 5월 4일을 D데이로 잡았고 장소는 한글회관으로 정했다. 고은 선생이 연설하기로 약속했고, 자신이 취임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낌새를 알아챈 경찰이 어김없이 한글회관 진입을 막았고, 여익구 등 일행은 세종로까지 밀렸고,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 들어갔다.

황칠명인 구영국 교수의 전통문화산책-2

왕만이 먹을 수 있던 황칠 나무의 새 순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좌지우지된다고 한다. 좋은 음식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을, 좋지 않은 음식은 독하고 고약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의사가 말했었지만, 식생활이 장수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먹는 것에 따라 질병이 생기기도하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소중한 음식이 우리에게 이롭고 좋은 음식으로서 도움이 될까? 필자는 우리의 신비한 전통에서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가까이 전통문화 보물창고에서 존재하고 있다.

새싹비빔밥은 산뜻하고 맛이 있는 새순 식물이다. 모든 식물의 새순은 싱그럽고 깨끗하고 상큼하고 신선하고 싱싱하다. 대나무의 새순을 따서 먹고 신선한 두릅나무의 새순인 두릅을 먹고 돈 나물을 먹고 새쑥을 먹어보자. 그렇게 먹어보는 순간 뭔지 모를 좋은 느낌이 오고 싱싱한 에너지가 자신의 몸을 감돌면서 자연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볼 수 있는데, 순자연의 힘을 생명의 흡인력을 통해 자신의 인체가 닦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에도 충분히 자연음식으로 내기 좋은 것이 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취득한 음식보다 계곡에서 찾아내는 약초가 그것이다. 하천·계곡이나 좋은 산에 스스로 자생하며 튼튼하고 건강하게 약으로 자라온 우리국토의 땅을 가슴으로 품고, 세월을 저며 온 옻나무의 옻 순을 우선 말하고 싶다. 옻나무에서 봄 내음을 내미는 새순인 옻순은 웰빙음식으로 그만이다. 다른 음식과도 전혀 손색이 없음은 어쩌면 그래서 참 좋은 음식이다. 이 옻순은 그냥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거나, 튀겨먹으면 건강유지를 기하고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사실은 인간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더욱 배가 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자연 치유 약이 된다. 물론 체질에 맞아야 하지만 말이다.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하며 희소해서 마음대로 먹어볼 수 없는 것,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어보지 못하는 최상의 음식이 또 하나 있다. 옻순 위의 황칠순이다.

황칠나무의 새싹인 이 황칠순은 세상 사람이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특별히 왕실과 궁에서 썼다고 보이는 새싹이고, 따라서 마음이 탁하고 욕심이 많은 일반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심이 없고 제 잘난 척 하곤 하는 소인배는 먹을 수 없다했다. 그래서 신은 또 많은 이들에게 이 황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비의 나무이며 신이 내려준 이 황칠나무의 새순은 결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었으니 참으로 귀한 것이 사실인가 보다. 황칠원액은 또 어떠한가. 황칠을 먹을 수 있다면 최상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은 그 누구에게 아무렇게나 귀한 행운을 주지 않으므로 황칠을 마음대로 채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일이다.

황칠나무 모두의 하나하나에서 황칠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옻나무처럼 모든 나무마다 칠이 나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


백제황칠명인 제1호

그 비밀을 전통황칠장인이 이제라도 간직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㉙ 신라상감

석굴에서 우리의 흔적을 만나다



용문석굴에도 한국불교와 연관된 유적이 있다. 용문석굴 사이에 신라상감(新羅像龕)이라고 불리는 유적이 있다. 신라불교의 흔적이 중국의 3대 석굴사원 안에 남아 있다. 조성된 시기는 현재 용문문물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705~712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불상은 5기가 존재 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조성양식을 볼 때 3존불과 가섭, 아난을 조성한 당대 양식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상은 도굴되어 남아 있지 않고 입구 부분의 신라상감이라는 글자만 선명하게 남아 있다. 용문석굴의 신라상감은 신라불교 관련 유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신라의 이름을 조각한 석굴이 있다는 것은 신라불교의 중국 내 역할의 비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석굴의 조영을 통해볼 때 낙양지역에 있어서 신라불교인의 활동과 이를 후원할 기반이 마련된 점을 찾을 수 있다.

낙양을 중심으로 한 허난성(河南省, 하남성) 지역은 측천무후 당시 수도로서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불교거점의 하나였다. 측천무후의 후원을 받아 뤄양은 불교의 중심지로 성세를 구가할 수 있었고 당시 신라승려들도 이러한 불교의 발전에 따라 많은 이들이 낙양에서 활동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신라출신 승려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원측이 많은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원측의 문하에 있던 도증(道證)과 승장(勝莊)등의 신라승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승장의 경우는 원측이 입적한 뒤에 그의 사리 중 일부를 가지고 종남산 풍덕사 동쪽에 탑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러한 유가유식계열의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널리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당나라 당시 북도라고 불리던 산서성 태원 지방에 있는 천룡산 석굴 중 서봉 21굴에는 고구려 출신 순장군과 백제출신 흑치상지의 딸이 석굴을 조성했다고 하는 기록이 〈금석췌편〉〈대당물부장군공덕기〉에 남아있다. 이 석굴은 현재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지만 당나라 당시 화려한 조상의 현식과 한국 출신의 유민들에 세운 굴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불교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 21굴 불상은 당나라 당시에 천룡산 석굴에 조성된 불상양식을 대변하고 있다.

용문석굴의 신라성감은 신라불교 흔적
낙양 등서 신라불교인 활동했음을 반증

법열(悅悅)의 즐거움 보다는 인간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불상이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 불교의 흔적과 신앙의 원류를 찾는 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0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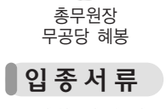
- 아 래 -

■ 입교일시 :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진주 055)747-8419
■ 수 강 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명상수련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

명상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
명상수련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줍니다 .

"심산의 맑은 생수만 마시며 단식으로 다이어트,
고혈압,당뇨, 과민성대장 ,아토피, 피부미용, 체질
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십시요."

고요한 산속 명상수련원에 오셔서 황폐하여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장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요.

◐ 수련기간 : 7일
매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입소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퇴소

◐ 침실은 1인 1실 : (수련은 강당에서 단체로 합니다)

금정산 명상 수련원 (금윤선원)
경남 양산시 동명 사송리 1036-1
055)383-7009 / 011-556-5830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경화, 치매, 사업성취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우주 기(氣) 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 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사주 통변술 강의
사주, 궁합, 택일 등
사주 초보부터 실전까지
비법특강합니다
그룹지도, 개인지도
수시접수
010-8606-6151
현인스님 합장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한국에서 부전할 스님 사무실 직원, 공양주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아미타종 종정
시각장애 1급, 금달마를
치기위해 35년 달마 인연으로
약간의 보시금은 무료급식비로 쓰임
(산속에 조용한 공간을 찾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713-058-51-025008
(예금주 강삼분)
010-7711-7926

염불과 역학
1달 속성 완성
승려가 1대1 개인지도
지금 배우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서울)
011-716-3811

구직 광고
공무원 36년 정년퇴직,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소지.
신심으로 일하겠습니다.
011-716-5885

사 업 대 박 !
약사대불 영험도량
개운비법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49재 선박중장비고사
조상령 , 태아령 , 빙어령 등
(각종불교의식 전문가,무형문화재 이수스님팀 구성)
東禪 전국(예약시)출장환영
상담문의 010-3563-2566
070-4256-2566 도선

한식구 같이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대구 수성구산사
053)793-1551
010-3500-69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50~60대, 숙식가능,
●숙식시 : 일주일에 1박2일 휴무,
●출퇴근 가능 : 출퇴근 1주일에 2번 휴무,
보시금 80만원.
032)655-4133
010-3660-9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정릉
02)919-0480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조계종 내원암 지장보궁
힘있는 도량 고찰복원,
노승이 상좌없음
본종 외 타종단 비구니는
다시 본종(조계종) 계 받고 상좌 할
비구니 40~50대 평생주지로 관리운영
맡길 인연 있는 비구니 스님을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최면 퇴마, 전생요법
▶다양한 방법의 특수빙의 대화퇴마법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 해드림
▶실전 명리학 무료강의
031)666-7732
청운사 경담 합장

백가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백병산, 사계절 풍광이수려하고 포근하며 남한강 자락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맑은 공기와삼림욕을 만끽하며 달마대사의 수련법인 기공참선을 통한 심신단련과기도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산사체험을 권장합니다.
수련 문의 031)772-2020 010-4641-5474
대웅사(경기 양평) 주지 일학

종법황제 추대, 각 장관 초빙
▶종법황제추대자격 : 종무청, 황실 대외적으로 육성운영 능력자.
▶각 장관 초빙 – 종무청 대외적으로 종무정책 육성운영 능력자.
자세한 것은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문화 종무청 (승인된 종무자치기구)
조직위원 법광
011-412-8040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도 모십니다
▷ 충남 아산
010-9421-0730

기도 부전스님 구함
▷ 부산
011-840-435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871-5330

불심있고 절 일 도울 수 있는 청신녀를 모십니다
숙식과 잡비를 제공함
▷ 부산
011-573-08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성남
011-9854-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성남
011-279-0024

배우자를 구합니다
여자분 나이 45세~55세이며,
자녀가 있어도 되며, 불심만
있으시면 됩니다.
노후대책은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010-7473-6886

평생 佛事에 뜻이 있거나 신통가능 또는 神끼가 많은 男女스님, 보살님, 법사님, 초보행자 등 특별한 사람을 찾으니 꼭 연락바랍니다.
成佛책과 운명책 20권쓴
남해안 '용궁사' 大山도인스님
010-5105-5000

아주 특수한 기도비법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복부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BTN 불교 TV에서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 기록 영화!
「일붕다큐」 제3부 마지막 방송
오는 양력 6월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50분 방영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달력에 메모해서 방영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공양주 모십니다
▷ 순천
010-4174-7410

사찰에서 근무하실 종무실 보살님, 법당 보살님모십니다.
숙식가능하신 45~55세
초봉 130만원 3개월 후 인상됨
(대구 팔공산 약사암)
053)851-108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무문관 재가수행자 특별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 하루 한끼 공양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기간 : 보름이상 – 자유
▶ 입방 날짜는 개인별로 함 ▶동참금 있음
▶문의 : 054)753-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 무문관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양파엑기스 판매 (효능)
혈당낮춤, 거담, 발한, 이뇨, 혈액순환촉진, 해독, 소화촉진, 해열, 관상동맥확장, 콜레스테롤상승억제, 항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병, 괴혈병, 신경질, 신체허약, 기관지염, 코감기, 피부병, 궤양성피부염, 발모촉진, 장염, 감기, 빈혈, 후두염, 죽상경화증, 관상심장질환, 천식, 기침, 비타민결핍증, 궤양, 부인질병, 설사, 변비, 동맥경화, 고지혈증, 대장염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1박스(50포) 가격 3만5천원 / 4박스정도 복용효험확실 특별보급가 12만원
http://cafe.daum.net/jijangsw

역 학 개 인 지 도
누구나 쉽게 한달이면 마스트 해드립니다
모든 비법도 가르켜 드립니다. 바로 쓰실수 있도록지도함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장
운세상담 사주. 신생아작명. 궁합 택일 . 기치료. 빙의
서울전철4호선 한성대입구역(삼선교)6번출구뒤 구룡암(활산선원)
예약상담 02(6081-9999) 송금후 전화상담가능
H.P : 010-6436-9888 선원장 혜자스님 합장

주지 해임 공고
• 사찰명 : 생활불교 관음사
• 창건주 :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91-6호
• 주 지 : 일송 (박기환)

위 사찰의 주지 일송(박기환)
스님에 대해 2011년 6월 1일부로
주지 해임을 공고하오니
상기일 이후로는 주지직인 및
모든 효력이 정지됩니다.

생활불교관음사 창건주 노경섭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양다원

승복 · 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초파일 맞이 기념행사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평수 : 45평 육합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인등 100등, 연등 165등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2(목조)
• 요사 : 45평
• 부지 : 120평
• 가액 : 2억 9천

• 위치 : 강원(동해안)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최고의명당 사찰터안내

• 위치:상주화서IC 4km
• 5,000평 (전1,700 임야3,300평)
• 포장도로접 관리지역
• 가액: 5억
043)288-1579
010-4467-830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1동
• 부산 진역 지하철 5분거리
• 총평수 : 70여평
• 법당 40평, 요사채(별채)3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0-2326-217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1,2번출구에서 1분거리
• 35평정도,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70만원
•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472-757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 평수 : 3층 건물중 3층, 5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살림가능
010-2288-159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3억 2천

• 위치 : 경남
• 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전각4채
• 가액 : 12억 5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및 토 굴 안 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600평
• 법당 50평(목조 7포 9포)
•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40평 , 주지실25평
•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13억

해운대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 3칸
• 해운대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총금액: 1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접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도심포교원안내

•위치: 경남, 창원 39사단, 부근
•3층 대형상가내, 2층 45평
•법당 약 30평
•모든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가액: 1억 8천만원
010-8675-863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용성리
•대지 200평, 바로 뒤에 산
•임법당 1동, 산신각 1동
•방4, 창고1, 공양간,
보일러실, 샤워실
•가액 : 6천만원
010-7377-357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인구 밀집지역
• 3층건물중 3층, 옥상사용가능
• 건평 50평 이상
•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베란다, 화장실, 공간 사용 편리함
•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방음시설 완비, 모든 시설 완벽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가액: 총 합계 6천만원
070-4127-3579

사 찰(급)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현동 (최요지)
전철 3분, 시장 2분 거리
• 부지 130평, 건평150평/ 주차 7~8대 가능
• 1층 50평 큰방1개, 큰거실1개, 큰공양간
2층 대웅전, 방1개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개, 다실 별도
2,3층 베란다 사용
• 가액 : 7억 8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7-572-3714

사 찰 안 내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3층건물, 단층건물 100평
•대지 230평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0-6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소재
•평수 1,300평
시설완벽
•주차시설완벽, 관광지
시내인접
•가액 : 4억 2천만원
010-5224-62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인천 메트로 간석오거리에서
2분거리
• 상가건물 4층건물에 2층,
30평
• 전세 670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2632-899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부지 2000여평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요사채 2층 건물 1동
•1층건물 3동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가액: 11억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 -412-2464

사 찰 안 내

• 경기도 안성 시내 최고 중심지
• 3층건물 전체 약 20평
• 1층 : 친견실 및 공양간
•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영단, 원불 외 모든 시설 완비
• 3층 : 요사채
• 가액: 2억 5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함
010-8678-0520

사찰(급)전세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대지 : 110평
• 법당, 산신각, 공양간
방 大 3개, 용왕각
• 마을 뒤편 산세 수려 계곡 접
• 전세 5천만원, 시설비700만원
010-5504-9085
010-6540-2584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 법당 19.5평
• 시설: 인등 198,
영가 인등 550개
• 보증금 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차완비, 시장편리
• 법사스님 일반포교 가능
010-9755-300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구 조방앞)
•평수 30평, 2층
•법당: 삼존불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852-7597

사찰(급)안내

• 강원도 강릉시 사천 해수욕장뒤
(낮은동산숲속)최고의 위치
큰 불사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약 200여평,
야채밭 약 80여평 (1년도지 20만원)
• 법당 외 방4개, 화장실 2, 목욕탕1
•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 가액: 4500만원(절충불가)
010-3691-395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대지(임야포함) : 5500평
•법당14평, 산신각 5평
•요사채 : 28평 총47평
•가액 : 2억 5천만원
010-8561-3169

사 찰 안 내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포교활동 적지
• 대지 : 149평
• 법당 : 20평 단층기와
• 요사채 기와(2동)
• 가액: 5억 3천만원
(개인사정으로 양도)
011-811-54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멋진토굴 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 건평, 사용평수 70평이상
• 황토기와집 1동(올수리)
• 조립식 3동
• 가액 : 1억 3천만원(조절가능)
• 노후대책, 방사많음
010-5572-15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돌상한분,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명당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봉산면
보전관리, 건축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 있음
• 임야, 논 950평
• 가액: 6천 6백만원
010-2887-41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직동
• 평수: 25평
• 전세 55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절충가능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대지 340평, 건평 200평
•소임관계로 급 양도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3층건물중 3층(46평)
•시설완비,즉시 법회가능
•보증금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정가)
010-2083-9992
010-2608-3552

토굴(암)안내

•위치: 강원도 홍천
•300평
•건물 45평
•시내에서 5분거리 산속
•가액: 1억천만원
•토굴기도처로 적합
010-3568-694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이용
•2층 법당 20평,실평수 35평
•방1, 화장실1, 방1
시설완비, 주차2대
•남향, 북산산 보이고
공기 좋고 조용한 주택가
•비구니스님, 보살님 원함
•보증금 3000만원, 월 100만원
010-5206-20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1동
• 토지 130평, 건물 약 8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해우소
• 전세 5천만원
• 전세계약 4년연장 가능
051)636-3418
010-6274-93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외버스터미널 3분거리
• 단층건물 2채 약 80평
(텃밭제외)
• 시설: 법당 5존불, 밖입불1, 산 1불
• 법당1, 주지실1, 공양간방 3, 욕실 2곳
• 심야보일러, 에어컨 3
• 가액: 1억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2)236-12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 약 510평, 산밑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 인연되시는 스님에게는 정말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5054-67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 (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교원(급)안내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4층건물중 2층 40평
•방1, 공양간, 법당
•삼존불봉안(미타, 관음,지장)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17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6227-5965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남 행정도시에서
20분거리
• 평수 : 420평
• 도로, 전기 되있고,
옆 계곡, 청정지역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숭의동
• 상가1층주택, 약 30평
• 법당1, 방1, 거실 화장실 큼
• 주방별도, 마당텃밭 있음
•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5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4149-517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근교
•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
• 건물: 법당 20평(등기)
•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
• 산을 끼고 물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
•가액: 1억
010-2692-5967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남동구 구월동
• 모래내 시장옆
• 실평수 108평, 3층중 2층
• 대법당1, 방4, 창고방1, 공양간, 창고
• 입실부엌, 다용도실, 도시가스
• 보증금 20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32)467-0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아담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 총 약 200평, 실용가능 면적 약 400평
• 토굴內아파트식으로 올수리
(방2개, 넓은거실겸 부엌, 욕실, 붙박이장)
• 창고, 토굴앞 텃밭, 비닐하우스2동,
주차장 산자락끝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 가액: 6천 5백만원
054)457-4367
010-7163-08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최고 큰도로변
• 대지 50평, 법당 15평
• 요사채 10평, 공양실 방2,
화장실1, 별도 화장실1
• 가액: 2억
(전세 5천에 삼십만원)
010-7280-880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대산
• 면적 대지 309평
• 법당 20평 외 건물 4동
• 교통편리, 주차공간 넓음
• 마을한복판에있고,집안에텃밭있음
• 가액: 2억 8천만원
011-882-28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일광
• 평수 대지 270평, 주차장 83평
• 법당 22평(목조, 단청)
산신각, 용왕각
• 요사채2동, 방7개, 욕실2개, 주방
• 법종(300관), 5층 사리탑
• 가액: 7억 5천만원
(조절가능)부동산사절
051)721-3995
010-9395-3251

관음전법도량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용동
• 대지,전답,법당
• 방6개 ,공양간,거실,욕실
• 관음전법도량으로 중생제도하실 대처(비구)
스님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인연 기다립니다.
054)772-2851
010-5297-2851

물건 이름도 모르면서 자기 물건이라 할 수 있나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3)


삽화 • 김홍인

"당신이 바로 촌장인가요?"

"그래, 그렇단다. 너는 저 녀석하고는 달리 똑똑해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갇힌 진짜 이유가 뭔지 짐작 가는 바가 있으면 말해 보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지 나무 열매를 몰래 따먹었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그래? 어째서?"

촌장이라는 자가 되물었다.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다.

"어제 멀리서부터 시작한 불길이 거의 이 근처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을 리 없죠. 우리 역시 그 불을 피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분명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인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있을 피해를 대비해서 대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집집마다 문은 다 닫혀있더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맞아. 산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문을 잠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무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만약 화재 때문에 마을에 인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그런 척을 했다는 게 되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우리를 함정에 빠트리려 한 걸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우리 자신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당신들의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겠지요. 열매 몇 개 따 먹은 정도는 큰 이유가 아닐 테고요."

"그래. 도대체 나무에서 그거 몇 개 따 먹었다고, 사람을 가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신들 모두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무니는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노려봤다.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나누던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년의 시선을 피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흠. 지금 생각해보니 너희들에게 굳이 그런 이야길 들을 필요도, 내가 어떤 설명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 같구나.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묻겠다."

눈동자만 겨우 보일 정도로 작은 촌장의 눈이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 봤다.

"너희같이 어린애들이 떠도는 걸 보면, 분명 다른 가족이 없다는 소리겠지?"

"그래. 없다, 왜! 도대체 그런 건 왜 묻는 건데!"

발끈한 무니가 대답했다. 난다는 그런 친구 때문에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촌장이 두 사람 모두와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 그럼 둘이 한 날 한 시에 죽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니겠구나."

무니와 난다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촌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웃지 않았지만, 크고 두꺼운 입술의 한쪽 끝은 미소를 짓는 듯 올라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남카라는 소년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결국 두 사람은 아침의 그 장소에 다시 갇히게 되었다. 그들을 데려다 놓은 사내가 문을 닫으려하자, 난다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근데 우리 물건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 물건이라…."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그는 눈이 작다는 것 말고는 아까 봤던 마을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생김새였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컸으며 피부는 아파보일 정도로 창백했다.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풍겨왔는데, 자세히 보면 눈빛도 흐리멍덩해서 누가 봐도 술에서 덜 깬 사람 같았다.

"이런 와중에 너희 물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재미있군. 그럼 재미는 있지만 재수는 없는 녀석들인 건가. 이 마을 최초의 감옥에 최초의 죄수들이라. 후후.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재미난 일이 많아진다니까."

"뭐야. 이 녀석 이상하잖아."

무니가 내뱉듯 말했다. 그 말에 껄껄 소리 내어 웃던 남자가 다시 문을 잠그려다 말고, 문득 생각난 듯 행동을 멈췄다.

"근데 사르나트의 바퀴 말이야. 그건 어떻게 손에 넣은 거지?"

"사르나트의 바퀴? 그게 뭐야?"

무니가 난다에게 물었다. 그러나 난다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이더니 뭔가 생각에 빠진 듯 대답을 못했다. 그런 난다를 보던 남자가 말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이름도 모르면서 자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나."

"웃기시네. 이름만 알면 그게 뭔지 다 안다는 거야, 뭐야!"

무니가 남자의 말을 받아쳤다.

"하하. 그런가. 하여간 안타깝겠지만 그건 이제 너희 물건이 아니야. 이제 꼬마들은 얌전히 여기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남자가 문을 걸어 잠그며 다시 미소를 지어보였다. 무니는 문이 닫히자, 견딜 수 없다는 듯 다시 문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봐! 도대체 우리 운명이 뭔지는 알려주고 가야할 거 아니야!"

문 너머에서 남자가 대답했다.

"흠. 산불 조심과 화재 예방 정도?"

무니와 난다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남자의 콧노래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화재 예방이라니, 뭐야. 웃기는 녀석이잖아. 운명이라는 둥 이상한 헛소리나 지껄여대고."

하지만 골똘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난다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어제 불이 번지던 광경, 정말 엄청나긴 했지? 넌 무섭지 않았어?"

생각지 못한 질문에 무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난다가 계속 말했다.

"난 무서웠어. 그래서 어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거 같아서 말이야. 이쪽이 그렇게 빠르게 불이 번질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아니잖아. 하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넓게 퍼졌어.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불길이 시작된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었던 거 같거든. 적어도 세 군데 이상에서 불이 피어올랐던 거 같아. 왜일까?"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거의 동시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불을 질러서?"

난다는 "왜?"라고 반문했다.

"정신이 나갔으니까?"

무니가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라는 듯 간단히 대답해 버리자 난다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할 줄 알았냐! 어이구. 장난해? 정말 그 불부터 시작해서, 이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고, 아까 그 남자 말도 걸리고. 총체적으로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니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도망가면 되잖아."

난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는 넌 생각이 너무 없고? 몸만 빠져나간다고 다 되는 거야? 책도 그렇고, 중요한 물건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꼭 가지고 가야해? 무겁기만 하고, 네가 언제 그 책들을 다 해독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무슨 소릴 하는 거야! 그 책 중에는 할아버지가 주신 책도 세 권이나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내 사르나… 트? 하여간 그 바퀴는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렇구나. 그게 있었지, 참."

무니는 난다의 말에 금방 수긍했다.

"그런데 아까 그 녀석이 말한 사르나트의 바퀴라는 이름, 그게 정말 그 물건의 이름이라면 그 녀석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난다, 넌 그 이름 처음 듣는 거지?"

난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했다.

"아! 내 책가방! 지도, 사전 모두 거기 들어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여기가 대충 어딘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게다가 이제까지는 이름을 몰라서 그 수레바퀴를 해독하는 방법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잖아."

난다가 점점 울상이 되어갔다.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 사전의 모든 항목을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그만둬도 될지도 모르는데!"

무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휴. 책, 책, 책! 책에 안 나오는 게 있기는 하냐?"

"물론! 없는 거 말고는 다 있지. 하지만 지금은 그 책이 없으니, 뭐."

난다의 눈동자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다.

"그런데 정말 아까 그 남자는 뭐하는 인간일까. 사르나트의 바퀴 어쩌고 하는 것도 그렇 고, 그 책들은 고대어라 읽기도 힘들텐데, 왜 욕심을 내는 거지?"

이번엔 난다가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주정뱅이 녀석한테 신경 쓸 때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건지나 생각해 보자고."

그러나 난다는 다시 자신의 책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 내 책가방…."

무니가 한숨만 푹푹 내쉬는 난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누군가 문을 톡톡 두드렸다.

"먹을 걸 좀 가져왔어. 이 밑으로 넣을게."

귀에 익은 남자애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 밑으로 그들이 어젯밤 먹었던 열매가 들어왔다. 그걸 본 무니는 "이게 뭐야!"라며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 문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지금 놀리는 거야, 뭐야. 야! 이런 건 이제 줘도 안 먹거든. 이 문이나 당장 열어! 도대체 우릴 왜 가둔 거야! 화재 예방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나 지껄여대고!"

무니는 계속 문을 걷어찼지만, 문 저편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난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벌써 가고 없어."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1 • 2부를 시청하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휴대폰 010-9217-2237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❼

죽어서도 연꽃 피운 팔가조



옥산 김옥진 화가의 팔가류송도. 효금(孝禽)의 상징인 팔가조 두 마리가 소나무 위에 앉아 있다.

노안도(蘆雁圖)는 강변 모래사장에 내려앉으려 하는 하늘의 기러기를 그 주변의 기러기들이 기다리듯 바라보고, 갈대들을 정원의 나무들처럼 그린 그림이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북송대에 완성돼, 남송대 이후 널리 유행했다.

노안도는 이른 바 평사낙안(平沙落雁)의 모습이다. 갈대 로(蘆) 자와 기러기 안(雁) 자를 쓰는데, 한자의 늙을 로(老) 와 편안할 안(安)과 같은 발음을 쓰기에 늙어서도 안락을 누리고 싶다는 기원을 나타낸다. 기러기는 암수의 금슬이 좋아서 부부해로의 뜻도 함께 갖고 있다.

불심 깊기로 유명한·신령한 새 팔가조
새도 염불해 극락가거늘 우리는 어찌…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보급되어 이 그림에 대한 제화시문(題畵詩文)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기 이후 크게 유행해 근대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이 즐겨 다룬 화제로, 선비의 노년이 평화롭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팔가조는 중국에 사는 까마귀의 일종으로 한고(寒皐)라고도 불린다. 팔가조는 어미가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어미가 늙으면 눈이 먼다고 한다. 그러면 새끼는 어미곁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먹여살린다. 한중일 삼국의 동양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극한 효(孝)의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팔가조는 불심이 매우 깊은 새이다. 명나라의 4대 고승중 하나인 감산 대사(憨山大師; 1546~1623)는 팔가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업의 힘이 커서 중생들은 다 업을 따라 윤회하는데 오직 염불만이 업장을 녹인다. 저 팔가조가 염불하고 업장을 지닌 채 왕생했다. 또 옛날 사람이 팔가조라는 새를 키우는데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지라. 하루는 스님이 그 집에 와서 염불했더니 팔가조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 스님이 염불할 때마다 팔가조도 따라 염불했다. 스님이 간 뒤에도 팔가조는 매일 염불하니 그 주인이 염불을 좋아한다고 그 새를 절에 보냈다. 스님들이 기특히 여겨 고성염불과 무념염불을 가르치니 팔가조가 알아듣는 것 같았다. 하루는 스님들이 곧 죽게 되는 팔가조 옆에서 염불을 했고, 그 뒤 팔가조는 장롱 속에서 죽었다. 팔가조 시신을 산에 묻어 주었더니 수일 후에 한 연꽃이 피어올라 있었다. 스님들이 땅을 파서보니 그 연꽃은 죽은 팔가조의 혓바닥에서 솟아나 있었다. 후대의 사람은 글에서 '신령한 새 팔가조가 있어 스님따라 아미타불을 염했다. 죽어서 땅에 묻어 연꽃이 피었으니 우리 사람은 어찌 저만 못하는고' 라고 했다."

새에 불과한 팔가조도 염불을 해서 극락에 왕생하고 혀에서 연꽃이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불자들이 염불하지 않는다면, 무릇 새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라 극락왕생을 바라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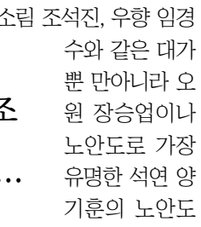
어쨌든 팔가조는 새의 무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효금(孝禽)이다. 그러면, 노안의 상징은 단지 늙어서의 평안을 상징하는 것일까?

예전부터 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 우향 임경수와 같은 대가뿐 만아니라 오원 장승업이나 노안도로 가장 유명한 석연 양기훈의 노안도를 보면, 가끔 보라색의 민들레 같은 모양을 가진 벌개미취라는 꽃 그림이 함께 나온다. 오랫동안 자료를 찾아봐도 벌개미취를 왜 그리는 지 알 수 없었다.

하늘에는 인생의 황혼을 상징하는 달이 떠있고, 모래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갈대들, 서너 마리의 기러기가 쉬고 있는 곳에 쉬기 위해 날아내리는 기러기들. 그 속에 산뜻한 보랏빛의 벌개미취는 아름다운 색깔과 자태를 보이며 당당하게 화면의 하단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우연히 벌개미취꽃의 우리말 명칭이 자원(紫苑)인 것을 알게 됐다. 특히 벌개미취꽃을 한약재로도 사용한다는 글을 보다가 자원이라는 한자를 다른 한자인 자원(子願)으로 바꾸어 보면서 의문이 풀렸다.

즉, 노안자원(老安子願). 늙어서도 편안히 돌봐줄 아들을 원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노안도에 벌개미취꽃을 그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노안도나 팔가조는 다 같이 효도를 갈구하는 옛 조상들의 발원이 스며든 장식화였던 것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가족

한 울타리 안에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
서로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음은 행복한 일이다.
거친 비, 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음에 행복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마주볼 수 있음에 행복하다.
소중한 인연인연들은 송이송이 꽃이 되는 가족이란
화장세계이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⑪ **조선 영허해일 선사의 '결제(結制)'**

깨닫는 것은 하룻밤의 일

禁足青山裏 (금족청산리)
九旬念無違 (구순념무위)
頭燃求至道 (두연구지도)
履薄畏邪思 (리박외사사)
百鍊多生業 (백련다생업)
明星一夜期 (명성일야기)
身心俱放下 (신심구방하)
閑坐亦無爲 (한좌역무위)

산문을 나가지 않고 청산 속에서
구십일동안 생각에 어긋남이 없이하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지극한 도를 구하고
얇은 얼음 밟듯이 삿된 생각을 두려워하라
백련검은 다생의 일이요
밝은 별빛은 하룻밤의 기약이라
몸과 마음을 함께 내려놓으면
한가로이 좌선함도 무위이리.

조선 영허해일(映虛海日; 1541~1609) 스님은 어머니가 기이한 사람이 밝은 구슬을 주며 잘 간직하라는 꿈을 꾸고 스님을 낳았다. 19세에 출가한 이후 묘향산 · 금강산 등 30여 년 동안 선지식을 찾아 제방을 유력하며 교를 열람하고 선을 참구하여 의심을 결단했다. 49세 때 실상사에서 〈지장경(地藏經)〉을 독송하던 중 지장보살이 나타나 감로수로 정수리를 씻어주는[灌頂] 꿈을 꾼 후 마음이 활연히 열려 걸림이 없게 됐다.

이 시는 결제에 임해 그 마음가짐을 시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부처님 당시 유행(遊行)하기 어려운 우기(雨期)에 한 곳에서 정진 수행했다. 그 전통에 따라 여름 · 겨울 90일 간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용맹이 정진하는 결제에 대해 수련에서 읊었다. 함련에서는 화두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읊었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如救頭燃)' '얇은 얼음 밟듯(如履薄氷)' 하라는 것은 선문의 주장자가 된 지 오래다. 경련에서는 좋은 검은 거듭 단련 하여야 하나 깨닫는 것은 하룻밤의 일임을, 미련에서는 방하착(放下着)하면 그 자리가 무위의 도임을 보였다.

운문골에도 납자들이 찾아들었다. 포행하며 만나는 스님들은 서로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 서로의 일념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 여기 묵묵히 걸어가는 수행자의 발걸음이 또 한분의 부처님이 시기를 염원해 본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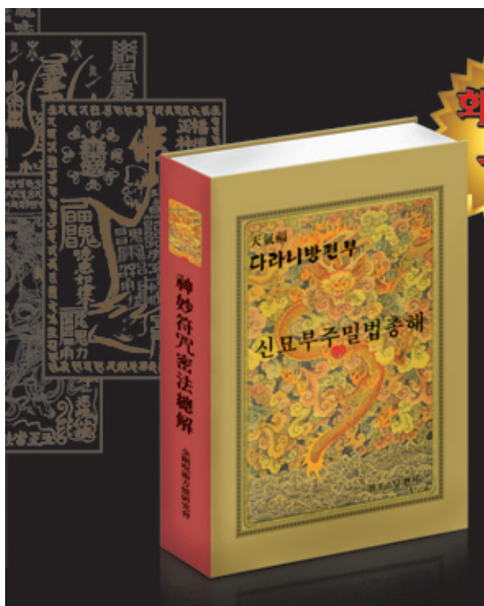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대행 스님

관습에 의해서만 살지 말고 좀 껑충 뛰어넘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신이 돼서, 부처님과 중생들이 둘 아니게 어떠한 문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나무들도 무정물들도 생물 전체가 다, 어떠한 문제를 생각했다 하면 같이 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항시 어디에나 아니 나투는 데가 없어서 금속과도 같고 전력과도 같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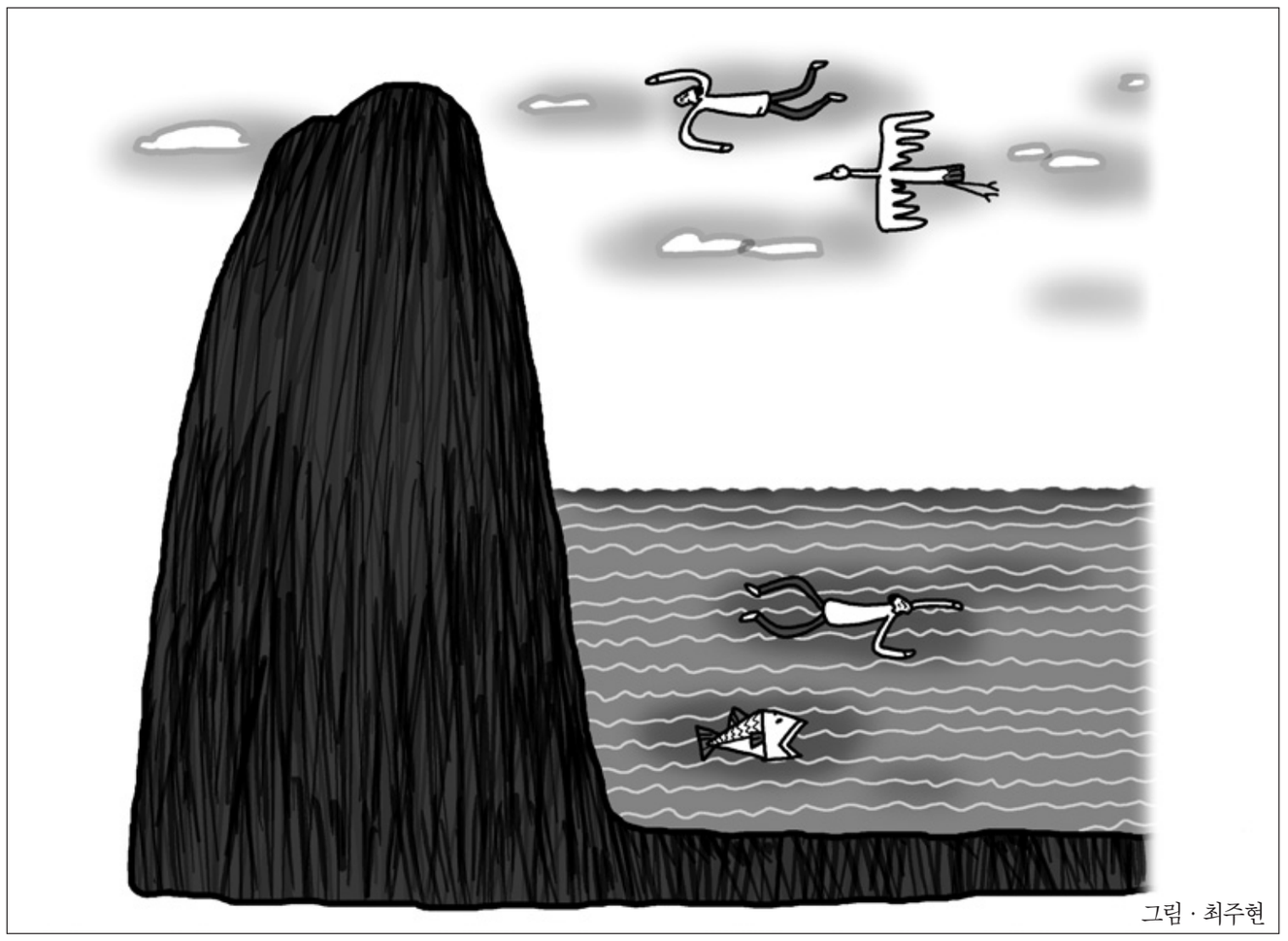
부처님이란 뭘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내가 어느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에 여러분이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내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형님이 됐을 때,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드려야만이 맛있게 집어 잡술는지….

우리 마음은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뭐가 놓여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것도 다 캐치해 가지고 지금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크고 작음이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지 못하시고 항상 물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요것은 못한다, 요것은 한다, 요것이 간다 온다…, 이러는 관습에 의해서만 살아나가고 계십니다. 좀 껑충 뛰어넘어 보십시오. 내 한생각에 의해 내 몸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즉 말하자면 일체 생명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바깥으로는 바로 마음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선행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마음에는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높지 않고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깊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고 통하니까 그 속을 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은산철벽이 다 할지라도 마음은 통하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고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둘로 보지 않는 눈으로 보고, 둘로 보지 않는 귀로 듣고 마음을 넓혀서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옹졸하게 '요거는 요거고 조거는 조거다.' 하고 적대시하게 되면 그 크나큰 진리를 타파하지 못하며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구에 붙어 있는 생물인데 이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시기나 합니까? 지구가 버스라면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네 집 내 집, 내 걸상 네 걸상,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온통 네 것 내 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가요. 돈이 들어오다가도 '아이구, 이 집에 들어가 봤자 괴로움만 가져올 거야.' 하고 나간다고요.

또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내면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내부에 있는 생명들, 의식들은 내 몸뚱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디로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줄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가 잘못 가면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당기듯이 하나하나 다스리면서 거기다가 다시 놓아야 합니다. 나왔던 구멍에다 자꾸자꾸 다시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지금도 예전에 한 말을 그냥 되합니다만,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온다고요. 물질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입력을 해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나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 넣고 안 해 넣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팔자 운명과 고통,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그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게 됩니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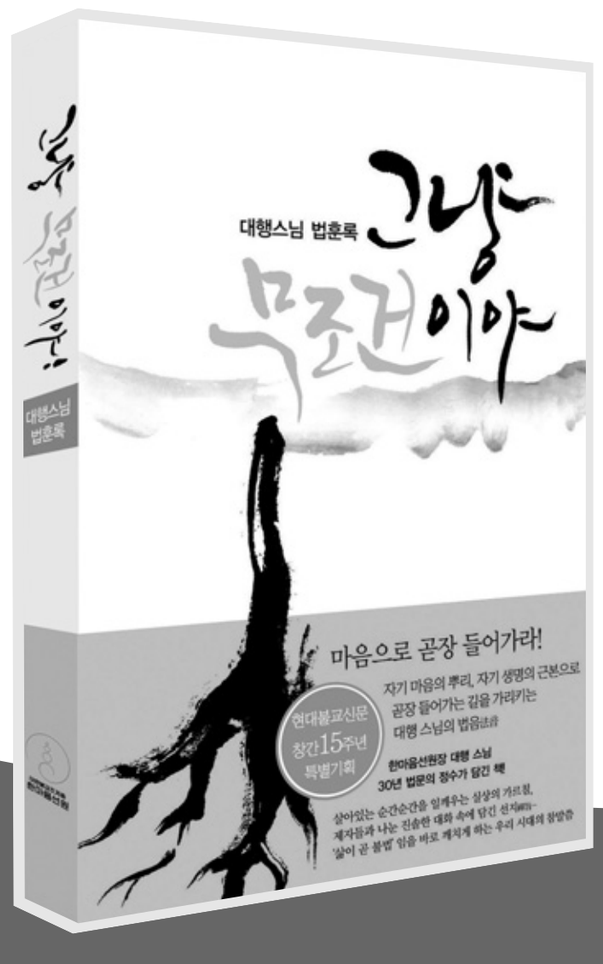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나오는 데다가 놓는다면,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되놓는다면 바로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현실의 그릇이 비었다가 찼다가 비었다가 찼다가 하면서 항상 밝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여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밖엔 없겠죠. 그리고 자생중생들이 다, 내가 마음먹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됨으로써 한마음으로 뭉쳐 준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잘 안다면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어째 이 말을 좀 하다가 저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군요. 아마 여러분이 이러고저러고 이러고저러고 하니까 나 역시 그런가 봅니다. 하하하…. 할 말은 너무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여러분한테 커다란 드럼통으로 기름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작은 그릇으로 받는다면 그냥 밖으로 쏟아질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의 그릇에 채워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스스로 받아질 겁니다, 아마. 질문들 하실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1(남) 먼저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회를 위해서 하구(下邱)하신 큰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스님께서 늘 만물만생이 불(佛) 아님이 없고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처이고 불국토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의정이 납니다. 혼란한 지금도 불국토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인과 필연의 원칙에 의해서 진리 중의 진리인 불법이 미래에 불국정토를 이룬다는 말씀인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바로 불국토인 것이고 모르면 불국토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쳐서 둘이 아닌 도리를 감지하고, 이 세상이 공생으로 공용 · 공식화 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아무리 은산철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통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불국토다 불국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겠습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금속도 다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용도에 따라 끌어다 쓰는 데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력은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 똑같은데 모습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듯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면서 사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불국토고 그대로 아주 자유스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자유자재할 수 있겠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콧방귀 탁 뀌고 싱긋이 웃고 돌아가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예를 들어 하늘이 무너진다 하면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우리 식구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냥 발발발발 떨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살지 못할까 봐, 채일까 봐, 맞아 죽을까 봐 이렇게 벌벌 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국토가 아니라 지옥일 테죠. 그러면 콧방귀 뀌고 웃으면서 돌아서는 사람하고 벌벌 떠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로 그렇게 불국토냐 지옥이냐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국토도 한마음에 있는 것이고 지옥도 한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서 서로가 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대구에 와서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그런지 어딘가 이가 빠진 거 같고 어딘가 꼭 빈 거 같아요. 아마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어딘가가 꼭 빠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진짜로 해 주십시오. 가려운 데를 꼭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자2(여) 저는 의무 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공부 한 지 지금 일 년이 되었습니다. 각 사찰에서 하는 천일 구국 기도다, 평화통일 염원 기도다 하는 기도회가 한마음을 모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문제로 전쟁의 위협을 주고 있는데 공부하는 저희들이 원을 세운다면 그들의 남침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요? 스님 설법 중에 '너 앉은 방석이 편안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앉은 방석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차원 높은 공부가 되게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5 재침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차원 높은 공부가 되게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스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작용도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일체 정신계에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나요, 불도 나요, 모두가 나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여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테나! 자기 마음속의 안테나, 안테나로부터 일체가 다 공존되고 통신이 되고 행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레이더망에서 오고 가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주인공의 안테나를 생활 속에서도 꼭 세워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엊그저께 일도 됩니다만, 어려운 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말입니다, 비를 다 맞을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사 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면 좋지 않어?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관했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어렵고 자식들은 많고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속도 상하고 눈물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순간에 비가 그치고 이사를 가서도 그 이튿날까지도 비가 안 오더랍니다. 하하하…. 그래서 위기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나라에 갔다 오는 거리와 지금 요 한 발짝, 요기 나서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빛보다도 더 빠른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여튼 한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무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아주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체험이 될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을 모두 참선으로 돌려서 생활로 해 나가는 바로 일상생활 참선법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참선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실험하고 깨치십시오. 우리는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아, 이 세상이 다,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무상하구나. 나는 바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관리인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의 심부름꾼이로구나. 내 몸이 헐어져도 내 주인이 제집을 고쳐 가지고 건강하게 해 가지고 가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몸이니까 네가, 네 심부름꾼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지. 네 집 헐어진 거니까 네가 고쳐야지. 네가 이끌어 가야지.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 자체밖엔 없어.'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러한 문제들도 모든 것을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야파서 맡겨 놓으면 약사로 나투어 응해 주실 거고, 또는 가난해서 거기 맡겨 놓으면 관세음으로 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속에서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부처님 마음이 동방에는 아촉이라고 해 놨고 서방에는 아미타라고 해 놨고, 지천국에는 지장이라고 해 놨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라고 해 놨고 또는 약사라고 해 놨고, 칠성 부처라고 해 놨고 지신이라고 해 놨고 용신이라고 해 놨지만, 그 모든 이름들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남편도 됐다가 형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하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투면서 화하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여여함을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한생각이 그대로 지름길이 될 것이고,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잘 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 인간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인간의 마음 자체가 바로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며,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행이니라. 그러니 네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안팎으로 움죽거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네 탓으로 돌리고 바로 네 마음으로 너를 다스리면서 잘 행해 나간다면 바로 네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 화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생활을 한번 이렇게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쁜 데 빠지지 않고 아주 싱그럽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관한다면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으러 가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중생을 둘로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부처님과 중생들이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바로 한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동참하여 분담해서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동참을 해서 경사를 이루게끔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고 해 나간다.' 이러니까 '아이구,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사실 여러분한테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비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해 본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과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 법신의 마음, 일체의 모든 마음이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일이고 내 일이고 둘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역시 그렇고요. 또 사찰도 그렇고 역시 똑같이 그대로 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으로서 공식화하면서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끄달리고,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 더 실험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같이 해 줘서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말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돼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듣지도 마시고 이상하게 보지도 마시고, 나도 또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할 것이니까요. 그냥 그저 주어진 대로, 담아지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책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실천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법이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좋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이 알아보십시오.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빈 것 같습니다. 하하하! 아니, 아무리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엉뚱하게 그냥 이 말 저 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하하하….

> 자기 마음속의 안테나로부터 일체가 다 공존되고
> 통신이 되고 행이 이루어집니다.
> 자기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서는
> 레이더망에서 오고 가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 그러니 자기 내면의 주인공의 안테나를 꼭 세워서 살아가십시오.

※위 법문은 1993년 6월 6월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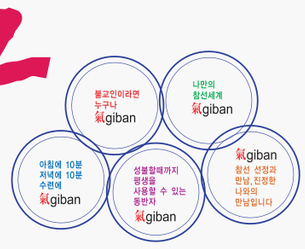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불자 세상보기

한반도 통일과 중국변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한반도 통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행위자는 남북한과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이명박, 김정일-김정은, 오바마, 후진타오(胡錦濤) 등 주요국 지도자들, 남한의 시민사회와 북한의 반체제세력 등이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와 남북간 국력격차도 한반도 통일환경의 중요 변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수로 작용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는 통일보다 평화 · 번영에 관한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두 정부는 화해 · 협력, 공존 · 공영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을 모색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공존 패러다임보다는 흡수통일 담론이 정세를 지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외부세계의 급변사태론에 맞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조기에 공식화하고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을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년간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북한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낙관적 기대는 중국변수를 간과한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북중간에는 군사적 자동개입조항을 명시한 1961년에 맺은 '우호협조와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동맹조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이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외세의 개입에 대한 중국의 자동개입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분단구조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에 기반을 둔 불안정한 구조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전체제에 기초한 한반도의 불안정 구조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통일환경에서 남북한 내부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외부구조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다. 남한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어 G2 나라들의 협력 없이는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새롭게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실패국가' 북한을 후원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계속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북한이 대북압박에 맞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신냉전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껴안기 정책과 중국지도자들의 거침없는 한반도 관련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기 이후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북한을 중국경제에 편입시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지만, 중국으로선 핵개발보다 북한 붕괴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더 사활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 · 중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피로써 지킨 국경을 북한붕괴로 다시 위협받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은 외부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주체 · 자주노선과는 맞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 중국의 노동분업 구조에 편입해서 정권과 체제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급변사태론을 내세워 통일준비만 하다가 북한이 안정적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지속할 경우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북한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압력만으로는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없다. 체제전환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동유럽의 역사적 경험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기약없는 급변사태론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개방촉진과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동할 수 있는 대북전략이 시급하다.

사부대중 칼럼

개똥과 포메라니안



학해 스님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소중한 대상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가볍게 생각하는 상대나 물건에 대해서는 성의 없이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티베트불교의 한 경전에 의하면, 우리가 대상을 대할 때 보통 세 가지 태도로 우리의 자세를 형성한다고 한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은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대상에게는 무관심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대상은 당연히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지 않으므로 사라지든 생겨나든지 간에 아무런 감상과 감정을 보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옛날 속담이 있다. 평소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소소한 존재인 개똥을 누가 눈여겨보랴! 도리어 우리나라나 외국의 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며 산책하다가 개똥을 그냥 두고 가버리다가 들키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생겨난다.

그러나 개똥은 분명한 존재가치를 지니고 이 세상에 사명을 지니고 태어난 중생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동문학가중에 권정생씨라는 분이 있다. 1937년에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와 평생을 경북 안동의 작은 교회의 종지기로 가난한자의 소외된 삶을 살며 2007년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주옥같은 글들을 많이 쓰신 분이다.

그 분이 쓴 가장 아름다운 글 중 '강아지똥'이라는 글이 있다. 시골집 돌담길 순이네 강아지가 싸고 떠나서 홀로 남겨진 어린 강아지똥은 작은 참새나 조그만 흙덩이마저도 하찮게 보는 여리고 쓸모없는 존재이다. 그나마 말동무라도 되어주던 흙덩이도 가고 추운 겨울을 외롭게 보낸 똥은 암탉과 병아리 가족을 만나지만 그들도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자신의 곁에 피어난 아름다운 민들레꽃의 거름이 되어 고요히 죽어간다는 내용이다.

권정생씨는 생전 집 앞에 있는 넙적바위에 앉아 시골풍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한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에게 바위에 있는 이끼를 가리키며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곤 했다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쓸모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많은 것들은 사실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비옥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우리 삶의 근원들이다. 이런 사실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 삶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선에 서게 된다.

출가 전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서 작은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키우며 살던 시기가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고, 피곤에 절은 나는 아침에 나갈 때 꼬리 치는 강아지를 그냥 무심히 지나치고, 저녁에 돌아와 잠자러 방에 들어갈 때 꼬리치며 반가워하는 강아지를 무심히 지나치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안평 근교의 산책로를 지나다가 집에서 도망쳐 나온 도사견이 우리집 강아지를 물고, 아버지를 물고 도망가 버렸다. 도사견에 물린 포메라니안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친 아버지는 도사견이 쫓아오는 바람에 죽은 포메라니안을 챙겨올 수가 없어 풀섶에 던져놓았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피곤에 지쳐 문을 열어보니 꼬리치던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야 강아지가 죽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흘러 몇 시간동안 잠을 설쳤다.

그런식으로 한 일주일동안 죽은 강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하곤 했다. 내가 무관심했던 그 강아지에게 평소에 잘해 주지 못한 것이 한(恨)이 된 것이다. 내게 아무런 존재가치 없다고 느꼈던 그 강아지는 사실 내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이다.

강아지는 전생에 가족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복덕은 짓지 못했으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을 때, 강아지로라도 태어나서 함께 사는 것이라 한다. 버림받거나 소외된 많은 이들도 이 강아지처럼 사실은 우리의 가족인 것이다. 앞으론 세상 모든 존재들을 바라볼 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길 바란다.

社說

통도사는 자성·쇄신의 시험대

영축총림 통도사의 주지 자리를 두고 시작된 갈등이 급기야 방장 불신임으로까지 번졌다. 전체 통도사 대중스님 414명 중 위임자를 포함한 227명의 뜻이다.

산중총회를 열고 방장스님을 불신임하고 새 주지를 품신키로 한 대중스님들은 총림의 비상운영을 위해 70명의 스님을 대표로 산중회의까지 꾸렸다. 산중회의는 산중총회 결의에 따른 비상대책기구라며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장스님 측인 경봉문도회는 산중총회 자체가 방장스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아 무효이며, 위임장으로 참석하는 것 역시 산중총회로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장스님의 주지추천은 종헌 제106조 제1항에 부여된 합법적 권한이다. 산중총회 소집 불허도 종헌 제104조에 의한 적법행위이다. 산중총회의 방장스님의 불신임은 종헌 제105조제3항에 위배된다. 더 나아가 방장의 산중총회 불허 방침을 어기고 불신임까지 한 대중스님들은 승려법 제30조를 위반한 종법 위반자인 셈이다.

법과 원칙만으로 따지자면 방장스님 측이 백번 옳다. 다시 생각해보자. 살불살조(殺佛殺祖)하라고 했다. 격외도리(格外道理)가 있다고 했다. 말과 글에 얽매여서는 큰 것을 놓치고 만다.

불신임과 징계 촉구가 독화살처럼 오가는 동안, 방장스님 측과 산중회의 양쪽 모두는 파도가 출렁이는 욕망의 바다를 일엽단주에 의지한 채 표류하는 위태로운 모양새가 됐다. 물론 일엽단주는 종헌 · 종법의 권위, 대중의 공의 등 각자 만의 대의명분이 만든 아상(我相)이다.

유마 거사가 병이 났을 때의 일이다. 문병 온 이가 3만2000명. 유마거사는 이들을 모두 사방 1장(丈)짜리 자신의 거처에 자리하게 했다. 이때부터 방장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수행력을 갖춘 어른스님을 뜻하는 말이 됐다.

종헌 · 종법의 글로 새겨진 권위가 방장스님에게 있다면, 대중의 공의가 모인, 마음으로 새겨진 심인이 산중의회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 둘은 어느 하나만 있다면 쓸모가 없다.

부처를 일컬어 출격대장부(出格大丈夫)라 했다. 종헌 · 종법을 초월해 공의를 모으고 행사한 산중의회 스님들이 그렇다. 산중총회에서, 또 산중회의를 통해 그 뜻을 펼 만큼 폈다. 알 릴만큼 알렸다.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몸의 움직임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는 조어장부(調御丈夫)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 했다. 종헌 · 종법의 권위가 정말로 방장에게 있다면 방장스님은 명칭의 유래처럼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방장스님 측은 대중스님들이 무엇 때문에 방장스님의 뜻을 거슬렀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갈등은 통도사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 총림 주지의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의 결단에 기대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된다.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하고 있다. 구호를 외쳐온 지 반년이 지났다. 이번 통도사의 갈등은 진정한 자성과 쇄신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하는, 조계종도의 자성과 쇄신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이다.

올해는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한 지 1366주년 되는 해이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지종찰(佛之宗剎), 국지대찰(國之大剎)의 위상에 걸맞는 가풍을 떨치길 바란다. 모쪼록 지혜롭고 아름다운 회향을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통도(通度)의 가풍(家風)



창건주 해동 율조(律祖) 자장(慈藏)대국통(大國統)께서는
금강계단 적멸보궁에
"萬代輪王三界主 雙林示寂幾千秋"
"만대의 전륜성왕 삼계의 주인, 쌍림에서 열반하신 지 몇 천 년이던가,"
"眞身舍利今猶在 普使群生禮不休"
"진신사리 여전히 지금도 있어, 널리 중생의 예불 쉬지 않게 하려 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통도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영축산 통도사 전 대중은 계율과 청규와 종헌 종법에 따라 창건주 자장스님의 간절한 염원을 생각하며, 몇 몇 스님들의 다른 생각으로 야기된 불미스러운 문제는 화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신 선지식(善知識) 방장(方丈)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하고, 비 온 후에 하늘은 더욱 푸르고 맑듯이, 앞으로도 화합 대중인 영축 대중들은 하나 된 청정승가로서 산중총회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수행 정진하여 이 나라를 불국토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법통을 수호하고
청정승가를 위한 모임 일동 구배